



3

주 체 88 (1999)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8(1999)년 제 3 호

(루계 제 617 호)

◆◆◆◆◆◆◆◆◆◆ 차 제 ◆◆◆◆◆◆◆◆◆◆

20 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4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5
무지개타고 내려온 칠색송어	6
푸른 이끼	7
언제나 투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8
인민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걸으신 길	9
령도자의 탄생을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감명깊은 명작	11
일곱가지 색의 생리적역할	15
잊을수 없어라 1998 년이여	16
막장길에 이어진 하늘길이여	19
그리움이 서정속에 비낀 한해에 대한 감명깊은 시형상	20
내 삶의 백두산	23
세계속담	25
양춘을 불러	26
봉화산의 나팔소리	40

푸르게 살리	41
끝나지 않은 6 천리	42
강성대국의 첫 새벽길	45
앞채의 무게	46
조선의 기적	52
운전지휘원의 마음	53
형제봉의 새벽노을	54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참신하게 보여준 생동한 형상...	65
분노의 땅에서 (외 3 편).....	70
분노의 무게	70
신천의 침묵	71
미제야 기억하라	71
삼성사 수난기	72
가리라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78
독도는 조선의 섬이다.....	78
기어이 복수하리	80

20 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한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지금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은 무한한 걱정과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새로운 승리로 빛내이기 위하여 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며 힘차게 전진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설의 자자구구를 음미해볼수록 붉은기를 높이 들고 신념의 행군, 의지의 행군을 벌려오던 지난해의 간고한 나날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얼마나 간고한 로정우에서 공화국창건 50돐 대축전과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던가.

공동사설에는 올해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지향이 반영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방어가 아니라 난관을 맞아나아가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공격전을 벌리였다.

이 공격전은 지난날 조선인민혁명군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조국진군에 들어서던때와 같은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 오늘에 와서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귀결이다.

공동사설에는 또한 우리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가 구현되어있다.

부강조국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보다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려는 드팀없는 신념이나래칠 때 그리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할 때만이 건설된다. 또한 석탄과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필수품과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갈 때만이 건설된다.

공동사설에는 또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필승의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지금 적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놈들의 허장성세와 단말마적발악을 보여줄뿐이다.

공동사설은 또한 올해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로 특징지으면서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할것을 호소하고있다.

공동사설은 이렇듯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투쟁목표와 그 실현방도가 명백함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를 안아올 우리 인민들에게 새로운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거창한 강성대국건설위업이 장래의 일로가 아니라 지금 수행해야 할 투쟁목표로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참으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 창조와 건설의 주체를 교양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사상강국으로 빛내일 작품창작에 모를 박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가들은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독특한 령도방식과 숭고한 풍모를 더 밝고 정중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품의 주인공들을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내세워야 하며 최고의 애국도 최대의 충정도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용사들의 전형을 많이 창조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강성대국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주체의 나라이며 사상으로 건설되고 신념으로 다져진 사회주의성새라는 사상을 힘있게 구현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투

쟁이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사상적대결을 동반한다는 사상을 뚜렷이 강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본주의황색바람과 자그마한 비계급적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계급의 전위투사로 적극 교양하여야한다.

작가들은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제일기둥이며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인 인민군전사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더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나라가 군중시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한 무적필승의 나라라는 사상, 혁명의 총대우에 사회주의승리가 있다는 사상은 우리 문학에서 언제나 힘있게 울려나와야 한다.

군인들속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기질로 싸우는 전통적미풍이 확립되고 전군이 오늘의 오중홉7련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참모습이다.

작가들은 적에 대한 증오심과 비타협적투쟁정신을 키우며 사나운 맹호로 준비되어가는 군인들의 생활을 더 잘 형상함으로써 세계유일초대국도 내려다보는 만만한 배심과 무자비한 공격정신이 어디에 기인하는가를 밝혀내야 하며 아울러 온 나라를 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군민일치, 웅군애민의 사상이 더 활짝 꽃피나도록 대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올해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는데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부문과 생산적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켜나가는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공업부문, 평양-남포고속도로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과학기술분야는 여전히 우리 주

인공들의 충성과 효성을 시위하는 활무대이다.

작가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자기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고심분투하는 주인공들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 작가들은 경제건설의 중하를 어깨에 메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하는 지도일군들의 형상도 더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새 환경에 맞는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체득하고 대담성과 완강한 실천력, 이신작척하는 인민적품성의 소유자로 될 때 우리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진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간고하지만 최후승리는 눈앞에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휘황한 설계도가 있으며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어있다.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형상으로 빛나는 기념비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이 땅의 모든 재부를 알뜰히 가꾸어가는 충신으로 살게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우리 작가들은 통일된 조국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려는 민족의 숙망과 열망을 안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하여야 한다.

이런 때만이 우리의 행군길은 락원의 행군으로 확고히 이어질것이며 주체88(1999)년은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헌시

올라비 린누스

오늘은 경사로운 명절, 쉬어야 할 날이건만
깊으신 사색 끝없이 이어가시거니
승리를 수놓아오신 길, 개척해나가셔야 할
길우에
이날은 력사의 이정표로 빛나는 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예술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아, 영원한 충성의 모범으로 인민을 이끄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로 빛나시는 향도의 별이
시여!

하나의 조선
이는 조선인민의 미래
그 밝은 빛발따라
숙원의 그날은 기어이 밝아오리!
(필자는 핀란드시인임)

무지개라고 내려온 칠색송어

청천강의 지류인 향산천은 묘향산의 기본계류이다.

향산천에는 뱀장어, 행배리, 갈근이 등 20여종의 민물고기들이 살고있다. 삼복때에는 은어떼가 청천강에서 향산천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그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다. 더우기 근래에는 칠색송어가 무리지어다니니 실로 향산천의 풍경은 말그대로 선경이라 아니할수 없다.

국제친선전람관과 묘향산 보현사 지구의 겨울철물온도가 0℃~2℃이고 여름에는 10℃~25℃정도이니 아마도 사람들은 서식에 알맞춤하여 칠색송어가 무리지어다니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10여년전만 하여도 향산천의 비로문합수터룡소에는 칠색송어가 한마리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이렇듯 많은 칠색송어떼가 룡소에서 무리지어다니는가?

이고장 사람들에게 그 래력을 물으면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군한다.

주체70(1981)년 5월 어느날, 하늘은 파랗게 개이고 향산천의 맑은 물은 기쁨에 겨워 늠늠늠늠춤추며 흐르고있었다.

시절은 한창 무르녹는 봄계절이라 묘향산 8만4천봉우리마다에 꽃들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갓 찾아온 계절조들은 숲속에 등지를 트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날은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천래팔로 오르시는 날이었다.

그이께서는 련 닷새동안 몸소 힘준한 100여리 산밭을 타시며 묘향산 등산길을 개척하시느라 피곤이 겹쌓이시였으나 여전히 왕성한 정력으로 탐승의 길을 이어나가고계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그이께서 조금이라도 피곤을 푸시도록 하기 위해 그날 점심시간에 간단한 피로연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더러는 산에 올라 산나물도 뜯어오고 일부 사람들은 화식기재도 운반해오고 여러가지 식료품들도 장만하느라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을 어느새 아셨는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등산할 땐 야외에서 간단히 건식을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그들을 만류하시였다. 할수없이 그들은 호랑령과 칼봉 그리고 칠성동의 세 물줄기가 합쳐지는 비로문합수터에서 어느때와 다름없는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였다.

그렇지만 이미 마련하여놓은 몇가지 식료품들은 마저 가공하여 더 보충하기로 하였다.

점심식사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였다.

누구는 방금 뜯어온 싱싱한 산나물을 다듬었고 또 누구는 밥을 짓는가 하면 양념장도 만드느라

고하여 내가가 떠들썩하였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몇몇 수원들과 함께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위를 감돌아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부감하시면서 지금의 칠성다리가 있는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발밑에 푸른 소가 나지자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시였다.

룡소에는 종갈이, 마자, 모래기 등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그이를 반겨맞는듯 즐겁게 꼬리치며 헤엄쳐다니고있었다.

물속을 한참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이윽고 허리를 펴시면서 《여기엔 왜 칠색송어가 한마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그이를 안내하던 한 일군이

《여기엔 칠색송어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였다.

《칠색송어가 없단 말입니까? 이곳의 물은 여름에도 차기 때문에 칠색송어가 살기에 알맞춤한데 왜 칠색송어를 기르지 않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볍게 질책하시며 여기에 칠색송어를 놓아 길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불찰을 가슴깊이 느낀 그 일군은 수첩에 《비로문합수터 룡소에 칠색송어를 기를것》 하고 써놓았다.

바로 그찰나였다.

저쪽 웃켄에서

《앗차, 놓쳤다!》

《잡아라!》 하는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몇사람이 바지가랭이가 젖는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침범침범 뛰어들었다. 그들은 물방울을 튕기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쪽으로 경충경충 뛰어내려왔다.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칠색송어 몇마리가 경애하는 장군님 앞에서 유유히 헤엄치고있었다.

《에 참, 놓치고말았는데...》

그들은 푸른 룡소에 들어가버린 칠색송어를 보며 놓친것이 분한듯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그이께서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있던 수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방금 비로문합수터 룡소에 칠색송어가 없는것을 매우 아쉬워하시였는데 난데없이 칠색송어들이 그 룡소에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동행한 일꾼들중 어느 한사람이 그이께 대접해드리려고 산 칠색송어 몇 마리를 가져왔던것이다.

그들은 그 칠색송어를 가공하려고 물통에서 꺼내어 칼도마에 올려놓았는데 웬일인지 그 고기에서 칠색무지개빛발이 눈부시게 뿜어나오는것이였다.

모두 그 빛발에 눈이 시그럽기도 하고 또 황홀하고 놀랍기도 하여 멍하니 들여다보고있는데 갑자기 칠색송어가 칼도마에서 푸들쩍거리더니 시내물로 뛰어드는것이였다.

그러자 물통에 있던 다른 칠색송어들도 무지개 빛을 뿌리며 푸들쩍 푸들쩍 시내물로 뛰어들었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린 그들은 《잡아라!》 하고 소리치며 물로 뛰어들었으나 허탕만 치고말았다.

이 일은 비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로문합수터 룡소에 칠색송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神通력으로 여기 룡소에 칠색송어 원종을 마련해주시였다고 한

다.

어떤 사람들은 비로문합수터 룡소에 칠색송어가 생기게 된 래력을 다르게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기 합수터에 칠색송어를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무지개가 비졌는데 그 무지개를 타고 칠색송어들이 하늘에서 룡소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하여간 그이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여기 룡소에 칠색송어가 뛰어든것은 사실이다.

그후 비로문합수터 룡소에는 칠색송어떼가 날이갈수록 자꾸만 늘어난다고 한다.

진람관앞 칠성다리 밑에서 사는 칠색송어들도 여기로 떼지어 올라온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아마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비로문합수터 룡소야말로 칠색송어들의 가장 좋은 보금자리인듯싶다.

지금도 칠색송어들은 향산천에 욱실거려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고있다.

김우경

푸른 이끼

정진혁

하늘 푸르고 해빛밝은 날
금강산으로 오르는 이 걸음
천만눈길 모으고모아도
다 담을수 없는 절경이여

만물상 상상봉도 구름을 휘감고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는데
천년바위들을 감싸안은 푸른 이끼 너도
나의 걸음 멈추게 하는구나

하도 푸른 웅단갈아
내 정히 쓰다듬어보노라
만물상의 그 많은 바위들에
소문없이 푸른 옷 단장시켜
금강의 아름다움 장식해주는 푸른 이끼를

천하절승의 아름다움을
그 어찌 기기묘묘한 바위들
은갈기 날리는 폭포들
불타는 단풍들만이 장식하여준다더나
금강산을 빛내여주는 아름다움에
푸른 이끼여
너의 모습도 한몫 있나니

너 이름없는 작은 자연도
금강을 받드는
평범할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구나

엄혹한 자연의 비바람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푸르른 너의 모습
크지 못해도 절개있게
꼭지 않아도 제 모습대로
빛이 안나도 모두를 위해 사는
푸르른 너의 모습

이 모습이여라
오직 한가닥 나의 마음을 틀어잡은건
소박해도 제 모습으로 금강을 장식하는
너의 티없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이여라

물없고 좁은 바위들에도
뿌리를 내리고 푸른 정기 떨치는
너의 강인한 모습에서
어려운 행군을 하는 조국앞에
내 어떤 자세로 서야 함을
아, 푸른 이끼여 너는 속삭여주누나



언제나 투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력사의 풍파를 맞받아나아가는 우리 앞길에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드는 한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있다는 신념이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간고분투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모든것을 투철한 주체적립장에서 보며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일군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어느 봄날에 있는 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소비품정형을 보여주는 전람회장을 돌아보시고나서 일군들을 만나주시였다. 그자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람회장을 돌아본 일부사람들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운운하면서 우리 나라가 그 나라들을 따라가자면 아직 먼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한 사람들을 시비군으로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경제발전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대하여, 우리의 공업이 많은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일떠선 우리의 공업이 사회주의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같은 사실은 세계를 경탄시켰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우리 당 경제정책의 현명

성에 대한 찬양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분투하여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경제발전속도는 빠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일군들은 언제나 투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것을 대하며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심과 민족적자존심에 크나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안게 되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공업을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 앞선 나라를 따라잡을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줄 알때 신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헌신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우쳐주시였다.

진정 하나를 보시고도 열, 백을 헤아리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일군들에게 주체의 담력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 심어주신 철의 의지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기둥으로 깊이 뿌리내렸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거창한 위업을 단 14년만에 완성할수 있었으며 모진 시련과 난관이 증중첩첩 겹쌓이는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것이다.

위대한 령도는 위대한 승리를 낳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지휘하시기에 우리 인민은 모진 고난도 웃으며 헤치면서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는것이다.

인민을 생각하시며 끝까지 걸으신 길

드넓은 대지우에는 파사론 봄별이 차넘치고 그 빛날아래서 만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 움을 펼치는 소생의 계절, 환희의 계절.

또 한해 간고한 겨울을 이겨내고 희망넘친 새 봄을 맞이한 기쁨과 사랑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들.

온 나라 인민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걷는 오늘의 총진군길.

그 길의 앞장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린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안아오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다.

그 길에 바치시는 온갖 로고를 락으로, 기쁨으로 여기시며 가로막아서는 모든 난국을 희망찬 래일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락관으로 파감히 헤쳐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신념, 그 의지, 그 락관은 우리의 총진군대오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이끌어주는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칠보산을 찾으시였던 지난해 11월 14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칠보산의 개심대, 만물상 등 명소들에 뻗어오른 시원한 답사도로들과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일떠선 전망대들을 비롯한 새로 건설된 수많은 대상들을 돌아보시였는데 덕골폭포로 오르는 답사길도 그중의 하나였다.

덕골폭포로 말하면 깊은 골짜기에 오랜 세월 제모습을 감추고있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칠보산을 다녀기신후에야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된 폭포였다.

동해의 명승 칠보산을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잘 꾸릴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폭포로 유명한 덕골에도 답사길을 새로 닦고 독특한 경치를 마음껏 부감하며 휴식할수 있는 아담한 정각도 건설해놓았다.

수정같이 맑은 벽계수가 소리치며 흐르는 계곡 사이를 편결한 날씬한 구름다리들과 깎아지른듯한 절벽길을 역척으로 받쳐주는 웅벽들, 탄탄대로마냥 시원스레 뻗은 등산길...

덕골입구에 이르시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길을 잘 닦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기쁘신 마음으로 답사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였다.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이 력력히 어려있는 만년대계의 건축물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후더워오는 심정을 이기지 못하신듯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외우시였다.

《건설자들이 이 험한곳에 모든것을 등짐으로 져날라다 인력으로 건설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고생이 많았을것입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인민을 위해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이 흘린 충성의 구슬땀을 헤아려보시는듯 건축물마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모든것이 로동당시대의 건축물답게 잘 건설되였다고, 답사길을 계단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닦아놓으니 걸으면서도 주변경치를 마음대로 볼수 있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이 인민성있게 건설을 잘 하였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칠보산을 인민의 유원지로 더 잘 꾸릴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어느덧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일행은 골짜기 어구가 멀리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까지 이르시였다. 장군님을 뒤따르는 일군들은 땀을 흠치고 가쁜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아무리 잘 닦은 등산길이라지만 역시 가파로운 언덕길은 힘에 부치였다. 그런데 폭포까지 가자면 아직도 천여메터의 울리막길을 더 뚫아올라야 하였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안내해드리던 일군들은 기본적인 답사도로구간을 다 돌아보시였는데 이제는 돌아가시자고, 점심시간도 되어오는데 잠시라도 쉬셔야 하지 않겠는가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훌륭하게 꾸려진 유원지를 보니 먼길을 온 피로가 한순간에 다 풀리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갑시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땀과 정성이 고여있는 길인데

어떻게 중도에서 돌아설수 있겠습니까. 건설자들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에서 걸으시며 보라, 길을 얼마나 성의껏 닦았는가, 시설물 하나하나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로동계급의 지성이 잘 알린다,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자체의 힘으로 이처럼 훌륭한 창조물을 일떠세운것은 정말 대단한것이라고 하시면서 뜨겁게 말씀을 이으시었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행군을 하는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은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길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열의에 대하여 잘 알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래일에 대한 신심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 강성대국의 래일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길이여서 걸어도 자꾸만 걷고싶습니다.》

가슴을 뚫이는 어버이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뜨거운 걱정이 솟구쳐올라 목이 짹 메이고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한가닥의 산골길을 걸으시면서도 그 길에 깃든 인민의 땀과 지향을 헤아리시며 인민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품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 길이 다름아닌 어려운 때일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욱 굳게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뜻을 한몸 다 바쳐 받들어나가는 성실하고 강의한 인

민들이 만만시련을 참고 이겨내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닦은 길이여서, 자기들은 비록 오늘 잘못먹고 잘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 만복이 넘치는지상락원을 물려주겠다는 각오와 념원을 안고 마련한 창조물이여서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는것이였다.

드디어 폭포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외칠보의 아름다운 자태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은 반드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것이라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생각하시며, 부강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까지 걸으신 그날의 그 답사길.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마음속에 계시며 인민의 지향을 안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험한 길 가림없이 선참으로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의 길, 로고의 길이 있기에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위용떨칠 내 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있는것 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희망찬 새세기, 광명한 미래를 확신에 넘쳐 바라보며 우리 인민이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의 이 진군길.

이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최후승리자로 될것이니.

최후승리자의 공지와 영예를 안고 새 세기에로 들어설 우리 인민을 축복하는가 저 멀리 하늘가에서 우뢰가 울린다, 봄우뢰가...

령도자의 탄생을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감명깊은 명작

-서정서사시 《해돋이》에 대한 문학신인과의 담화-

장형준

지난 11월초 봄날같이 따뜻한 어느날 나는 우산장 창작실에서 한 문학통신원과 만났다. 그는 지면을 통해 나를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글을 쓰고있는가고 물었다. 내가 그에게 시인 김철의 서정서사시 《해돋이》에 대한 작품평을 준비하고있다고 하자 그는 자기도 몇해전에 《조선문학》(주체81(1992)년 3호)에 나온 그 시를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평론가선생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담화는 서정서사시 《해돋이》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되었다.

신인: 어째서 선생이 몇해전에 나온 작품을 요즘에 와서 평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필자: 세상에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작품, 읽고 또 읽어도 더 읽고싶은 작품이 있지요. 그런 작품들중의 하나가 바로 서정서사시 《해돋이》입니다. 동무도 아다싶이 이 서정서사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창작된 작품입니다. 우리 시문학에 령도자의 탄생을 노래한 작품은 적지 않으나 이 서정서사시와 같이 독자들의 심장을 크게 울려주는 명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평필을 들려고 합니다.

신인: 선생의 평론동기, 창작심리에 수궁이 갑니다. 시를 공부하는 문학신인으로서 저도 이 시를 좋게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심장을 매혹시키는 그 생명력과 견인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명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필자: 작품을 옳게 평하자면 그 정확한 척도인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에 철저히 의거해야 하지 않겠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서정서사시 《해돋이》가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강력한 생명력과 견인력을 가진 감명깊은 명작으로 되는것은 바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과 그 민족사적의의를 력사적으로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데 있다고 보아집니다.

신인: 예. 작품이 참으로 진실하고 심오합니다.

필자: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 계승분)를 보면 《해돋이》의 사건과 생활이 주체31(1942)년 2월의 그 력사적사적과 사실 그대로임을 더욱 똑똑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계신 원동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백두밀영고향집에서 수령님의 자제분께서 탄생하신 사실과 그 기쁜 소식을 수령님께 알려드리는 과정 등이 다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되어있습니다. 안길,김일, 최현, 강건, 정치위원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수령님께 잠시 비밀에 붙이고 경마로 승부를 겨루다가 통신원이 기다리는 훈련장에 이르러 갑자기 수령님을 하늘높이 들어올리며 백두광명성이 탄생하였다고 웨치는 그 장쾌한 장면은 물론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숙어머님께 드리려고 정성껏 마련한 꿀을 넣은 오지단지며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싸안으신 쪽무이포단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대로입니다.

시인이 력사적사실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것은 구호문헌을 그대로 시화하고있는데서도 볼수 있습니다.

《장수별 태양으로-》

《너장수별 모성으로-》

《자성은 광명성-》

《빛나라 만대에, 삼태성 만세! -》

이러한 시행뿐아니라 작품의 마감에 있는 가사도 구호문헌에 기초하여 지어지고있습니다.

시인은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노래하고있을뿐아니라 항일혁명투사의 시점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력사적사적을 시화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력사적진실성을 담보한 이 시의 중요한 형상적특성이 있습니다. 동무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시의 서정적주인공은 흔히 시인자신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서정적주인공은 시인자신이 아니라 항일혁명투사입니다. 이것은 력사적사변을 그 직접적인 체험자, 목격자의

시점에서 노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적사변을 진실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담당자는 더 말할것 없이 그 사변의 직접적인 체험자,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사변의 체험자, 목격자일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목격하지 못한 역사적사변을 체험한것처럼 노래한다면 독자들에게 그 형상세계를 진실한것으로 믿게 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해돋이》에서 시인은 그 역사적사변을 자신의 시점으로 노래하지 않고 항일혁명투사를 실화자로 하여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사적화폭을 펼치고 서정을 토로하며 그에 자기의 주정을 합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수법으로하여 《해돋이》는 역사적진실성이 잘 보장된 훌륭한 사실주의적시작품으로 되었습니다.

신인: 작품이 내용과 형식에서 진실하다는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은 어떻게 구현되어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필자: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작품의 철학성은 철학적인 문제를 취급한다든가 철학적인 주장이 있다고하여 보장되는것이 아니지요. 작가가 발견하고 탐구한 생활의 진리가 깊이있게 형상되어야 합니다.

서정서사시 《해돋이》의 철학적심오성은 령도자의 탄생을 주체혁명위업계승의 견지에서 뜻깊게 노래한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인이 적지 않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탄생한 첫날부터 《백두광명성》,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떠날때까지 그 탄생이 전 민족적경사로 축복된 그런 위인은 없습니다.

신인: 정말 그렇습니다!

필자: 그래서 시인은 령도자의 탄생을 노래한 이 서정서사시의 제명을 《해돋이》라고 달고

《해가 솟는다》고 열정적으로 웨치며 그이를《새날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것입니다.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은 우선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분의 탄생을 얼마나 격동적으로 맞이하였는가 하는것을 열렬하게 노래하고 있는데서 볼수 있습니다.

작품에 형상되어있는바와 같이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님의 자제분의 탄생을 전민족적경사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마로 승부내기를 하면서 백두광명성이 탄생하신 백두산 밀영까지 곧장 달려가고싶었던것입니다.

그 대목을 상기해봅시다.

오오- 광야여 광야
달빛 넘쳐흐르는 눈벌판이여
눈바람도 획-획- 뺨에 뜨거운

이 길이 백두산밀영까지 곧장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더 좋으랴

룽마바위여, 장검바위여, 해돋이바위여
귀틀집 뒤에 솟은 장엄한 봉우리여
지금도 더운 김 피워올리며
노래하듯 흐르고있을 소백수물이여

그 물에 목 추기고
그 트랙에 들어서서
아- 그 트랙에 들어서서...
소리쳐 웨치고싶구나 춤을 추고싶구나!

여기에 수령님의 자제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열렬한 심정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있는것입니까!

경마로 달리던 항일혁명투사들이 통신원이 기다리는 훈련장에 이르러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말에서 안아내리우자 높이 들이올리고 《경마값이 아니요-》, 《생남덕이요-》, 《백두산에 광명성 태여났다고-》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수령님의 계승자를 맞이한 기쁨을 참을길 없어 40년대의 투사들이 수령님을 부동켜안고 눈무지에 마구 덩구는것입니다.

이 걱정적인 웨침과 열광적인 행동은 생남을 축하하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위대한 후계자의 탄생을 축복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들의 숭고하고 열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이 아버지수령님의 자제분의 탄생을 오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벌써 주체혁명위업계승과 민족의 장래운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 민족적대경사로 심오하고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이 서정서사시의 철학성은 특히 수령님의 자제분의 존함을 뜻깊게 지어드리는 대목에 심오하게 구현되어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식이 태어나면 그의 장래와 행복을 기원하여 이름을 뜻깊게 짓군하였고 혁명가들은 자녀들과 동지들의 이름에 깊은 혁명적의미를 부여하군하였지요.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러명기에 위대한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라 싸워나가려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그이의 존함을 날 일자,(日) 이를 성자(成)를 써서 김일성동지로 고쳐 부른것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정서사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분의 성함이 어떻게 지어지고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백두밀영에서는 수령님의 자제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수령님의 분부만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백두밀영에서 달려온 너대원의 아뢰임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추억과 사색에 잠겨 다음과 같이 천천히 말씀하시는것입니다.

《나에게도 본래
부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지요
그러나 김혁이란 차광수, 그 동무들이
내 이름을 **김일성**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나는 이자리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우니
내가 김형직의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엄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백두산에서
우리과 피줄을 이은 그 생명도
혁명의 아들, 조국의 아들
민족의 아들이며 인민의 아들이지
김성주의 아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는 동무들에게...》

이 대사형상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뜻깊은 말씀을 혁명의 요청으로 받아안고 조국과민족, 인민의 념원으로 자제분의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태양의 아들이시여
태양의 대를 곧바로 이으시라!》
《바를 정(正)!》
《날 일(日)!》
《정일!》
《**김정일!**》

오늘 세상사람들이 우러러 친근하게 부르는 **김정일**동지, 그 성스러운 존함은 이렇게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의 대를 곧바로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주시길것을 바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고있는것입니다.

그 숭고한 념원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령도자의 존함에 대한 시적형상은 시인의 발견이 있고 발견한 생활에 대한 깊은 탐구와 사

색이 있는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로 됩니다.

그 숭고하고 심오한 뜻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사를 통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옵니다.

《동무들!
고맙소
잊지 않겠소
정숙동무도
김정일, 그도
잊지 않을것이지요
잊지 않을것이지요!》

신인: 참으로 뜻이 깊은 명대사입니다. 되새겨 볼수록 그 대사의 의미가 깊은 여운을 가지고 가슴을 찡니다.

필자: 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그 형상들에 시인에 의하여 탐구되고 발견된 생활의 진리, 그 역사적의의가 심오하게 체현되어있기때문이지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과 존함을 혁명발전과 완성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혁명위업 계승의 견지에서 뜻깊게 노래한 여기에 이 서정서사시의 철학적심오성과 불멸의 예술적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인: 서정서사시 《해돋이》의 생명력과 견인력이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는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품의 형태적생리를 잘 살리고있는것과도 관련되어있지 않을까요?

필자: 옳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나도 그에 대하여 말하자고 하던 참입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령도자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노래한 감동깊은 명작으로 되게 된것은 형상에서 서사적인것과 서정적인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서정서사시의 품격을 잘 살리고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서정서사시는 서사시적특성과 함께 서정시적특성도 가지고있는것이지요. 그러나 서사시보다는 서정적요소가 진하고 서정시보다는 서사적요소가 강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분량상으로도 서사시보다는 짧고 서정시보다는 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서정서사시는 서사시도 아니고 서정시도 아닌 하나의 독자적인 시 양식인것입니다.

서정서사시의 서사성과 서정성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형태적 특성과 생리에 맞게 조화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서정서사시에서 서사성이 잘 보장되자면 우선 그 기초로 되는 사건들과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고 간명하여야 합니다.

서정서사시 《해돋이》의 사건과 이야기는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작품의 서사적내용은 위대

한 령도자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있습니다. 백두산밀영에서 온 통신원의 소식을 받아안고 별동대장 안길이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에 도착하여 그 기쁜 소식을 비밀에 붙이자고 하는 장면,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말을 타는 장면, 백두광명성 탄생을 수령님께 알리며 열광적으로 축하하는 장면, 수령님의 자제분의 이름을 짓고 환호하는 장면, 이것이 작품의 이야기줄거리에 련결되어있는 생활장면의 전부입니다.

작품은 이런 간결한 사건과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도 매 장면들을 참신하고 본질적인 세부들과 뜻이 깊은 명대사들로 형상하여 생동하고 기름진 서사적화폭들을 창조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문에 작품은 서정서사시의 생리에 맞게 그 서사적특성이 보장되고있는것입니다.

작품이 서정서사시로 되자면 서사성과 함께 풍부한 서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서정성 구현의 가장 힘있는 수단은 서정으로입니다.

서정서사시 《해돋이》는 사건과 생활을 생동한 서사적화폭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중요한 계기마다에서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설화자-서정적주인공의 주정을 터치는데 힘을 넣어 서정토로를 풍부하게 주고있습니다.

신인: 어떤 대목을 녀두에 두고있습니까?

필자: 그야 많지요. 시가 서정토로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임의의 한 레로 위대한 수령님을 한 가운데 모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이 모닥불뒤리에 빙 둘러앉아 술대신에 정갈한 흰 눈송이들을 우등불에 끓여 축배잔을 들 때 눈굽을 적시며 혁명동지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을 열어보이는 내면독백을 들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조차 모르는 처자들이 있고
몇해를 두고두고 한대오에 살면서도
총포탄 울부짖는 그런 마당에서만
얼핏 보고 헤어지는 애인들도 있거니

무엇을 위해 이들은
그 모든 정은 다 잊은듯
오로지 김일성, 나와 더불어
천만리 피바다를 마다않는것이며
어찌하여 이들은 이 눈무지우에
오늘의 이자리를 마련해놓고
나를 끌어안고 울고웃는것인가!...

이 내면독백은 얼마나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뜨거운 서정토로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행복한

순간에 처하면 기쁨에 도취되어 들뜨거나 자기자신만을 생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행복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혁명동지들을 뜨겁게 생각하시었으니 이 서정토로야말로 전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상과 뜨거운 동지애를 웅심깊게 보여주는 심리표현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작품의 서정성은 설화자-항일혁명투사의 열렬한 주정을 통해서 더욱 풍만하게 주어지고있습니다.

그 좋은 레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제분의 존함을 지어드린 다음의 시적화폭입니다.

아!-

열광의 웨침

환희의 웨침에 떠받들리어

해가 솟는다

열정! 미래! 충정의 불덩어리!

새날의 태양을 높이 우러러

투사들, 전우들이 일제히 일어선다

수령님의 두손을 겹으로, 겹겹으로 감싸잡는다

이 감동적인 시적화폭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 순수한 서사적화폭이 아닙니다.그것은 《아!-》하고 주정을 터치며 《해가 솟는다》고 웨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격앙된 심정을 노래한 랑만적인 서정-서사적화폭입니다.

시인이 서정적주인공으로 나서지 않고 그와 일심동체가 되어 주정을 열렬하게 토로하고있기에 《해돋이》가 서정이 풍만한 서정서사시로 되었습니 다.

작품의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웅근 한장이 다섯련의 완결된 송가로 엮여져있습니다.

백두산에 광명성

태어났다네

조선의 하늘에

태양성 떴다네

동포야 자랑하자

우리 광명성

만대에 빛나라

백두태양성

...

첫 두 련만 보아도 이 가사에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조선의 자랑, 우리 인민의 더없는 민족적공지, 그 환희에 찬 서정이 아름다운 운률을 타고 격조높이 흐르고있음을 심

장으로 느끼게 됩니다.

신인: 그렇습니다. 그 가사는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충성으로 우러러 받드는 오늘의 우리 인민의 심정을 노래한 우리 시대의 송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자: 물론입니다. 가사가 민요조의 운률을 가진 음악성이 강한 작품이기때문에 읊으면 곧 따라 노래부르고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송가로 작품이 마감지어지고 그 격양된 서정이 서정서사시전반에 관통되어 흐르고있기때문에 《해돋이》가 서정시적특성이 진한 서정서사시로 된것입니다.

서사성과 서정성을 서정서사시의 형태적특성과 생리에 맞게 조화롭게 구현하고 위대한 령도자의 탄생을 비상히 강렬한 정서의 열도로 장쾌하고 광만적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작품은 송가적양상의 서정서사시로 되였습니다.

신인: 《해돋이》의 사상예술적 풍격과 특징을 잘 파악하였습니.

필자: 시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론하자면 이밖에도 시어와 운률, 시인의 창작적개성 등 많은 문제를 더 이야기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옥같은 시어와 시구, 아름다운 운률과 그 류창한 흐름새, 이 모든 구체적인 형상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작품의 문학적의의와 교양적가치만은 간단히나마 말해야 하겠습니까.

서정서사시 《해돋이》의 내용은 원래 시인이 서사시 《끝나지 않은 담화》의 마지막장에 넣자던 것인데 구성상 잘 맞지 않아 독자적인 하나의 서정서사시로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상식

일곱가지 색의 생리적역할

색같은 사람의 건강에 일정한 작용을 한다.

일곱가지 색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붉은색: 신경계통에 자극을 주고 흥분시키며 아드레날린분비량을 늘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감색: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식욕을 돋구며 칼시움의 섭취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리롭다.

노란색: 신경계통과 소화계통에 자극을 주고 논리적인 사유능력을 강화해준다.

푸른색: 소화에 유익하고 몸균형을 촉진시키고 진정역할을 하며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심신이 무거운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히길 참 잘했습니다.

이 서정서사시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서정시 《어머니》와 서사시 《끝나지 않은 담화》와 함께 인민들속에 널리 애독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시대의 명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우리의 주체시문학, 특히 서정서사시발전에 빛나게 기여하고있는 모범작의 하나로 됩니다.

시인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이런 명작을 창작할 수 있는것은 그가 시를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시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의 심장이 령도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뜨겁게 불타올랐기때문일것입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 밝혀진 창작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생활을 깊이 탐구하고 창작적열정을 불태우는것은 우리 시문학을 시대가 바라고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으로 빨리 발전시키는 가장 옳바른 길입니다. 이길로 곧바로 전진하는 우리 시인들과 신인들앞에는 보다 큰 성과와 영광만이 안겨질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마칩시다.

신인: 《해돋이》에 대한 선생의 이야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정서사시의 성과와 경험을 본받아 저도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분발하겠습니다.

필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로 위대한 시대에 사는 보람을 안고 조국과 혁명의 요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창작으로 성실히 보답해나갑시다.

푸른색: 맥박을 떨구고 체내의 균형을 조절한다. 침실과 사무실에 푸른색을 쓰면 긴장한 기분을 없앨수 있고 머리아픔, 고열, 어지럼증, 불면증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남색: 긴장한 근육을 풀고 출혈을 감소시키거나 멈출수 있으며 시각, 청각, 후각에 영향을 준다. 아픔에 대한 신경의 민감성을 줄일수 있다. 장식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천에 이 색을 쓰면 안전한감을 준다.

보라색: 운동신경과 림파계통, 심장계통에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체내의 칼시움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다. 안정한 감을 가지게 하고 사랑과 동정감을 촉진시킨다.

잊을수 없어라 1998 년이여

해가 저물어
한해가 저물어
헤어지자니 생각도 깊고
떠나보내자니 추억도 많구나
1998 년이여

산에 들엔
유난히도 흰눈이 많이 내리고
이 가슴속엔
하많은 사연이 쌓이고쌓인 해
너 정녕 가려느냐
떠나가려느냐
세월의 저 지평선너머...

너의 하루하루
너의 갈피갈피에
우리 시인들이 불려온 노래
그리움으로 시작하고
그리움으로 이어지더니
이해의 마지막노래도
그리움으로 젖고젖어

한해도 다 가고
설날은 다가오는데
정초에 먼길 가신 우리 아버이
지금도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 어느 북변마을의 동구밖
발이랑의 찬눈을 헤집고
파아란 밀보리를 보살피지 않는지
천리 먼 최전연초소
병사들의 온실을
돌아보고계시지나 않는지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풍찬로숙하신 우리 아버이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예로부터 하루라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 했더라
한걸음 제 집 트랙을 나서면
봄바람도 차다 했더라
허나
하루도 한달도 아닌
긴긴 해와 달

자연에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었건만
가고가시는 전선길우에는
계절이 따로 없었으니
우리 장군님 고생중의 고생을
어이 다 헤아리라

정녕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해
먼 후날에도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추억의 해

이 땅의 모든것
이해의 모든것
장군님 마음속엔 그리도 크고 소중한
차창에 언뜻 스치는
작은 시내가의 소형발전소 하나
농촌마을 문화주택 지붕우에 세운
텔레비죤안테나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여보시였나니

찾으신곳
들리신 마을
그 집집에서 짚어보신
따뜻한 아래목의 온기
그 일터의 기대앞에서 나누시던
다정한 그 이야기들
지금도 가슴속에 다 젖어있어라

정녕 이해는
길었던가 짧았던가
친아버지의 그 마음이였기에
병사들을 만나시고
인민들을 만나시며
하루해가 그리도 짧게만 여겨졌거니

얼마나 보고싶으시였으면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희천사람들이 자꾸만 꿈에 나타난다고
그들이 나를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자정도 넘은 밤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여
해 뜨는 아침에 찾아가시였으랴

그 마음
그 그리움이
이 나라 산과 강하 수만리
굽이굽이 령길

초소길과 구내길에 이어지고
로동자들과 농민들
병사들과 아이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닿았거니

사람들이여
우리 함께 한번 서보자
장군님 헤쳐 넘으시던
그 험한 령길들에...

산은 첩첩
강은 굽이굽이
차길도 끝나고
거치른 돌밭길
거치른 강변길
정녕 우리 장군님
이런 길을 아니가시면 안되었던가

세차게 들춰대는 야전군용차
쌓이고쌓인 피로
아, 어버이장군님
우리 여직껏
쪽잠만은 달게 드시는줄 알았건만
이해는 이해는
그 쪽잠마저 드실수 없는 험로에 계셨구나

그 쪽잠마저 못드시고
차창너머 비탈진 발이랑을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그이
-나는 인민들이 편할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소!

그 길
그 자옥우에
우리 서보니
산천을 울리며
들에 메아리치며
들려오는 퍼리소리 퍼리소리...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바다가초소의 해안포진지
쌍둥이병사들
먼길오신 장군님께
잠시나마 피로를 풀어드리려
행복에 넘쳐 피리를 불고부는데
오히려 참 잘한다고
정말 대견하다고
웃으시며 박수를 쳐주시던 어버이 그 모습이어

아, 최고사령관과 전사들
내리는 사랑
오르는 충효로

세월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것으로 하여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무력과 공화국이
더 강대해진 우리의 해

시간과 공간으로 한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먼 후날 잇을수도 있으리
날과 달의 합계가 한해라면
이해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추억 이렇게 깊지도 않으리

1998 년이여
추억도 많은 뜨거운 해여
너 정녕 그 하루하루에
무엇을 보았더냐
무엇을 새기였더냐

너는 보았어라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가시는
그 자옥자옥을
감자꽃 피는 백두삼천리
장군님 걸으신 사랑의 삼천리
감자혁명의 구상을 펼쳐주신 그 삼천리

너는 다 보고 다 새겨안았나니
위대한 인간
절세의 애국자의 그 뜨거운 사랑속에
영생의 돌사진으로 다시 태어난 그 모습들을
신천의 원한을 복수의 불길로 지퍼안은
천만의 그 가슴가슴들을

우리는 아노라
강행군을 웃음으로 헤치고
어려움도 노래로 이기는
그 힘의 샘줄기를
심장의 더운 피로 새긴
그 참된 진리를

우리의 장군님도 인간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이시건만
자신의 집을 떠나시여
온 한해 인민의 어버이로
인민의 집에서 사신
우리 장군님!

초소에선 병사들과
담배도 나누어 피우시고
산골마을에 가시여선
인민들이 만든 도토리묵도
감자음식도 다 맛보시며
더 좋은 생활을 꽃피우신 어버이

그이와 인민은
정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뜨거워
끓을래야 끓을수 없는
한식술 한철친

크나큰 감격속에
온 나라가 받아안은 한장의 가족사진이여
머나먼 북변
궁전같은 살림집
훈훈한 전기난방
부럼없는 살림살이에
그리도 그리도 기뻐하신
인민의 령도자

그 인민의 령도자를 가장으로 모시고
대를 두고 이날의 영광을 전하고싶다는
농민의 그 소박한 소원도 해아려
사진을 찍어주신 불멸의 사랑이여
이 세상 밝은 해빛을 다 모아
한장의 사진으로 빛내주신 고결한 품모여

행복의 그 집 그 트랙
장군님곁에
우리가 있었다
인민이 있었다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 식 사회주의대가정이 있었다

그렇다
해빛밝은 한지붕아래
하나의 살림을 펴고
언제나 따뜻하고 화목한
인민의 집
장군님의 집

우리의 집
로동당의 집
강성대국의 집은
이렇게 이해에 더 튼튼해졌다
이렇게 이해에 더 역세여졌다

이 집에서 우리는
장군님 열어주신 하늘길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렸거니
지난날 울밑에 피어난 봉선화를 불들고
처량히도 눈물흘리던 조선

그 조선이 우주에 날아올라
당당한 위성보유국이 되어
온 세상을 굽어본 해였다
하늘에도 찬란한 백두광명성

땅우에도 빛발치는 백두광명성
온 세상이 조선을 우리러본 해였다

행복중의 행복이여라
영광중의 영광이여라
20 세기를 개척한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더 높이 모신 해

김일성헌법을 완성하신
장군님의 뜨거운 의리로 새겨
력사의 대경륜으로 빛나는 해
우리 장군님을 변함없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만세의 폭풍이
세계를 진감한 못잊을 해

우리 사회주의를 압살하러
선전포고를 한 제국주의
지구의 그 어디에 있던
일격에 쓸어버린 12월의 성명
그 분노의 퇴성으로 원썩들을 무릎꿇린
금성철벽의 내 나라

주체로 빛나고
붉은기로 역세인 이 땅이기에
세계의 벗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남녘의 한 고령의 기업가도
위인의 그 품이 그리워 찾아왔거니

아, 자랑하자
조선의 해
승리의 해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만방에 펼친 해
세상을 들었다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가득찬 해여
장엄한 력사의 새 장을 펼친 해여

1998 년 너는
사회주의 큰집을 지키시고 빛내여오신
최고사령관의 천신만고의 365 일!
강철의 보호자의 풍찬로숙의 365 일!
우리 어버이의 불면불휴의 365 일!

잘 가라, 못잊을 해여
우리는 너를
주체의 력사우에
가장 빛나게
가장 자랑스럽게
아로새겼노라

우리는 듣노라
네가 있어 희망의 새 언덕으로

더 힘차게 올라서는 내 조국의 숨결소리
평양과 이어지는
남포고속도로가 뻗어가는 소리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이 일어나는 소리

수령님을 높이 모신
김정일장군님의 나라
우리의 크나큰 집에
새해에도 만복이 깃들리
새해에도 행운이 찾아오리

해가 가니
해가 가서 더 간절해지고
새해가 오니
새해가 와서 더 간절해지는
우리의 마음
인민의 마음

이 그리움의 송년시는 끝났어도
끝나지 않은 현지도의 그 길
그 길에 오늘도

우리 장군님 계시오니

장군님이시여
아버이이시여
새해에는 따뜻한 가정의 아래목에서
온 한해 풀지 못했던
강행군의 신들메를 푸시고
부디 하루라도 편히 보내시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위하여
새해에도 우리가 또다시 승리하기 위하여
밝아오는 새 세기를
조선의 세기로 빛내이기 위하여
언제나 행복하시라
언제나 만수무강하시라
우리의 단 한분
아, 인민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근한분이시여!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체작
(주체 87. 12. 29)

막장길에 이어진 하늘길이여

리충평

나와 같은 로동자
그도 광부였구나
이 비행기표를 안고
막장에서 곧바로 하늘길에 올랐던
그날의 그 당대표는

사적관 진렬대
비행기표에 새겨진 그 이름
다시 보는 광부- 나의 눈길은
뜨거움에 젖는다

그가 조국에 안아올린
광석의 무게가 얼마이라만
당대회 그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언제나 깊은 막장에서 수고한다고
오더라도 이 땅을 굽어보며 오라고
하늘길을 열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날의 비행기 우렁찬 동음이
젊은 광부 내 가슴을 흔든다
하늘가에 퍼지던 하얀 비행운이
나의 눈앞에 어려온다

지심천길 깊은곳에서 일한다고
누구보다 가까이 안아주신 은혜론 그 사랑

추울세라 더울세라
좋은 집 좋은 옷 플라주시고
나라의 만아들로 내세워주신 아버지 그 은정

공훈광부로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기차로 한갓이면 가닿을 평양길도
하늘길로 열어주신 그 은빛나래우에
어찌 그 광부만이 떠실렸으랴

착암기를 넘겨주며 넘겨받으며
세월을 넘어 오늘에로 이어온
사랑의 그 길에 젊은 이몸도 함께 싣고
오늘도 해빛밝은 하늘을 날으거니

사적관 진렬대앞에 서있는 이 마음에
착암기가 우뢰친다
정알이 번개친다
쇠돌을 깨고 또 깨여 내 조국 받드는 길에
영원히 나라의 만아들로 살
마음 불탄다

아, 쇠돌의 무게보다 먼저
광부의 충효를 더 무겁게 없어야 할 그 길에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하늘길이
언제나 함께 열렸이어라

그리움이 서정속에 비낀 한해에 대한 감명깊은 시형상

신경애

새해를 맞은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들어섰다. 허나 송년의 밤에 올린 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가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자리잡고있는것은 그것이 제기하고 해명한 사상적 문제의 철학적심오성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이 시를 읊느라 면 지난해 대소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인민을 찾아 떠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진두에서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어린 모습, 수척해지신 모습이 눈앞에 안겨와 눈곱이 찌릿이 젖어든다.

시에는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소한추위를 무릅쓰고 이어가신 6천여리 자강도 현지도, 성강, 회천, 만포, 대흥단, 청진, 애국렬사릉 등이 나라 방방곡곡 중흥무진으로 끝없이 이어가신 수만리 현지지도의 로정이 력사적사실 그대로 펼쳐져있다.

시는 1998년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조국의 력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인 해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명을 혁명적수령관의 경지에도 이끌어가고있다.

우리는 아노라
강행군을 웃음으로 헤치고
어려움도 노래로 이기는
그 힘의 샘줄기를
심장의 더운 피로 새긴
그 참된 진리를

우리의 장군님도 인간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이시건만
자신의 집을 떠나시여
온 한해 인민의 어버이로
인민의 집에서 사신
우리 장군님!

이것은 송년시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사상적알

맹이이다.

시에 노래된바와 같이 우리 장군님도 인간이시고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이시다. 하거늘 우리

장군님이신들 어찌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지 않으셨으랴.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만이 아닌 온 나라 가정의 친어버이이시기에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누리셔야 할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마저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였다.

인민들이 잘 사는것을 보는 때가 제일로 기쁘다시며 인민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시려 새해 벽두부터 쉽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풍찬로숙하시며 인민의 어버이로 인민의 집에서 사신 한해!

이 얼마나 시적발견이 독특하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인가.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털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그이께서 온 한해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자욱마다에 온 뉘를 따라세우며 그이의 사상과 의지, 정서를 그대로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 작가들이 그이의 내면세계에 보다 더 접근하려는 창작적대담성과 비상한 탐구와 사색을 기울일 때만이 찾아질수 있는 사상적핵이다.

위인의 력사속에 시대의 명작을 낳을수 있는 종자도 있는것이다.

시의 종자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좌우명이 구현되어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민의 신임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은 없다고, 자신은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상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할것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것을 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웅근 한해동안 인민을 찾고찾으시여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숭고한 품모가 발견이 독특한 종자에 어려있다.

또한 이 시의 종자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즐기차게 전진시키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위업의 령도자가 인민적품모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력사의 진리가 형상속에 울려나오고있다.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 나가는 령도자의 품모에서 핵을 이룬다.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시여 인민의 집

에 계신 한해라는 신념의 토로, 여기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시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인민의 친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께서 강행군의 앞장에서시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나가시기에 우리의 앞길에는 행복과 영광만이 있고 내 조국은 더욱더 억세어지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가장 훌륭하고 빛나게 완성되리라는 혁명의 진리가 무게있는 형상으로 노래되고있다.

또한 시는 장군님은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혈연적뉴대를 형상적화쪽으로 펼쳐보임으로써 령도자와 인민은 한혈친, 한식솔이라는 사상을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적내용의 폭과 깊이에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적서주는 정서적감화력이 있는것이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애독되고있는것은 시가 제기하고 해명하려는 문제의 철학적깊이에서만이 아니라 그 해명을 위한 예술적형상의 전과정에서도 철학적깊이가 보장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종자의 선택으로부터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전과정에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자면 시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심도있고 특색있게 가꾸어져야 한다.

송년시는 그리 크지 않은 형식의 화폭에 우리 조국력사에서 잊을수 없는 지난 한해, 강행군의 한해를 담아 노래하고있다.

내 조국의 한해는 곧 장군님의 령도로 빛나는 승리의 한해이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해동안의 혁명활동중에서 인민위해 바치신 헌신적복무의 나날에 창조된 사랑의 력사를 집약화하여 심장의 노래를 터치는 웅심깊은 서정구조속에서 사상주제적과제를 독특하고 원만하게 해명하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이 시가 담고있는 한해의 세월은 길지 않으나 그 세월속에 비친 위인의 위대한 생활의 정서적내용은 참으로 숭고하고 인민적이다.

이 시에 흐르는 감정의 밑바탕에는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감정정서가 질게 깔려있다. 그것으로 하여 시는 철학적인 종자를 정서적으로 부각하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강행군의 한해를 더듬어 총화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은 한뼉으로만 흐른다.

한해도 다 가고
설날은 다가오는데
정초에 먼길 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지난 한해에 대한 추억으로 서두를 땀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을 안고 철학적문제의 예술적해명으로 열정을 더치고있다.

그리움의 붓을 든 시는 정초에 먼길 가시여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날마저도 돌아오시지 않는 인민의 아버지를 기다리고기다리며 한없는 그리움에 심장을 불태우며 젖어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실가
그 어느 복변마을의 동구밖
발이랑의 찬눈을 헤집고
파아란 밀보리를 보살피지 않는지
천리 먼 최전연초소
병사들의 온실을
돌아보고계시지나 않는지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풍찬로숙하신 우리 아버지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인민의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은 이 시의 앞부분에서부터 감정의 거세찬 폭발로 터져 하나의 즐기찬 대하를 이루면서 격정의 분출로 승화되고있다. 시에 맥맥히 흐르는 그리움의 정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한 세부적인 정서로 펼쳐져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추억의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혀주고있다.

이 땅의 모든것, 이해의 모든것이 그리도 소중하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에 언뜻 스치는 소형발전소와 텔레비존안테나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여보시며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도 펼쳐주시는것이다.

그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기에 온 한해 그이께서는 인민의 집에서 사시였으며 가시는곳마다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면서 그리도 허물없이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고 그들의 소박한 소원까지 헤아려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시는것이였다.

한가정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온 나라 가정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365일 험로에 계신 장군님에 대한 생각은 그리움의 정서를 타고 끝없이 흐르고있다.

이러한 체험된 감정의 축적을 타고나온 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정의 물결속에 잠기게 하며 지난 한해동안 장군님의 령도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고 12월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으로 원썩을 무릎꿇린 조선의 해, 승리의 해에 대한 추억속에 물젖게 한다.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은덕의 진가를

밝혀내면서 1998년은 그이께서 사회주의큰집을 지키시고 빛내여오신 최고사령관의 천신만고의 365일, 강철의 보호자의 풍찬로숙의 365일, 아버지의 불면불휴의 365일이라는 사상이 울려나오고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의 집에 계신 한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시형상으로 꽃피우고있다.

또한 시에 흐르는 그리움의 정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위해 이 세상 단 한분이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온 한해 풀지 못한 쌓이고쌓인 피로를 단 하루만이라도 푸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인민적정서의 흐름으로 결속을 주고있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는 그리움의 감정흐름을 타고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맞물려나감으로써 그리움의 정서우에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으며 형상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다.

쪽잠에 대한 생활세부는 우리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인상깊은 세부이다.

산은 첩첩
강은 굽이굽이
차길도 끝나고
거치른 돌밭길
거치른 강변길
정녕 우리 장군님
이런 길을 아니가시면 안되었던가

새차게 들춰대는 야전군용차
쌓이고쌓인 피로
아, 아버지장군님
우리 여직껏
쪽잠만은 달게 드시는줄 알았건만
이해는 이해는
그 쪽잠마저 드실수 없는 힘로에 계셨구나

그 쪽잠마저 못드시고
차창너머 비탈진 발이랑을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그이
-나는 인민들이 편할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소!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인민들이 보고싶으시여, 그 그리움이 간절하시여 꿈에도 인민들이 나타나다시며 인민을 찾아떠나신 그 길들에 얼마나 많은 험한 령길과 거치른 돌밭길, 거치른 강변길들이 놓여있었던가.

그 험한 령길로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길에 달게 드시던 쪽잠도 이루지 못하시고 토지정리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아버지장군님.

사람들은 지금껏 우리 장군님께서 쪽잠과 꿇기밥으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줄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진실하고 감명깊은 이 기름진 하나의 세부에 그렇게 달게 드시던 쪽잠마저 고스란히 인민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 로고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어 사람들은 뜨거운 격정에 눈시울 적시게 된다.

이 인상깊은 세부,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방불하게 그려낸 이 세부는 마치 작가들이 온 한해동안 장군님의 차를 타고다니면서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쓴것 같은 기름진 명화폭이다.

시는 또한 위인의 한해를 작품에 담으면서도 온 한해 풍찬로숙하신 인민의 친근한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감정, 의지와 정서가 시에 그대로 비끼도록 그리고 위대한 아버지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그리움의 세계가 진실하고 방불하게 안겨오도록 그에 어울리는 언어표현들을 품위있게 활용하고있다. 시의 언어표현은 소박하고 구수한 인민적인 언어, 시적정서와 세부형상력을 가진 언어, 정론적분석력이 강한 언어, 유순한 호흡들과 기백있고 발랄한 운율이 결합된 음악적인 시어로 특징적이다.

송년시에 흐르는 서정의 깊이는 세부형상과 시어구사와 함께 시의 감정호흡을 조절하는 운율을 통해서도 보장되고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강한 운율이 흐른다면 후반부에 와서는 그리움과 혁명적량만이 뒤섞인 음조를 탄 운율이 조성되고있다.

하여 시의 어느 문장, 어느 구절을 보아도 시의 사상감정이 부드럽고 유순한 운율을 타고 절절히 흐르기도 하고 장군님께서 해치시는 자욱자욱에서 밝아오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혁명적량만으로 약동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운율을 타고 힘있게 울려나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는 강행군시기에 우리 당의 시인들이 발휘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효심의 산아로서 우리 시대를 빛나게 장식한 또하나의 기념비적명작으로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인민의 집에 계실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그이께로 달리는 우리 인민의 그리움은 충효로 불타올라 해와 해를 이어 더더욱 뜨거워질것이다.

인민을 찾아 아버지장군님께서 가시는 수천수만리 그 길에 힘이 되고 노래가 되게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한 명작을 창작하는것, 여기에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의 작가로서의 시대적사명과 본분이 있다.

내 삶의 백두산

김은숙

내 마음의 고향집

내 마음이 없는 꽃송이처럼
송이송이 지붕우에 흰눈이 내리고
내 마음이 뿌리는 꽃보라처럼
정든 트랙에 은빛눈가루 날리는
백두밀영고향집

눈시울 젖어듭니다
벽에는 배낭 두개
한겹 구름노전우에는
정히 었은 군용모포 몇개...
허나
조국애의 열렬함이 가득 차넘치는 집이여

백두의 설한풍을 가리우기에는
너무도 얇은 저 모포
여기서
내 요람을 포근히 감싸주는
솜이불의 그 따스함이 마련된것 아닙니까

조국땅에 드리운 암흑을 밀어내며
밀림에 타오르던
벽에 걸린 등불
저기서
내 집에
이 나라 집집의 창가마다
웃음을 꽃피우는

행복의 불빛이 시작된것 아닙니까

바라볼수록 뜨거움에 목메입니다
지붕은 나지막해도
오늘의 천만가정 추녀를 이어주며
하늘가에 높이 들린 처마여서
피창은 작아도
천만가정의 미래를 열어준
그 사랑으로 밝고밝은 창가여서

이 집에 굽이치던 뜨거운 정이
가정마다 흘러흘러
사람들 가슴에 꽃을 피우고
이 집에 가득히 넘치던 애국의 뜻이
온 나라 트랙마다 굽이쳐
수천만 자식들을
백두의 아들딸로 키웠습니다

아, 세월이 흘러가도
백두밀영고향집 나는 잊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억만 재부와도 바꾸지 못할
그 위대한 사랑
그 높고높은 뜻으로
이 땅의 천만지붕을 이어주고이어주는
내 마음의 고향집
조선의 집이여

백두산의 마가목

부르는듯
이끄는듯
푸른 밀림 푸른 숲속에
유난히도 붉고붉은 마가목열매

멀리서 볼 때엔
세차게 타오르는 화불이더니
가까이 다가서니
점점이 땀힌 피방울인듯
안아보면
이 가슴에 불이 달릴듯

이 마음도 붉은 물이 들듯

말해다오 마가목아
그 어느 투사의 선혈이
아지마다 붉게붉게 땀혔느냐
못잊어
붉은 기폭에 생을 매듭한
그 넋을 못잊어
푸르른 이 세계에 붉게만 사는것이나
세월은 흘렸어도

혁명위해 바친 더운 피
 피끓는 청춘
 식지 않았다고 가지 않았다고
 붉은 빛으로 타고타는 나무야

자연속에 푸르려 열매익는

나무가 아니구나
 처절한 혁명의 역사를
 승리로 수놓아온
 그 값높은 삶으로
 이 심장 불붙여주는
 아, 백두의 피어린 넋이어!

뜨거운 소백수

소백수
 그 이름 조용히 불러보며
 정가로운 물
 두손 가득 담아드니
 아, 물위에 떠오르는 어머니님 모습

빨찌산시절
 어머니님 손에 언제 한번 마를새 없었던 소백수
 이 차디찬 물이
 어이하여 이 가슴에
 이리도 뜨겁게 굽이치는것인가

이른봄
 이 기슭에 버들개지 필 때면
 어머니님 맑은 물에 산나물 정히 씻으시며
 은은한 사향가속에
 수령님 모시고 갈
 아름다운 만경대 그려보시던 소백수

성에불린 사령부창가
 망울진 진달래에 부어주시려
 어머니님 이 물을 군용물통에 담으실 때
 회령의 고향에 곱게 필
 백살구꽃잎을 소중히 안아보시던
 그 애뜻한 정에
 너도 목메여 따뜻한 물안개 피어올렸던가

이 물위에

붉은 단풍잎 뜰 때면
 어머니님은
 개선가 올리시며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과 함께
 조국으로 진군할
 그날의 환희도 물결위에 실어보셨거니

이 가슴에 후더워라
 용용히 흐르는 소백수
 이 물가에서
 해방된 조선의 넓은 땅 다 밟아보시고
 사랑하는 조국의 사계절 다 안아보신
 어머니님의 열정의 애국심이
 오늘도 그대로 어려있어

어머니님 그 지성으로
 어머니님 그 념원으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소백수
 조국에 바친
 어머니님 마음의 물줄기여
 어머니님 사랑의 물줄기여

아아한 봉이마다 흰눈 소복이 쌓이고
 밀림의 바다위에 눈보라 울어도
 뜨거워라
 정녕 뜨거워
 소백수, 어머니의 소백수

내 마음에도 소나무 한그루

해빛 따스하고
 기름진 옥토에
 뿌리내릴곳도 많으련만
 어이하여 네 여기 솟았느냐
 백두송
 백두송아

장하구나
 사랑스럽구나
 바람도 세찬
 백두의 하늘가에
 청청한 잎을 펼치고
 백두의 부석위에 뿌리내린 너의 모습

땅도 백두의 땅이 좋아
하늘도 백두의 하늘이 좋아
백두의 공기를 마시며
백두의 해빛을 받으며
아아한 이 산정에 보금자리 정한 너

나는 아노라
너의 그 푸르름
사나운 폭풍을 잠재우는
그 억센 줄기, 그 억센 잎새만이
그렇듯 싱싱하게 간직할수 있음을

나는 아노라
밀림속에 너의 그 술향기
모진 눈비를 이기며 지냈기에

그렇듯 그윽히 풍길수 있음을

그래서 너는
락엽지는 가을에도
단풍을 모르더라
그래서 너는
장설이 쏟아지는 혹한에도
꺼일줄 모르더라

백두송
백두송
너를 보는 내 마음에도
어느새 백두송 한그루
아, 뿌리를 내린다

백두의 붉은 파도

푸름푸름하던 하늘가에
이글거리며 불쑥 솟는 불덩이
백두산에 아침해 솟으니
아득히 펼쳐진 밀림이
불바다로 파도친다

어디서 일어 어디로 파도쳐가는가
바라보는 이 가슴
세차게 뒤흔드는
백두밀림의 붉은 파도
천리수해의 붉은 파도

백두의 한기슭에서 솟구쳐올라
삼천리강산에 굽이치는 저 파도
백두산 김대장을 따라
해방성전에 펼쳐나섰던
그 붉은 대오의 기세찬 격랑인가

백두의 해돋이로 이어지고이어져
더 세차게 더 장엄하게
굽이치며 설레이는

혁명의 붉은 파도

저 붉은 파도우에
나의 조국이
붉은기뫼를 울리고
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백전백승의 한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이 아니냐

저 붉은 파도우에 운명을 맡긴 사람은
삶도 거창해지리
저 붉은 파도우에 물든 심장은
영원히 식지 않으리
저 붉은 파도속에 지닌 신념은
끝까지 변치 않으리

아, 태양의 빛발아래
더 붉게 격랑치라
더 거창하게 노도치라
이 땅에 승리의 노을만을 펼치는
조선의 붉은 파도여
백두산의 붉은 파도여!

세계속담

지혜는 속에 있고 지식은 겉에 있다.
믿음으로 말긴것은 믿음으로 보존하라.
심장에는 믿음이, 입술에는 진실이 스며있어야
한다.

말은 짧고 사랑은 길다.
단참외에도 쓴 꼭지가 있다.
밤이 어두울수록 낮은 더 밝다.
독을 파는자는 간판을 화려하게 만들어붙인다.

양춘을 불러

차승철

주체10(1921)년 늦은 가을, 안팎세월이 다난하여 흥흥한 소문과 번사가 끊길새 없던 이해 신유년도 거의다 간 11월의 어느날이었다.

조선 동서부를 련결하는 경원선의 종착지 원산역대합실에서 이제 도착할 서울발급행렬차를 기다리는 두 젊은 사나이가 있었다. 허여멀쭙한 얼굴에 값진 모직양복과 가을외투차림을 한 사람은 이 도시의 중심에서 최신희행상품판매를 전업하는 《양품상점》 주인 김석훈이었고 보풀이 인 폴덴양복을 입은 청년은 원산해운회사 노동자 조정수였다.

김석훈은 레년에 없던 흑한이 엄습해올것 같은 울동삼의 첫 추위에 벌써부터 질겁한 모양 온몸을 두툼하니 감싸고도 목을 외투깃속에 움츠리었으나 조정수는 철 지난 홀웃바람인데도 대합실에서려도는 랭기따위엔 끄떡없이 최근에 나온 신간잡지를 읽느라 여념이 없었다. 갸뿔한 얼굴이 껍칼칼해보이는 청년이었다. 두사람은 서로 말 한마디 없었다. 석훈은 협낭에서 회중시계를 자주 꺼내보았다. 차를 기다리기에 지친 초조한 기색이다. 그는 오늘낮에 상점매대를 통해 은밀하니 받은 편지구절을 되새기었다.

《…〈상업〉거래차로 11월 X일 저녁차편에 원산도착… 필요한 〈연회〉를 위해 급히 상론할것이 있으니 역에 나와주기 바람…》

김석훈은 낮에 일부인도 발신인도 찍히지 않은 그 편지를 받자 조용한 제방에 가지고가서 자자구구 뜯어가며 거듭 읽어보았다. 글줄속에서 《상업》, 《연회》라는 단어들 이 류달리 모를 세우고 눈에 크게 비쳐들었다.

4년전의 이른봄, 평양에서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 반일 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가 결성되었을 때 김석훈은 영광스럽게도 그 첫 회원중의 한 사람으로 되었었다. 잊을수 없는 그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신이나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조선국민회를 《상업》, 《실업》, 《농업》으로, 회원들의 회합은 《연회》라는 암호로 표시하며 회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가명으로 쓰는 철저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조직성원들의 활동에서 비밀을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김석훈은 주체 못할 격동으로 금시 밖으로 뛰어나올듯 뿔뿔한 심장을 한손으로 누르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돌이켜보면 김형직선생님의 휘하에서 애국의 녀를 키우며 독립성업에 물불을 모르고 동분서주하던 그때가 지금껏 살아온 생애에서 제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한데 전혀 뜻하지 않던 변고가 김석훈을 궁지높던 그 길에서 떼내여 살아 숨쉬면서도 죽은것 같고 눈을 뻗히 뜨고도 밝은 빛을 볼수 없는 불운의 막바지에 밀어던지었다. 아니 밀어던진게 아니라 백번 죽어도 씻을수 없는 제스스로의 죄악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해야 옳을것이다. 그러한 자기에게 조선국민회조직의 연락통신이 틀림없는 이 암호문이 어떤 출로와 경로를 걸쳐 날아들었으며 역에서 만나자는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연회》라는 낱말로 표현한 모임은 무엇을 목적하는 회합인지…

김석훈은 여직껏 자기를 휩싸고있던 짙은 암흑을 뚫고 비쳐드는 한줄기 희망의 빛발 같으면서도 가랑 못할 의혹과 지어 두려움까지 자아내는 편지의 매 구절을 맞창이 나도록 곱씹어읽었다.

그러다가 차시간이 가까와오자 혼신을 잡아당기는 강한 힘에 끌려 역으로 나갈 차비를 급급하니 서둘렀다.

그때 뜻밖에 조정수가 불쑥 나타났다. 함께 동무하여 손님마중을 나가려 왔다는것이였다. 석훈은 놀란 내색을 누르며 여태껏 굴려온 의혹을 풀어내려고 몇마디 물어보았다. 차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함께 나가려 왔다는 한마디 대답뿐이였다. 곁에 붙어서서 역으로 향하는 조정수의 얼굴을 보니 본래 성품대로 레질바르면서도 혹시 석훈이가 판곳으로 달아나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켜살피는것이 뻔했다. 그러고보면 익명의 편지를 보낸 조직에서는 석훈에게 서신이 제때에 담지 못하거나 통지를 받고도 응할수 없는 사유가 생기더라도 자기를 기어이 정거장으로 데려내오려 조정수를 불인것이라 직감되었었다.

시국의 흐름에 민감한 김석훈은 상점을 경영하면서도 근간에 와서 산업 및 항구도시로 더욱 번창하는 시내의 형세에 항시 깊은 주의를 돌리어왔다. 그러다나니 조정수가 요즈음 새로 발족한 부두노동자들의 조직인 원산노동회 회원이 되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조정수는 한때 김석훈이네와 깊은 인맥관계가 맺어졌던 청년이다. 그는 짧은 향학열을 안고 명사고등보통학교에서 고학을 할 때 원산루시고등녀학교에 다니는 석훈의 누이동생과 남다른 사이가 되어 석훈네 집을 제집 드나들듯했었다. 그러던것이 작년부터 석훈네 집 걸음을 끊어버리었

다.

먼 타관에 와석가지 절친하던 사람들에게서 파 돌림을 당한다는것은 슬픈 일이다.

원래 김석훈은 고향인 평안도 강동에서 살았었다. 맑고 푸른 대동강의 맥전나무를 동구앞에 낀 봉화리 내동마을이 태를 묻고 자라난 향촌이었다. 석훈은 짜지게 가난하던 농군인 부모를 일찍 여의다나니 슬하에 일점혈육이란 없는 백부의 손에서 자라났다. 백부이자 양아버지인 김웅진로인은 성미가 조용하면서도 남에게 축잡하지 않으려는 숭벽이 센 실농군이어서 밥술이나 넉넉히 먹을만한 땅마지기와 제법 덩실한 랑통짜리 돌기와 집을 갖추고 궁색치 않게 살았다. 그 덕에 석훈은 소학교를 수편하니 거쳐 평양숭실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재학당시 김형직선생님께서 직접 무으시고 지도하시는 비합법적반일학생조직인 독서회에서 독립달성의 뜻을 키웠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머리가 총명하고 조직에서 맡긴 일을 언제나 빈틈없이 해내는 김석훈을 조직성원이나 후배라기보다 친동생처럼 귀히 여기시었다. 그런 연고로 혁명활동무대를 강동에 옮기시였을 때 처음엔 석훈의 집인 김웅진로인네 사랑채에 거처를 정하고계시었다.

그무렵 조선국민회가 확대되고 그 영향아래 날을 따라 높아가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세에 질겁한 일제는 오래전부터 주목하며 감시해온 김형직선생님을 체포하였다. 김석훈과 여러명의 조직성원들도 함께 체포되어 평양감옥에 갇히었다. 한때 감금된지 며칠 되지 않아 김석훈은 《증거불충분》이라는 《해명》으로 풀려나왔다. 알고보니 백부가 경찰기관의 《유력자》에게 국돈을 찢어 먹이고 빼낸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과 동지들을 옥중에 남긴채 제 혼자 바깥세상구경을 하게 된 석훈은 생사운명을 같이해야 할 시련의 고비에서 홀로 리탈하여 나떨어졌다는 피로움으로 몸부림쳤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돌아왔다고 백부내외가 끼니마다 색다르게 차려주는 갖가지 기름진 별식도 등이 후더운 잠자리도 다 달갑지 않았다.

더구나 김석훈을 미칠 지경으로 만든것은 김형직선생님을 비롯한 동지들을 경찰에 밀고한자가 처남인 백용달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처음엔 곧이 듣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임을 알자 이발이 부서지게 갈며 이마를 땅바닥에 짓조았다. 안해의 손우 오래비이자 단 하나인 처남이었다.

백용달은 내동마을의 구장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석훈네 사랑채에 계실 때 곁에서 가까이 감돌며 각근스레 굴었었다. 수더분한 얼굴에 짓군하던, 선선한 웃음, 속이 깊고 궁양이 넓은듯한 상냥한 말씨, 아! 내 눈이 멀었지! 그놈이 누구도 모르는 흥심을 품고 노죽을 부리는 왜놈의 개라

는걸 어찌하여 미리 까밝히지 못했던가!

김형직선생님과 동지들이 체포되고 조직이 파괴된것은 코앞의 원쑤조차 가려보지 못하고 청명파니노릇을 한 자기 죄라고 가슴을 찔다.

강동땅은 말할것 없고 만경대, 평양을 위시한 국내외의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을 저주하며 선생님의 석방운동에 떨쳐나섰다. 선생님을 밀고한 주구배들을 처단하겠다고 국외에서 활동하던 동지들까지 달려나오고 평양, 강동 일대 인민들은 평양경찰서에 몰려가 선생님을 무죄석방하라는 진정서를 들이대었다.

김석훈은 내동부락 종교인들이 명산학교에 모여 선생님께서 무사하시기를 바라는 새벽기도를 드릴 때 으스스한 광속에서 칼을 썩썩 갈았다.

처남 백용달놈을 다른 사람 아닌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리자는것이였다. 그때 백부가 손을 잡아 멈춰세웠다.

《아서라, 그놈을 허투루 다쳤다가는 더 큰 후환을 살수 있다. 아직은 그냥 내버려두라는구나. 김형직선생님께서 면회를 가신 일가분들을 통해 일러보내신 말씀이다.》

로인은 그날밤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채이다가 이튿날 아침 여느때없이 진중한 낮빛으로 석훈을 앞에 불러앉히었다. 로인은 벽장안 장농밑바닥에 깊숙하니 묻어두었던 지전몽치를 꺼냈다. 여벌 낱알을 팔아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돈 2천원이였다.

《내 숨질 때 너한테 넘겨주자던건데 건사하거라. 지금 형편에선 네가 집에 그냥 놀러있다가는 편안치 못할것 같구나. 넉넉치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마음 내키는 교장으로 곧 떠나거라. 여기는 내 태물은곳이니 늙은 내 걱정일랑은 말아라. 다만 구만리같은 네 앞길이 더는 경난을 겪지 않고 편이기 바란다.》

석훈은 백부의 사려깊은 권고를 귀담아들었다. 그러느라니 김형직선생님께서 백용달이를 허투루 다치지 말라고 하신 일깨움이 령정한 리성으로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였다. 그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서 더는 어물거리지 말라. 암매한 너의 과실로 피해당한 조직이 또다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너갈데로 사라져버리라》는 엄한 신칙으로 마쳐들었다.

김석훈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얼핏 마주하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안해를 눈섭 한오리 까딱안하고 차던지고나서 누이동생 속회만을 앞세우고 여기 원산으로 왔다.

무역향이 확장되고 석유공장을 위시한 많은 공장들이 새로 들어왔는데다 교통이 편리하여 전국 각처에서 인종이 많이 모여든 원산에는 강동사람도 여럿 와있었다.

석훈은 먼저 이곳에 기둥뿌리를 박은 동향친구들의 도움으로 버섯만한 구멍가게를 장만하고 포

목상을 시작했다. 허나 일체의 식민지적 폭압과 약탈로 민족경제의 명맥이 끊어져 개인상공업이 무리로 파산몰락하는 때에 구멍가게 장사라고 잘릴리 없었다. 본전도 못찾고 몇번 나앉았었으나 한사코 살아 밝은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강심으로 솟구쳐 일어났다. 그러다가 팔자에 없던 횡재를 만났다 할지 별이가 좋은 장사꾼이 몇차례 잘트이며 갖가지 최신류행상품을 쌓아놓고 파는 《양품상점》을 차려놓는데까지 이르렀다. 원산일판의 《진노랭이》 동업자들마저 돈복을 타고났다고 부러워할만큼 리속있는 거래자도, 돈도 많이 끼어들었다.

허지만 석훈은 정작 바라던것 이상으로 재물이 불어나고 처지가 달라지자 자기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성스러운 길을 저버리었다는 죄의식과 자멸감이 더욱 가슴을 허비여 마음 밝은 날이 별로 없었다. 돈도 유족한 살림도 모두 귀찮고 깨름하였다.

그런 가위에 신문과 풍문들을 통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조선국민회산하 무장대가 압록강 북부국경지대로부터 창성, 벽동을 걸쳐 국내 깊이까지 들어와 일제 관청과 경찰기관들을 호되게 들이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다. 그럴 때마다 금시 독립연을 맞은듯 환희로 뒤설레이는 거리와 함께 몸이 통쾌하니 등 떠오르면서도 왜놈들을 죽쳐댄 그 불벼락이 초췌하니 전락된 제물골을 비웃으며 단죄하는것 같아 어깨가 처져내리곤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김석훈을 더욱 괴롭히는것은 가까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불미스러운 지난날을 알아 하나둘 낯을 돌리며 멀어져가는것이였다.

작년 가을의 어느날 한번에 사는 조경수의 아버지 태렬령감이 무명두루마기자락에 서리바람을 일쿠며 찾아왔다. 어제날 화약냄새와 피비린내에 절은 의병이였다는 령감은 석훈이가 조경수에게 선사한 최신류행훈추양복을 덩마짝처럼 내던지며 노 기등등하니 웅쳤다.

《내 아들 몸엔 이따위 치장거리 옷깃데기가 맞지 않소. 알고보니 당신은 나라를 찾겠다는 하늘같은 독립의사들을 왜놈의 턱앞에 물어메치는 반역짓을 했더구만. 천추에 씻지 못할 더러운 그때가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까지 옮겨 해서야 되겠소?! 내 아들을 더는 꺾으려들지 마오. 우리 애녀석도 그렇지, 다시 이 집에 걸음을 했다면 정경이를 꺾어놓고말테요!》

김석훈은 추상같은 로인의 규탄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싶었다. 오해하지 말라. 밀고자는 내가 아니라 처남이었던 백용달이다라고...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처남이든 누구든 원수를 가려보지 못한 죄를 범한 이상 원쑤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조경수뿐아닌 고향친구들과 절친하던 지기들도

속을 입박에 내비치지 않았어도 태렬령감과 다를바없는 증오와 경멸을 품고 돌아서버렸을것이다.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에 대한 원한이 재작년 3.1인민봉기때 겪은 피의 교훈으로 하여 구천에 뻗쳐오른것이 오늘의 민심이다. 그것이 세차게 마쳐들수록 2천만동포의 피타는 숙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독립성전의 험한 눈보라길을 앞장서 헤쳐나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것이였다. 동시에 평양감옥에 갇히던 날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가슴을 치군했다.

《...우리는 지금 엄혹한 시련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겨울의 첫어구에서 만난 한줄기의 작은 눈보라에 불과하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는 이제부터 맞닥들것이다. 닥쳐올 그 겨울을 이겨내자면 먼 앞날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독립의 새봄을 바라보며 굳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의미깊은 말씀속에 겨울, 나는 그 겨울을 이여내기는 고사하고 초겨울의 눈보라에 꺾이운 삭정이꼴이 되였다. 아! 이제라도 주저앉았던 이자리를 차고 일어나 선생님결에 달려갈수 있다면! 인생을 새로 시작할수 있다면...

으스스한 랭기가 서린 역구내에 메아리를 일으키며 거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뒤이어 《히까리》호 기관차가 끄는 길다란 급행열차가 땅을 쿵당쿵당 울리며 역홈에 들어섰다.

《젠상, 젠상, 고지라와 게이젠센노 슈자꾸에끼 젠상에끼데 고자이마스(원산, 원산, 여기는 경원선의 종착역 원산역입니다).》

코맹맹이 왜말로 늘어지게 불어대는 안내방송에 뒹긴 려객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였다.

크고작은 보통이를 든 한복차림의 남녀로소, 형형색색의 양복쟁이, 알락달락하니 오염스레 치장을 한 흥행악단의 녀배우들, 부피 큰 목관짐을 걸느즈간히 뻤 행상인, 먼 남도지방에서 《모집》되어 오는상심은 한때의 인부들...

방금까지 조용하던 홈은 사람들로 차넘치였다.

《히까리》기관차가 숨가빠 내뿜는 증기가 구름처럼 서린 높다란 건능다리에는 여태껏 어디에 박혀있다가 튀어나왔는지 《헌병》과 정복, 사복 경찰들이 모퉁이마다 뻗치고 서서 가시돌친 눈을 휘번득이였다.

김석훈은 조경수를 따라 개찰구로 나갔다. 석훈은 맞을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으나 조경수는 마중할 사람을 분명히 아는 모양 려객 한사람한사람을 눈밝혀 살피였다.

맞비비며 들볶던 려객들이 거의다 빠져나갔을 때에 건능다리의 계단을 내려오는 몇몇사람이 있었다. 1등차칸에서 내린 그들은 모두 차림새가 멀썃하고 여유작작하니 움직이였다. 그들속을 더듬던 조경수의 눈이 등불을 켜듯 번쩍 빛났다.

《오십니까! 저기에...》

김석훈은 조정수가 낮게 탄성을 지르며 가리키는 쪽에 눈길을 박았다. 하판이 넓은 투실투실한 철색얼굴에 몸매가 다부진 젊은 사나이가 눈에 안겨들었다. 김석훈은 그가 바로 조선국민회 회원 오동진임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다음순간 오동진의 곁에서 걸어오는 손님에게 눈이 확 끌려들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진회색중절모를 쓰고 검정두루마기를 단정하니 입은 준수한 자태, 오직 그 모습만이 시야에 짝 차며 그밖의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자하면서도 주위를 제압하는 광채가 뽀기는 눈빛, 곧장 앞으로 내닫는 탄력있는 걸음새, 눈에 익다기보다 항시 마음깊이 새겨 간직해온 김형직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이 험지까지 몸소 오시다니?! 조선국민회조직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짓고 물러나 망국의 세파험한 도시 한 구석에 묻혀있던 나에게 만나자고 한분이 바로 김형직선생님이시었던 말인가!

김석훈은 나는듯 한달음에 달려가 선생님께 안기고싶었다. 하나 일제군경과 밀정들이 독을 피우고 돌아치는 살벌한 정황에서 선생님의 안녕부터 지켜드려야 한다고 자기를 다잡았다. 김석훈은 개찰구를 벗어나 별다른 기미란 없는 천연스러운 걸음으로 선생님께 마주갔다.

선생님께서도 석훈을 곧 알아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었다. 석훈은 눈굽을 지지며 솟아오르는 눈물을 가까스로 가무리며 걱정으로 끓어오르는 마음과는 다른 《인사》를 건네었다.

《원로에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양품상점〉 주인 김석훈이올시다.》

선생님께서서는 《거래자의 대면인사》에 적당히 응수하시고나서 슬며시 손을 뻗쳐 석훈의 손목을 뜨겁게 잡아흔드시었다.

《보고싶었소. 석훈이!》

예나 다름없이 정답고 차분하신 음성이었다. 더는 들어볼길이 없으리라 자기를 타매할수록 더욱 그리워지던 정깊은 목소리가 석훈의 가슴을 쿵하니 울리었다. 목놓아울며 터치고픈 천백마디 회포가 고편쳐올랐으나 더이상 지체할 자리가 못되었다.

곁에 선 조정수도 항시 마음속에 우러러 그리던 선생님을 뜻밖에도 처음 뵈옵는 감격으로 이슬맺힌 눈을 습벅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는 조정수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었다.

김석훈은 선생님을 역사앞에 미리 갖추어놓았던 유계마차에 모시었다. 오동진과 조정수도 뒤따라 마차에 올랐다.

이윽고 살이 피둥피둥한 두필의 제주도종역마가 끄는 합승마차는 석양별이 아침노을처럼 퍼지는 거리에 짤랑종을 울리며 바람같이 달리었다.

×

김석훈의 《양품상점》은 본정거리 4정목에 자리잡고있었다. 역으로부터 《판다리》를 지나 송도원으로 곧추 뻗은 아스팔트길을 축으로 펼쳐진 변화가였다. 원래는 봉춘동이라 불리우는 풍치 좋고 안침진 거리이던곳에 왜놈들은 저들의 통치기관인 부청과 관공서들을 위시한 각종 실업체, 은행, 《미나까이》상점 등속을 비좁게 들여앉히고 거리 이름도 일본식으로 본정이라 달아놓았다. 도시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거리라는 뜻이다.

3.1인민봉기후 일제는 《문화통치》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관제개혁》, 《민의창달》, 《지방제도의 개선》 등을 요란스레 선포했지만 이전 무단통치의 본질을 조금도 변경함이 없이 오히려 더욱 교활하게 식민지적 략탈과 폭압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의 모든것을 기름짜듯 짭그리 빨아가다못해 나중에는 거리 이름까지 빼앗아냈다.

석훈네 상점은 건물장식이 사치한 2층짜리 일본료정들사이에 끼운 단층집이었으나 놀리워보이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양품상점》이라는 힘있는 초자체의 네글자가 금시 먹물을 찍어 쓴것처럼 생생한 간판으로부터 티 한점 없이 번쩍거리는 유리창과 진렬장들, 나프탈린과 향수내가 풍기는 매대들에 볼품있게 쟁겨놓은 철색옷감들과 류행복, 장화들이 눈부실만큼 화려하였다. 상점위권에 잇달린 살림채도 아담했다. 담쟁이풀이 엉킨 높다란 벽돌담장으로 둘러막힌 상점뒤뜰에 면한 별채였는데 방과 부엌간들은 이집 주부적인 숙희의 간진 손길이 닿아 알른알른하니 윤기가 돌았다.

이른아침,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바다쪽에서 부채살처럼 퍼져오른 붉은 노을을 받으시며 《양품상점》뒤뜨락을 거니시었다. 밤사이에 내린 하얀 서리가 깔린 뜨락에 자국을 찍으시며 청솔 우거진 장덕산너머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었다.

깊은 사색의 결절점을 이어가는 생각깊은 기색이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제저녁 기차에서 내려 여기에 오시자바람으로 이미전에 파견했던 조직성원들을 통해 시내의 실정을 료해하시었다.

특히 원산해운회사를 위시한 부두와 철도, 석유공장 노동자들의 최근동향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지금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중전의 골간적인 지위를 잃었을뿐 아니라 자체내부의 분화과정이 급속히 촉진되어 훨씬 약화되었으며 《문화통치》의 허울을 쓴 일제의 꾀발린 공세에 꺾이운자들은 《민족개량》을 고창하며 왜놈들의 품속에 기여들기까지 했다. 이들이 부르짖는 음향과 음색은 각각 달라도 본심야욕은 나라와 민족을 왜적에게 팔아넘기려는 매국배족

행위이다.

선생님께서서는 프락 한켠에 멈추어서시여 어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눈 원산로동회 회장과 조경수 그리고 몇몇 부두로동자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그려보시었다. 요즘 그들은 일본경영주들과 맞서 《민족적차별대우반대》, 《임금을 높이라》, 《허약자와 소년인부들을 보호하라》 등의 조건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맹렬하게 벌리었다.

목전의 현실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역량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 주되는 내용은 아직은 청소하지만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 투쟁무대에 등장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이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 민족해방운동의 기본력량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그와 함께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종교인, 중소상공업자 등 사회의 광범한 계층이 민족해방운동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반일투쟁에 나서고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 즉 앞으로 조선국민회화동의 중심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무산대중을 조직결속하여 민족해방운동을 무산혁명의 길로 전환시키는데 두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조직들을 확대강화해야 한 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었다.

고요한 아침대기를 깨치며 단조로운 나팔소리가 귀따갑게 뽀뽀거려었다. 멀리 않은 산턱에 들끓은 일본헌병대병영에서 울리는 신호나팔이였다.

선생님의 눈에 불꽃이 빙긋 튀기였다. 놈들을 당장 녹여낼듯 불줄기가 쏟아지는 눈길로 병영쪽을 쏘아보시었다.

요즘 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가 무장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지도하시는 한편 로동대중을 위시한 광범한 군중의 의식을 계발하여 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에 큰힘을 기울이고계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지난달에 몸소 작성하여 조선국민회조직 들에 보내신 10월서한의 구절들을 상기하시었다.

《...민중동원! 이는 우리의 자력으로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방략실현의 기본요구이다.

...전력을 다하여 민중결속과 반일의식계발에 총 매진하자!...》

이번에도 선생님께서서는 의주와 평양, 은률 일대 국내조직들의 대중결속사업을 지도하신데 이어 서울을 걸쳐 여기 원산에 오신것이다.

부엌에서 그릇소리를 달각거리며 아침동자를 하던 숙희가 선생님께 세수물을 떠올리었다. 까만치마저고리에 새하얀 행주치마를 두른 호릿한 자태가 순결하고 아릿다웠다.

선생님께서서는 깨끗한 타올수건을 받쳐들고 곁에 서있는 숙희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내동 마을 석훈네 집에 계실적만 해도 제비꼬리같은 머리태를 나풀대며 선생님 무릎에 감겨돌던 철부지가 어느새에 망울터친 백합꽃같은 싱싱한 처녀로 자라났다. 오래 떨어졌던 친아버지곁에 선듯 응석기가 어렸으면서도 백옥같이 희맑은 얼굴엔 어떤 애절한 수심이 비껴있어 더욱 아련해보이시었다.

걸음발도 타보지 못한 피덩이적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조카자식들에 대한 잔정이란 모르는 대범스러운 백부내외의 손에서 자란 숙희였다. 부모의 정에 주리며 늘 울적하던 숙희를 너무도 잘 아는 선생님이시기에 지금 그 얼굴에 진남모르는 수심의 그늘을 놓치지 않으시었다. 어제저녁 오빠인 석훈에게서 남다르던 조경수와와의 사이가 끊기었다는것을 아신타여서 더 측은해보이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다가 정지칸 건너 고방에서 부지런스레 움직이는 석훈이를 띄어보시었다. 난데없이 돛자리를 한창 엮는 참이였다. 팔소매없는 누비등거리를 걸치고 엮음틀에 다가붙어 손을 나비놀듯 재게 움직이는 모양이 촌마을의 토배기농군과 똑같았다.

석훈은 이쪽을 등지고 일에 정신을 팔다나니 선생님께서 곁에 가시는것도 미처 몰랐다.

선생님께서서는 고드레돌이 주련이 달린 엮음틀에 허리를 굽히시고 방금 곁은 매끈매끈한 자리날을 쓸어보시었다.

《허, 이거 희한한걸. 도시 한복판의 〈양품상점〉 주인이 돛자리를 엮는다는게 정말 뜻밖이요. 돛자리도 보통게 아니라 왕골로 짜는 침돛자리가 아니요.》

석훈은 지난밤을 꼬박 지새이신 선생님께 신새벽부터 부산피우는걸 보여드린게 죄송하여 뒤덜미를 매만지었다.

《아침저녁 심심풀이로 몇돌기씩 엮군하는게 버릇되어서... 선생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손을 놓고 일어서려는 석훈의 손목을 잡아 앉히시었다.

《나도 좀 곁여봅시다. 식전일을 한참 하고나면 머리가 맑아지며 밀진 잠도 벌충될게 아니겠소.》

선생님께서서는 석훈이와 가지런히 틀앞에 앉으시었다. 석훈이가 섬겨드리는 매출한 왕골로 한돌기 또 한돌기 엮어나가시는 손놀림이 퍼그나 능란하시었다.

아무데가나 일거리를 즐겨 잡으시는 선생님께서서는 그전 석훈네 집에 계실 때 응진로인이 챙겨놓은 돛자리틀에 가끔 마주앉아 자리를 엮군하시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때가 돌이켜지시었다.

《맥전나루근처의 강가에는 왕골과 쥐골, 골풀이 많았소. 석훈이 백부님은 그걸 베여다가 돛자리, 방석, 광주리를 많이 곁었지. 로인의 손은 보

배손이어서 그 손에서 나온 물건들은 강동뿐아닌 평양장에서도 인기가 대단했다니까. 석훈이도 백부 솜씨를 닮아 방석과 광주리를 땀시나게 결었었지. 숭실학교때 그걸 팔아 학비와 독서회자금을 보탬하던게 생각나지 않소?》

선생님의 말씀에는 흘러간 과거에 대한 회고만이 아닌 웅심깊은 추억이 스며있었다.

석훈이네 집에 나드는 못사람들은 초물제품이나 농토산물장사도 아닌 《양품상점》 주인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도시상인이 돛자리를 엮는다는것은 너무도 훈수에 맞지 않는다고 허파빈 웃음을 치군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돛자리를 엮는 석훈이를 보신것이 무등 기쁘시였다.

설익은 인간들은 제고향을 떠나 간혹 돈냥이나 앞세워 처지가 바뀌우면 어제까지 타던 발고랑생각은 고사하고 태문은 마을과 친지들의 이름마저 자못 잊어버린다 했다. 그러나 단란하게 흘러간 여러해의 풍운속에서도 제 본색을 잃지 않은 석훈의 면모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 숭실학교때의 착실한 독서회원이며 내동마을의 첫 조직성원인 김석훈을 다시 보는듯싶어 있는 정을 죄다 부어주고 싶으시였다.

느닷없이 평양감옥에 갇히었을 때의 일이 떠오르시였다.

석훈이가 선생님과 동지들을 밀고한 처남을 제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눈에 열이 나서 뛰어다니는것을 아셨을 때 무엇보다 석훈의 신변이 걱정되시였다.

석훈이가 백용달이를 요정내는 경우엔 다시 경찰에 체포될것이고 그 여파로 하여 밖에 있는조직이 더 큰 위험에 처할수 있다. 언제나 조직과 동지 한사람한사람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선생님께서는 석훈이가 백용달이를 서둘러 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르시였다.

감옥에서 나오이자 김응진로인에게서 석훈이가 원산으로 옮겨갔다는것을 아시였다. 백용달의 밀고를 제 집안의 찌지 못할 허물로 치며 수치와 통분으로 어깨를 처프린 로인의 모습이 김석훈의 정상으로 바뀌어보이시며 가슴이 아프시였다.

인간이 한생 살아가느라하면 고향을 떠나 타고장에 옮겨갈수도 있고 남몰한테서 칭찬뿐아닌 원망도 살수 있다. 그러나 석훈은 조직과 동지들을 저버린 배신자,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뜻중에서도 제일로 크고 성스러운 애국독립의 뜻을 등지고 물러난 락오자라는 허물을 쓰고 고향을 하직하였을것이다. 제 죄가 아니면서도 제 스스로의 량심과 죄책감에서 우리나라의 허물을 쓰고 피눈물 삼키며 정든 내동마을을 떠났을 석훈이기에 더욱 가슴 저리시였다. 하여 국내조직선을 통하여 김석훈의 그후 생활과 동향을 몇차례 알아보시였다. 예상하시였던대로 마음밝은 날이란 없이 우울하고 고독스레 지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견결한

반일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왜놈들을 한사코 미워하며 돈을 앞세운 동업자들보다 돈없는 동향 친구들을 몇갑절 더 중하게 치며 가까이한다는것이다. 3.1운동때에는 왜놈들의 총칼에 상한 사람들을 살려내려 부상자들이 입원한 《동산병원》과 《후생의원》에 많은 돈을 기부하였고 시국형편에 항상 눈길을 밝히며 시내의 여러 부문 노동자들과도 자주 접촉한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 조경수를 알게 되었고 경수와 숙희사이에 정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었는데 서리를 맞아 잦아들었다 한다. 그 서리가 어디서 끼여진것인지 마음이 쓰이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또 한돌기 엮은 자리날을 참나무 밑대로 꼼꼼하니 문대시고나서 석훈이쪽으로 돌아앉으시였다.

《거 어제저녁에 얘기를 채 듣지 못했는데 그 조경수와 숙희사이가 어떻게 되었다는거요? 좀 자세히 들어봅시다.》

김석훈은 무척 궁금하니 관심하시는 선생님께 가슴에 못박히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황토색 락엽이 흘날리는 장덕산기슭에 김석훈과 조경수가 마주 서있었다. 조경수의 아버지가 석훈이에게 뼈아픈 말을 던지고간 며칠후의 저녁이였다.

석훈은 여러날째 제 방에 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초들초들 시들어가는 숙희를 보다못해 조경수와 마주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기에 멀지 않은 산자드락의 유촉진곳에 데리고나온것이다.

김석훈은 숙희를 위해서 상대를 기본상하지 않게 설복시켜야 할 처지였으나 손우 사람이라는 체신을 흐트리지 않고 무겁게 말을 건넸다.

《서로간 에둘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세. 우리 숙희하군 정녕 그렇게 결별하고말겠다는건가?》

조경수는 발치의 어느 한 점에 눈길을 머문채 대답이 없었다. 거듭 불려서야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키던 불의 근육을 펴며 머리를 쳐들었다.

《저는 숙희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며 앞으로도 지워버릴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에는 제 힘으로써는 더이상 어쩔수 없고 피할수도 없는 불문룰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알만하네. 아버지가 반대한다는거겠지. 온전치 못하게 살아온 집 딸인데다 예수교학교까지 나온 처녀라구… 그래 완고하고 진부한 아버지의 호령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남의것도 아닌 제 사랑을 지키는데서 비겁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나?》

가늘게 좁혀진 조경수의 눈에는 늦가을 저녁의 랭기처럼 차거운 빛이 번뜩이였다.

《나를 욕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더는 나무라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젊었을적에 피를 흘리며 끝수에

새겨 지니신 뜻과 맹세는 그대로 나의것이기도 합니다.》

김석훈은 높지 않으면서도 칼날같은 조정수의 단언에 몇마디 대척한것 같았으나 뭐라 말했는지 아리송했다. 다만 더는 회복할길 없는 배척을 당했다는 패배감속에 조정수와 헤어졌다는것이 낯뜨겁게 기억될뿐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침통한 한숨속에 떠들떠들 뇌이는 석훈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시었다.

첫인상이 무척 칼칼하니 느껴지던 조정수가 눈가까이 보이시었다. 고학으로 고등보통학교를 나오자 힘든 고역에 부대끼면서라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을 튀우며 뼈대를 굳히겠다고 촌에 있는 집을 떠나 부두의 하역인부가 된 청년이다. 동맹파업때에는 노동자들을 추동하는 격문을 써서 돌리었고 노동회대표들을 따라 파업조건을 들이대는 담판장에도 뛰어들었다는 경수, 그러면서도 동료 노동자들속에서는 지내 어지고 인정이 물려서 제알의 밥도 겨우 찾아먹는다는 그에게 첫사랑을 잘라던지는 모진데가 있었던 말인가?

알고보니 숙희의 사랑에 《서리》를 끼얹은것은 조정수의 아버지였다.

선생님의 눈가에는 다심스러운 미소가 어리었다.

(조정수의 아버지 이름이 조태렬이라고 했지.)

오동진의 말을 통해 이미전부터 관심하시던 의병출신의 농민, 그 마을뿐만아닌 인근부락들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그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보실 예정이었다.

뚝자리를 한참동안 엮고나신 선생님께서서는 숙희가 정성스레 차린 아침식사를 석훈이와 겸상하여 달게 드시었다.

해가 퍼지면서 봄날같이 따스한 별이 방안 가득히 흘러들었다. 오동진이들을 신세벽에 파업을 주어 보내고보니 양지권 안방에는 선생님 혼자뿐이시었다. 담장너머 저쪽 네거리에서 자동차며 세바퀴오토바이의 경적소리가 이따금 들려올뿐 방안은 조용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새 하루가 시작되는 첫시간의 사색에 잠기시여 창가에 서계시었다. 어찌보면 포근한 안식이 깃든것 같기도 한 고요한 방안에 한가닥 노래소리가 가날쁘게 흘러들었다.

...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 했어도
맑은 하늘 영광이 어두운 그늘 헤치리

...

숙희가 자기 방에서 풍금을 타며 부르는 찬송가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끊길듯말듯 들려오는 처량한 선률에 귀를 기울이시었다. 그것이 찬송가라기보다

숙희의 애달픈 심뇌와 어떤 막연한 갈망으로 느껴지시며 뒤따라 조정수의 얼굴이 다시금 떠오르시었다.

김석훈이가 소리없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선생님께 모처럼 차례진 조용한 시간을 깨친 숙희를 나무라며 변명하듯 뇌이였다.

《일요일인 오늘 낮 예배시간에 교회찬양대가 부를 찬송가인가봅니다. 원래 반주를 하던 전도부인이 요즘 어디 가고 없어서 대신 풍금을 맡아 친다나요. 여기 원산에는 녀학교가 루시고등녀학교밖에 없어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넣었더니 값을 톡톡히 받아내자고 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부드러운 풍금소리와 화음을 이룬 숙희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무 학교에서건 공부를 시켰으니 됐소. 그리고 숙희를 교회에서 찾는다느건 좋은 일이요. 원산은 여느곳과 달리 기독교세력이 강한만큼 교인들속에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을 위해 믿어야 한다는 애국심을 심어주어야 하오. 숙희를 깨우쳐 주면 그 일을 잘해낼거요. 우선 예배당에 자주 나가도록 하오.》

선생님의 활달하신 말씀에 석훈은 숙희로 하여 저르기 무거웠던 마음이 헉거로와졌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데 오늘 하루만은 좀...》

김석훈은 선생님을 집에 모신 오늘을 두번다시 없을 천운의 기회로 여기며 그이께서 편히 쉬며 류하시도록 숙희와 함께 온 하루동안 정성을 다할 생각이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석훈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를 누이동생의 방으로 가버이 떠미시었다.

《교회에도 규률이 있소. 찬양대의 반주까지 맡은 숙희가 예배시간에 빠지면 되나. 어서 나가라고 하오.》

그러나 김석훈은 쉬이 움직이지 않고 머뭇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따스한 햇빛이 흘러넘치는 밖을 손짓하시며 쾌활하게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만. 방안에만 답답스레 앉았지 말구 우리 바깥바람을 쏘입세. 나와 함께 산보를 하자는거요.》

선생님께서서는 모자와 두루마기를 걸치시며 석훈이를 재촉하시었다.

×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안변벌 서북편가녁 의 야산말에 자리잡은 어느 한 동네에 들어서시었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이십리 상거한 감곡이라 부르는 마을이였다. 삼태기안치럼 오목한 남향받이 골안에 30호 남짓한 농가가 울망줄망 들어앉았는데 동네이름 그대로 집집의 프락과 마을 둘레에

는 가지가 실한 감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다.

마을앞에 무연하니 펼쳐진 30리 논벌너머로 푸른 바다가 초록빛 띠처럼 선명하니 안겨들었다.

김석훈은 선생님께서 바깥바람을 쏘이자고 하시기에 영문도 모른채 등 뜬 기분으로 따라나섰다가 의외로 조경수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맞닿게 되자 다리가 천근이나 무거워지며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하지만 되돌아설수는 없어 앞서가시는 선생님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선생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시는걸 어느새 피여본 조경수가 귀바퀴가 떨어져나가게 바람을 일쿠며 마주 달려왔다. 오늘아침 날 밝기전에 석훈네 집을 떠나온 오동진은 선생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대로 오늘은 꼭 조태렬령감을 찾아 만나시리라는걸 알고 조경수를 먼저 집에 내보낸것이였다.

경수에게서 장바 한기장쯤 떨어져 그의 아버지 조태렬령감이 달려왔다. 그는 힘껏 뛰느라 하는데도 다리보다 몸이 먼저 앞으로 쏠리어 등을 활등처럼 굽히고 팔을 휘저었다. 옆으로 퍼질사한 체구에 술많은 머리칼과 구레나룻은 아직 서리가 불리지 않아 선나라인데도 흰결찬 장년의 역센 기력이 풍기였다.령감이라기보다 장년이라면 장년이고 중늙은이라면 그렇게도 볼수 있는, 한마디로 나이를 쉽게 가늠 못할 모상이였다.

선생님앞에 이른 조태렬은 어퍼러질듯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고나서 선생님을 안내했다. 석훈에겐 등한하였다. 보고도 못본체하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시키신대로 요즘 노동자들이 흔히 입는 후령한 광목양복을 걸친 석훈을 채 알아보지 못했는지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조태렬네 집은 밋밋한 산언덕을 등진 동네 안쪽에 있었다. 여느 초가집들과 달리 삼겹질을 벗긴 겨릅대로 매춘히니 이영을 인 여섯칸짜리 농가였다. 집언저리의 골짜기로는 맑은 시내물이 뿜박질하며 급하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막아 차려놓은 물레방아간이 감나무 우거진 뒤틀너머로 바라보이였다.

점심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굴참나무껍질을 두툼하니 두른 굴뚝으로는 삼단같은 연기가 피여오르고 문이 활짝 열린 부엌에서는 뽕얀 김발과 함께 구수한 토장내와 양념냄새가 풍겨나왔다. 마당 한 옆을 스쳐흐르는 도랑가에는 방금 때려엮은듯한 돼지의 털가죽이며 소나무합지, 두툼한 칼도마들이 널려있었다.

조태렬은 선생님께서 프락에 들어서시자 이렇게 자기 집에 모시게 된것이 꿈만 같은듯 눈을 슴뻔이며 물먹은 소리를 했다.

《선생님께서 저의 집까지 험한 길을 몸소 이렇게 오실줄은!...》

선생님께서서는 세상 영광을 다 지닌듯한 환희로 목이 잠긴 조태렬의 꺼슬꺼슬한 손을 쓰다듬으시였다.

《길이 아무리 험한들 기필코 가야 할 걸음을 막아내겠습니까. 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평산의병대에서 피흘려 용전한 로형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작 찾아뵙고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조태렬은 씩씩한 기상과 친숙감이 안겨드는 말쑥에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윽고 그는 선생님을 집안에 모시려 서두를때에야 김석훈에게 낯을 돌리였다.

서로 어길수 없게 된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난 누군가 했쇠다. 이거 〈양품상점〉 주인니까지 우리 집에 이렇게...》

조태렬은 반기는지 싫어하는지 가량 못할 맥락 없는 청으로 웅얼거리였다. 선생님의 귀한 걸음에 난데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끼여들었는가고 따지는것 같기도 했다.

석훈에게는 분명 그렇게 보이며 아들에게 선사했던 양복을 내던지던 때의 조태렬을 다시 마주한것 같았다. 조경수도 아버지의 곱지 않은 눈총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바빠하는 눈치다.

선생님께서는 갑작스레 침중해지는 분위기를 느끼시고 김석훈의 등을 가볍게 쳐보이시였다.

《허 이거 진작 말했어야 하는건데... 이 김석훈군은 나와 오래동안 한지붕아래서 한가마밥을 먹는 친구입니다. 뜻을 같이하며 험한 초행길도 함께 걸었구요. 지난밤은 이 친구의 집에서 류했기에 로형도 허물하지 않으리라 믿고 길동무삼아 데리고 왔습니다.》

김석훈이로서는 분에 넘치는 소개였다.

조태렬은 곳곳하니 곤두섰던 장미가 숙어지며 눈매가 한결 온화해졌다. 그러면서도 의연 석훈이에 대해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듯 발고랑같은 이마살을 말끔하니 펴지 못했다.

마당너머 저쪽 물방아간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다.

선생님께서는 그쪽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선생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몇몇 동리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고장의 땅에 절은 토배기 농군들입지요. 낮때까지 방아간 손질을 하다가 점심들이나 함께 나누고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듣자구 저렇게 모여들 있습니다.》

조태렬은 정중하니 아뢰고나서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방아간구경부터 먼저 하시자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김석훈은 조태렬부자와 함께 선생님을 따라갔다.

방아간에서는 여라문명의 농민들이 끌구멍을 파고 망치질을 하며 푹짜거리고있었다. 감곡사람들뿐아니라 이웃동네에서도 모여든것 같았다.

그들은 여러해동안 물때가 끼고 고삭아서 문드러진 낡은 수채며 물받이살들을 뜯어내고 새것으

로 잡아대는 참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그들 한사람한사람과 다정스레 인사를 나누시었다. 그러시고는 방아를 찧으려 가져다놓은 벼 한줌을 집어드시고 터지게 잘 영근 노란 벼알들을 하나하나 세듯 여겨보시었다.

《벼알이 알찬걸 보니 물 논농사가 잘된가봅시다. 하긴 이 안번벌은 땅이 워낙 기름져서 예로부터 이 고장쌀은 약밥쌀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고장 땅 래력을 어떻게 그리...》

동네사람들이 감심하여 술렁이는 가운데 조태렬이 선생님앞에 나섰다.

《땅이 아무리 좋은들 뭘하겠습니까. 왜놈들이 기여들어 <토지조사> 요 <회사령> 이요 하며 돌아치더니 이 30리벌의 태반이 동척회사와 일본지주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통에 우리네가 얻어부치던 소작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소작료가 5할이상으로 쟁충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주들이 물어야 할 오만가지 세금까지 우리에게 들쳐워지다니니 만가을부터 손털고 나앉는 형편이올시다.》

선생님께서서는 빼앗기고 뜯기운 절통한 추수뒤 끝의 적막한 들판을 근엄한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일제의 강도적마수는 여기뿐아닌 온 조선땅을 휩쓸고있습니다. 놈들은 근간에 와서 우리 땅에서 매해 이백이십만석이상의 쌀을 약탈해가고있습니다. 쌀뿐아니라 콩은 우리 나라 총수확량의 절반을 굶어가는 판국입니다.》

선생님의 비분강개하신 말씀은 농민들과 더불어 석훈의 가슴도 왜놈들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게 하였다. 요즘 원산부두에서 맞다들군하는 가슴아픈 정경이 떠올랐다.

...부두의 화물장에 눈길이 모자라게 가려놓은 산더미같은 쌀난가리들, ...새되게 앵앵거리는 기중기들이 일장기 꽃힌 《무역선》에 겨끝내기로 물어올리는 쌀, 콩, 목화통구리들... 안팔려가겠다고 네죽을 뺀뺀 부림소들의 구슬픈 영각소리...

선생님의 말씀을 귀강구어 듣고난 조태렬은 피가 끓어오르는 갈린 청으로 부르짖었다.

《륙십할 왜놈들! 사지를 찢어몽개여도 씨원치 않을 저 원썩놈들을 어떻게...!》

그는 당장 무엇을 짓밟아몽개는것처럼 몸을 도사리며 움쉴됐다. 다리에 어찌나 힘을 주어 뺨디디는지 신총을 뚫고 벌겋게 나온 붉은 엄지발가락이 바르르 떨리었다.

이때 밖으로 나드는 지계문이 찌쿠둥 열리며 너더땃살 되었음직한 사내아이가 방아간에 짱충 뛰어들었다.

부엌부엌한 얼굴이 덜떡지게 생긴 아이는 이사람 저사람 더듬으며 두리번대다가 조태렬에게 쪼르르 달려와 가슴을 들이받으며 안기었다. 랑손

에는 제 조마구만끔씩한 송편개를 들었는데 귀인싱스레 오물거리는 입가생이에는 팔보송이물이 동전잎처럼 테를 둘렀다. 조태렬은 열적게 달아오른 얼굴을 선생님께 돌리었다.

《제 손주녀석입네다. 만이한테서 본 장손이라고 좀 위해주었더니 잠시도 안떨어지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태렬이 몹시 귀해하는 어린것의 머리를 쓰디듬어주시다가 살거죽이 벌겋게 부풀어오른 턱밑에 눈길이 미치시었다. 아이는 손에 든 떡을 먹느라 부지런히 입노릇을 하는데도 목에 넘기기 여간만 힘들어하지 않았다.

조태렬은 아이의 목을 자상스레 매만지고 쓸어보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었다.

《택거리를 앓습니다. 종다는 약은 이것저것 다 쓰느라 했는데두 약발이 통 먹어들지 않아 이 고생 아니외까.》

선생님께서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아이를 받아안으시었다. 두루마기도 벗으실 사이 없이 등재냄새가 알싸하니 풍기는 명석바닥에 앉으시며 곁에 아이를 눕히시었다. 품안에 늘 넣고다니시는 침통을 꺼내드신 선생님께서는 의아하여 어리둥절해진 조태렬에게 끓인 물과 깨끗한 솜을 가져오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김석훈을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아이의 팔다리를 단단히 붙들어요. 이전 내 동마을사람들을 치료할 때 내 시중을 곧잘 들지 않았소.》

선생님께서 손발과 목언저리의 여러곳에 침을 놓도록 아이는 발버둥 한번 치지 않고 조용하였다. 처음엔 침이 무서워 좀 킁킁대였으나 답답하던 목안이 시원해나는 모양 침대들을 뿔을 때엔 코를 다르릉거리며 잠이 들기까지 했다. 턱을 치받으며 부어올랐던 자리가 수들수들하니 찾아든 것이 보기에두 택거리가 싹 가시여진것 같다.

조태렬은 너무도 고맙고 신통스러워 눈에 물기가 그렇하니 고이였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선생님께서 우리 철부지의 궂은병에 몸소 침까지 놓아주시다니!》

감심한 동네사람들도 저마끔 한마디씩 했다.

《침으로는 못고친다는 택거리를 앓으신 자리에서 동침 몇대로 떼어버리다니... 정말 의술이 용하십니다.》

《그러니 저녀석은 제 할아버보다 귀인이신 선생님을 찾아 여기에 뛰어들었군요. 천치신명의 조화가 아니구야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아이를 한참동안 정심하여 치료하신 선생님의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이슬져있었다.

김석훈은 오래동안 헤여졌다가 만난 식솔들속에 계시는듯 다심한 자애가 넘쳐나는 선생님을 몸 가까이하고 앓았느라니 여직 어석버석하던 조태렬도 무간하게 느껴졌다. 그는 제가 지금 낫선 동네가 아닌 고향마을에 와있는듯한 푸근한 심경

에 휩싸여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사실 선생님은 의술을 전업하시는 의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문난 명의들보다 병치료에 능함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망국의 고통을 받는 동포들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시고 그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주시려는 숭고한 념원과 열정을 지니셨기때문이라.

그렇듯 고매하신 동포애가 어떤 의술에도 비길 수 없는 불사약이 되어 사람들에게 억센 생명력을 부어주시는게 아닌가!

선생님께서서는 고르로운 숨을 쉬며 단잠이 든 어린것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모두를 둘러보시었다.

《크나 적으나 우리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은 가난에 있습니다. 그 가난은 나라를 빼앗은 일제가 우리의 귀중한 재부를 모조리 강탈해간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제 땅도 복락도 있을수 없습니다. 하기에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 누구나가 잘사는 세상을 세워야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그와 결탁한 지주, 자본가, 친일주구배들의 매국배족행위 등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곁에 앉아있는 조태렬의 뭉툭한 무릎을 가버이 건드리시었다.

《자 이런 때 의병에서 일제군경을 쳐눕히던 얘기를 좀 하시지요. 그래 왜놈들과 이마를 맞대고 겨루어보니 어떻습니까?》

조태렬은 고개를 짓수긋한채 입을 쉬이 열지 못했다. 눈에 초롱같이 불을 켜달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방금전과 다른 함구무언이다.

김석훈은 이전에 조경수가 숙회와 함께 집에 자주 드나들 때 자기 아버지는 누구던 의병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성이 나서 손실을 저으며 돌아갔는다고 말하던게 생각났다.

선생님께서서는 남모르는 어떤 여한과 아직 죽지 않은 초지가 잊쉬여 꿈틀거리는듯 어깨가 오르내리도록 큰 숨을 쉬는 조태렬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씀하시었다.

《일제강점후 우리 인민의 반일의병운동은 이전에 비할바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벌여졌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토벌> 만행으로 많은 의병력량이 희생되었고 량반유생출신 의병장들은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투쟁을 포기하고 물러났지요. 이런 험악한 형세속에서도 농민출신의 의병장인 김정환, 채웅언들은 왜놈들을 맞받아 굴함없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격조높은 선생님의 말씀에 조태렬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첩첩하던 눈에 시퍼런 불꽃이 튀겨 오르며 철문처럼 닫혔던 입이 열리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마끔 내노라 위세를 뽐내던 의병대들까지도 물러나구 흩어져 달아

났지만 농군들로 무어진 우리 평산의병대만은 왜병놈들을 미친개 때려잡듯 쳐갈겼습니다.》

조태렬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김정환두령을 따라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본수비대, 헌병, 경찰관놈들을 삼대 배듯 쓸어눕혔소. 글쎄 재령의 장수산에서는 놈들을 얼마나 호되게 답새겼던지 왜놈들은 온 산판에 싹누렇게 나가 너부러진 수비대송장을 걷어가느라 여러날 진거름같은 땀을 뺐다니까요.》

격렬한 패재에 달떠오른 조태렬의 불깃한 얼굴에 감קות은 희열이 넘쳐났다.

《강한데 들어서야 저 쪽발이들을 어찌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비기겠습니까. 우리가 청암절벽이라면 저것들은 메흙으로 빚어세운 흙벽이라 할지... 하지만 놈들은 발톱까지 신식무장을 갖춘데다 먹이를 만난 이리떼처럼 씨다가가 어찌도 많던지 우리는 노상 한사람이 왜놈 열, 스무놈을 당해내야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싸움이 점점 어려워지자 배심들을 잃고 비척이기 시작하더군요. 거기에서 의병장을 뒤에서 혈뜯으며 서로 시기반목하는 패거리들이 나타났수다. 우리 의병장은 싸움에선 용맹하고 굳세었으나 사람들을 대하는데선 때로 의심이 지나치고 한번 크게 본 인간들에겐 섬찍할만치 뽕혹하였지요. 트집을 잡자면 흠이라 할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 해서 자기 두령을 혈뜯고 깎아내리는 판이니 집안풀이 어찌되었겠소. 안팎으로 힘겨운 싸움을 치르며 서흥땅 제비굴에 이르렀을 때엔 죽고 헤쳐져 달아나고하여 의병장밑에는 겨우 서른명밖에 안남았습니다. 글쎄 삼백명대소가 서른으로 줄었으니 그때의 형세란 참말...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놈들은 더욱 미친듯 덤벼들었지요. 우리 의병장은 포아리같이 둘러뵈 쥔의 겹겹한 포위환을 더는 뚫러낼수 없다고 단정하자 굴속에 건사했던 무기와 탄약을 몽땅 꺼내 고루 나누어주더군요. 그러고나서 나를 다로 불렀습니다. <태렬아, 너는 나이도 제일 젊고 날래니 어떻게 하던 여기를 빠져나가라. 아! 저 극악스러운 왜놈들을 쳐이기기엔 우리 힘이 너무도 모자라는구나. 하지만 마지막 한사람 남을 때까지 싸우려다. 눈물은 왜 흘리느냐. 울지 말고 머리를 쳐들고 떠나가거라. 오천년 력사국의 땅덩이가 있고 이천만동포가 살아있는한 하늘이 머지 않아 나라를 구할 독립대장을 꼭 보내줄거다. 너 하나라도 기어이 살아남아 독립을 맞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다 죽었다는걸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 우리 의병장은 내게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 길을 떠나갔쇠다. 그를 따라 철용이, 쇠득이, 덕세들도...!》

조태렬은 비분으로 오열을 터치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시꺼먼 구레나룻이 테를 두른 검붉은 불을 타고 사나이의 걸쭉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

리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의병들의 피에 잠긴 처절한 전장이 비껴드는듯 먼 산발쪽을 점도록 바라보시였다.

속연한 침묵끝에 선생님의 저력있는 음성이 청청하니 울리였다.

《우리 조국의 산야에는 어디를 가나 나라의 독립을 부르며 싸우다 쓰러진 동포들의 원혼이 스며있습니다. 김정환의병장이 숨지는 순간에 웨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선사람은 죽을지언정 일제의 노예로 되지 않을 것이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불굴의 애국정신입니다. 왜놈들을 질겁케 한 그들의 장렬한 최후가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태렬은 굵은 피줄이 불근불근 살아오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앓음새를 바로하였다.

《한데도 이 못난것은 그들의 피값을 받아낼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의병애기를 꺼내면 뜻을 못이루고 간 그들의 넋이 심심풀이 공담으로 희롱당하는것 같아 성을 똑같이 내면서도 왜놈들과 더이상 맞서싸울념을 못했지요. 원썬놈의 등에 대고 헛되이 샅대질이나 하는 꼴이었으니 어리석기란 참... 선생님이니 더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생떼같은 술한 목숨을 잃으며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도 내쫓지 못한 포악한 왜놈들을 이제 와서 무슨 힘으로 당해내랴 하고 주저앉아있었습니다. 독립을 이루기엔 우리 조선사람의 힘이 너무 모자란다고 말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태렬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나서 모두를 둘러보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조선독립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남의 손을 바랄게 아니라 오직 우리 민족 자력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의병운동이 희생을 많이 내고도 실패한것은 옳은 지도와 방략이 없는데다 특히는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 뿔뿔이 흩어져 싸웠기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조선사람만큼 강하고 슬기로운 민족은 없습니다. 그 힘을 하나로 뭉치면 두려울것이란 없습니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무기를 가진 일제를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히고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이 하나같이 각성 단합하여야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쪼렷쪼렷한 선생님의 음성은 김석훈의 흉벽을 뒤흔들듯 울리였다. 양양된 신심으로 피가 끓어오르며 얼마전 일본료정의 뒤고방에서 목격한 광경이 손에 잡힐듯 펼쳐졌다.

시내의 경관들중에서도 특별하니 교활하고 표독스러운것으로 하여 《야마네쵸》(야생고양이)라 불리우는 고등계형사놈은 압록강연안 국경지대의 어느 군경찰서장으로 《영전》되었는데 제 동료들과 송별주를 퍼마시며 자기는 그곳에 가면 조선

국민회 무장대의 총에 맞아 살아돌아오지 못할거라고 눈물을 꺾었다. 그러면서 국경경관들에게 《특별상금》외에 더 준다는 최고 이천원까지의 각종 수당금도 저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기 위한 미끼라고 비명을 질렀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멸적의 총성으로 일제군경과 관료배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감곡마을 물방아간에서 농부들과 무릎을 마주하고계신다는것이 신비한 전설처럼 느껴졌다.

선생님께서서는 잠시후 조직성원들과 그들이 조직에 받아들이자고 데려온 몇몇 농민들을 만나시였다. 그들과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의논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원산시안의 로동자들은 일본경영주들의 착취와 횡포에 맞서 동맹파업과 태업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여기 농민들도 동척관료배들과 일본의 대지주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 로동자들의 반일기세에 호응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조경수의 의향을 물으시는듯 그에게 낯을 돌리시였다. 조경수는 초점이 바른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우러었다.

《우리 로동회에서는 이미전에 온 오동진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몇개의 농촌들에서 소작권박탈금지, 소작료의 3할제 실시, 일본인 이민과 감독제도 철폐 등 요구조건들을 동척회사측에 들이대는 쟁의를 벌리도록 협력했습니다.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구 농민들의 투쟁기세도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거요!》

선생님께서서는 조경수의 어깨를 다독이시고는 활달하게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한낱 농민들의 생존권을 찾기 위한것만이 아닌 반일운동이고 조국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면 농민들모두가 뜻과 힘을 합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감곡마을을 중심으로 몇개의 부락을 망라하는 농민들의 조직인 계를 무었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기대와 믿음이 어린 눈길로 조직성원들과 농민들 한사람한사람을 더듬어보시였다. 그 눈길이 어찌나 친숙하고 확신에 넘쳤던지 더는 긴 말을 안하셨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같이 불러일으키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창문걸으로 가시여 서컨으로 바라보이는 굴곡이 심한 산봉우리를 가리키시였다.

《두루 알아보니 저 대적봉에는 임진왜란때 북쪽으로 쓸어들던 왜적선봉부대를 멸살시킨 산성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산성의 동쪽문이 이 마을 가까이에 있다니 이곳에 조직되는 계를 〈동문계〉라고 부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셔서 조직성원들속에 앉아

있던 조태렬은 만세라도 부를듯 웃음을 솟구며 어깨를 쭉 폈다.

《〈동문제〉라 이름부터가 기세차고 뜻이 깊습시다. 왜놈들의 덜미를 당장 짓잡아누르는것 같습시다.》

조직성원들과 농민들모두도 격동된 흥분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선생님께서서는 그들을 미덥게 둘러보시다가 방금 잠이 깨어 머루알같은 눈을 톡톡툭툭 굴리는 조태렬의 손자를 들어안으시였다.

《네가 깨어났구나.》

선생님께서서는 어린것의 턱과 목을 다시 매만져 보시고나서 정색해지시였다.

《애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것처럼 우리 백의동포 모두가 압제의 악몽을 박차고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우리 대에 못하면 이 아이들의 대에 가서라도 기어나 나라를 찾아가야할것다는 원대한 뜻을 지니고 굴함없이 싸워나아가야 합니다.》

조태렬은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 놓칠세라 귀를 강구고있다가 손자아이를 조용히 넘겨안았다.

그는 무슨 생각이 든듯 손자를 안은채 집쪽으로 바람을 일쿠며 내려갔다. 잠시후 셋하얀 무명보자기를 씌운 큼직한 광주리를 안고 올라왔다.

그는 선생님앞에 광주리를 조심히 내려놓고 보자기를 벗기였다. 광주리에는 어른주먹만큼 굵직한 굵직한 감이 가득 담겨있었다. 일매지게 새빨강고 망글망글하니 흥시가 된 사곡감이였다.

조태렬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올리였다.

《오는 동지달 초여드레날이 제가 우리 의병장과 마지막으로 헤어진날입니다. 그날을 김정환의 병장과 철용이, 덕세들의 제사날로 정했습지요. 그래서 해마다그날이 오면 막물에 탄 잘 익은 감알들을 알알이 골라 제상에 올려놓고 그들의 명복을 빌곤하였습니다. 술부대인 우리 의병장은 여느 과일은 시큼텁텁하다고 입에 대지 않으면서도 감만은 여간 좋아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다음번 제사날엔 명복을 비는데 그치지 않고 그네들이 못이루고 간 독립소원을 성취할 길이 환히 열렸다고 소리높이 알려주렵니다. 의병장뿐아닌 온 세상에 대고 우리 〈동문제〉가 태어난것을 자랑하며 힘을 내자는 뜻에서 이 감을 선생님과 함께 모두가 나누어 들자는겁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감광주리에 성급하니 허리를 굽히는 조태렬을 제지하시였다.

《가만, 그 생각은 좋은것이냐 제상은 어디까지나 제상인데 거기에 쓸 감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때에 쓸것은 따로 전사해놓은게 있습니다.》

모두 광주리곁에 모여들었다. 광주리보다 선생님께서 담을 치고 둘러앉았다 해야 할것이다.

조태렬은 그들과 동떨어져있는 석훈의 손을 잡

아끌었다.

《아니 이거 판세상 나그네처럼 왜 이려고계시오. 어서 가까이 오시우다.》

선생님께서도 곁으로 오라고 다정한 눈짓으로 부르시였다.

김석훈은 선생님곁으로 가기 앞서 모여앉은 사람들 눈여겨보았다.

우리러 뵈을수록 위대한 인간의 품모가 력력히 감수되는 선생님을 한가운데 모신 이 사람들모두가 잠간사이에 급속하니 성장한 거인들처럼 크게 비껴들었다.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은 이제서야 망국의 멍에를 벗어던질 참된 삶의 길을 찾았다는 의지로 환히 빛났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이 마을의 방아간에서처럼 동포민중의 반일의식을 계발하여 묶어세우시려 험한 령과 깊은 골짜기를 수없이 넘나드시고 심산속의 외딴 귀틀집도 찾으시며 수천리 생눈길을 헤치시였으리라. 하여 선생님께서 다녀가신곳마다에서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로운 투쟁의 불씨가 심어지고 《지원》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함께 싸워나갈 동지들의 대오가 불이났을것이다.

불현듯 선생님께서 평양감옥에 갇히시였던 때가 가슴쓰린 자책과 함께 다시금 돌이켜졌다.

여기에 오신 길지 않은 시간에 마을농민들을 이렇듯 드높은 신심으로 불러일으키신 선생님께서 그때 령어의 몸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한해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랴! 선생님께서 온 민족의 비분속에 한해동안 수난을 겪으신데는 이 김석훈의 죄가 크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전이나 다름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아! 한번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며 열화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숭고한 손길! 그 손길아래 지금 감곡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활개를 치며 투쟁의 창공에 높이 날아오를것 같다. 벽찬 그 기개에 비할 때 이 물레방아간이 너무도 좁고 초라해 보였다.

다음순간 김석훈은 지난날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선생님의 위업을 성심껏 받들며 촌분의 도움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김석훈은 자기 의사를 어떻게 비칠것인가 하고 잠시동안 말을 고르고나서 누구에게라없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엔 이 방아간 하나만으로는 마을의 버를 다 쪼기 바쁠것 같구만요. 그러니 정미소를 하나 새로 차려놓는게 어떨가요?》

돌연스러운 제의에 놀란 모두의 시선이 석훈에게 쏠리였다.

조태렬은 석훈의 마음속을 아직 다 몰랐으나 누구보다 귀가 솔깃해하였다.

《그렇으면야 오죽이나 좋겠나요. 이 물레방아는 이제 낡을대로 낡아와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

는데다 이웃동네에서까지 여기에 매달리다니 한번씩 얻어쓰기 쉽지 않지요. 한데 돈이 어디 있어서 정미소를…»

《그건 녀름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힘자라는것 돕겠습니다. 기왕 마음먹고 시작한바엔 제분기까지 놓아 두루 쓸모있게 차려놓자는겁니다.》

씨원씨원한 석훈의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동해 나면서도 그 실속을 반신반의하는 기색들이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석훈의 심중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정미소를?! 그거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소.》

힘을 얻은 석훈은 조태렬들에게 그루를 박아 말했다.

《정미소에 쓸 기계들은 제가 속한 시일안에 어김없이 장만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그 기계들을 가져다가 설치하는것만 맡으십시오.》

조태렬은 석훈을 덩석 안아올릴듯 바투 다가섰다.

《이렇게 고마울데라우야. 기계만 있다면사 무슨 수로던 쓰지야 못하겠나요… 한데 정작그것을 제대로 앓히자면 기술자가 있어야겠는데…»

선생님께서는 적으기 걱정스러워하는 조태렬에게 경수를 가리키시었다.

《그거야 아들에게 맡기면 될게 아닙니까. 로동자들의 방조를 받도록 말입니다. 어쩔소, 경수 생각은?》

조경수는 활기있게 응해나섰다.

《우리 로동회원들속에는 기계에 능한 숙련공이 많습니다. 기계조립이건 수리건 막히는게 없습니다. 그 손을 빌리면 정미기를 어렵지 않게 놓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경수의 말을 긍정하시고나서 손을 들어 방아간 아래쪽을 가리키시었다.

《아까 여기로 오면서 보니 도랑 건너 언덕 밑에 쓰지 않는 목정밭이 있더군요. 거기가 정미소자리로는 제격일것 같습니다. 정미소만 차려놓으면 이 마을뿐아니라 이웃동네들에서도 리용할테니 그 곳을 거점으로 〈동문제〉가 활발하니 움직일 수 있 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모임도 가지고 런락장소로도 쓰고… 한편 시내의 로동자조직과 런계를 짓기도 유리할것입니다. 기계 수리나 점검을 해준다면 로동자들이 정미소에 등탈없이 나들 수 있으니말입니다. 수시로 로동계급과 런계를 가지며 그곳 조 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양품상점〉 주인이 아주 크고 중요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석훈의 어깨에 한손을 얹으며 조태렬을 쳐다보시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가? 길동무하여 함께 오길 잘하지 않았는가요?》

《더 이룰데 있습니다. 어린하실라구요. 한데 그 런것도 모르구 여직…»

조태렬은 미간의 주름살을 말끔히 펴며 순후해진 낯을 먼구스레 붉혔었다.

《저 실은 우리 경수와 저 상점집사이엔 남다른 연고가 있었습지요. 그러던걸 이 애비라는게 진속도 딱히 모르면서 미웁스럽게도 서리찬…»

선생님께서는 남들앞에서 더이상 터놓기 거북스러울 태렬의 다음 말을 가벼이 밀막으시었다.

《그만하십시오. 나라 잃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니 억울한 오해와 마음고생을 겪을수도 있는거지요. 그럴수록 뜻을 바로 지니고 제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투철한 뜻을 지니지 못한 거기에 변절과 좌절, 웅졸한 오해와 반목도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김석훈군을 투쟁의 먼길을 함께 갈 동지로 알고 손잡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선생님의 뜨거운 당부는 석훈의 가슴에 걱정의 파도를 몰아왔다. 견잡을수 없이 솟구치는 눈물로 뿌옇해진 망막에는 감동에 젖어 자기를 미덥게 바라보는 조태렬의 얼굴이 비쳐들었다.

조태렬은 저대로의 감흥에 휩싸여 곁에 묵묵히 서있는 아들에게 은근한 청으로 말했다.

《거 상점집체네이들이 뭐라 했더라… 음… 다음번 집에 올적엔 그 애를 꼭 데리고 오너라. 보고싶어 그런다.》

조경수는 대답대신 김석훈에게 사회의 눈길을 보냈다.

선생님께서는 조경수에게 아버지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여주시었다.

콩당거리는 잦은 발자국소리에 이어 조태렬의 손자가 깡충깡충 깨금질을 하며 뛰어들었다.

《점심 잡수시래요, 빨리이.》

어린것은 포랑포랑한 청으로 재잘거리고나서 제 할아버지를 할끔 쳐다보고는 선생님께 활짝 안겨들었다.

《아니 저런너석 보았나!》

조태렬은 손자의 엉뚱스러운 재롱이 무척도 대견한 모양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께 다가섰다.

《우리 집 구경도 하실겸 어서 내려가십시다.》

김석훈과 다른 사람들도 조태렬이 이끄는대로 방아간을 나섰다.

쾌청한 늦가을 날씨였다. 구름한점 없이 파아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이 모두가 걸어가는 언덕길에 금빛해살을 뿌리었다.

×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김석훈과 나란히 송도원백사장을 거니시었다. 여름 한철에는 피서지이며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송도원이었으나 더운 때가 지난 늦가을이어서 한적하다 할만큼 조용하였다.

시금쩍쩍한 해감내를 풍기는 검푸른 물결이 첩첩하니 밀려와 모래불을 활으며 철썩일뿐이었다. 요즘 어느때없이 기승스레 불어친 새바람으로 평평하게 고루어진 백사장에는 선생님과 석훈의 발자국이 평행선을 이루며 가지런히 찍혀있다.

선생님께서 어제 오후, 감곡리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김석훈네집에서 회합을 여시었다. 모임에는 이 지구에 파견되어있는 조선국민회 조직성원들과 이 일대의 로동조합, 로동회, 소작인동맹, 농민협회 책임자들 그리고 각계층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회합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선진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국민회 원산지부가 무어지고 지부책임자로 김석훈이 임명되었다. 뒤이어 선생님께서는 조직의 확대와 후대교육, 무기구입과 혁명운동자금 마련 등 투쟁방향을 제시하시고 광범한 군중을 반일운동정신으로 교양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여기에 오신 3일동안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망한 시간을 보내신 선생님께서는 오늘저녁 원산을 떠나시기 앞서 석훈이와 함께 바다가산책을 나오신것이다.

김석훈은 목직하고 보폭이 큰 선생님의 걸음에 부지런히 보조를 맞추며 목이 탁 트인 쾌활한 어조로 말씀올리었다.

《감곡리에서 약속한 정미소기계들은 오늘 오전까지 다 마련해놓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수고했겠소. 돈이 적지 않게 들었을텐데.》

《뜻이 동하여 나선 일인데 돈이 대수겠습니까. 정미기와 제분기들을 여러대 더 주문하렵니다. 감곡뿐아닌 다른 마을들에도 정미소를 몇개 더 차려놓을 생각입니다. 농촌지역에 조직을 확대하는데도 유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무기구입과 혁명운동자금에 보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턱과 불편에 근육이 불근불근 살아오른 석훈의 생기어린 얼굴을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새로 무어진 지부조직을 책임졌으니 어깨가 무거울거요.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물론 우리에게 돈도 힘도 지식도 다 필요하오. 허나 거듭 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민중을 한사람이라도 더 전취하여 조직에 결속시키는거요. 믿음을 주고 신심을 주며 뜻을 합친 동지들이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철통같은 성세를 이루어야 돈

도 힘도 지식도 그대로 총검이 되어 일체의 숨통을 찢어놓힐수 있소.》

시내 정거장쪽에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김석훈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어가실 먼길을 더듬어보았다. 만경대와 평양, 강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압록강 국경지대에서 남해기슭에 이르는 전국의 방방곡곡과 국경너머 간도땅으로부터 먼 상해까지의 광활한 지역에 이르는 혁명로정에 이어 선생님께서 계속 이룩해나가실 독립위업의 역사적 사변들이 거창한 화폭으로 련상되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여유있는 밝은 표정으로 바다를 둘러보시었다. 현현한 미소를 띄운 눈길은 수평선위에 점점하니 떠있는 돛배들에 머무신것 같기도 하고 명사십리의 흰 모래불과 그 언저리의 크고 작은 섬들을 부감하시는데도 했다. 광활한 조국의 바다를 한가슴에 안고 애무하시는듯한 다심스러운 위풍으로 하여, 굶니는 파도며 바다바람도 유정스러웠다. 아스라하니 먼 원경으로 펼쳐진 금야반도와 압록단도 손을 뻗치면 닿을것 같은 지척으로 보인다.

가까운 어디에서 젊은 남녀이 청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때를 같이하여 해묵은 로송과 해당화 나무가 뻑뻑한 숲속에서 숙희와 조경수가 튀어나왔다. 모래불에 발목을 잠그며 춤추듯 달려오는 숙희의 손에서 기폭처럼 너풀거리는 팔죽색 목도리가 김석훈의 눈을 끌어당기었다. 모직털실이 안개발처럼 보르르하니 살아오른 보기에다 포근한 새 고급목도리였다.

《바다바람이 찬데 두르십시오.》

숙희는 선생님의 어깨에 목도리를 걸쳐드리며 응석스레 생글거리었다. 사실은 목도리도 목도리려니와 보다는 선생님을 따라 바다가를 거닐고 싶어 달려나온 그들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명절처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숙희와 경수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석훈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렇게들 차려입으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남선녀같소. 이 송도원과 바다가 온통 환해지는구만.》

이렇게없는 즐거움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 모두의 눈길은 해살같은 미소를 지으신 선생님의 시선이 닿은 하늘가에 쏠리었다. 바로 거기에 들쭉날쭉하니 뻗어간 기세찬 산줄기는 겨울을 지난 새봄의 신록으로 단장한듯 푸르게 빛났다. 그와 함께 하늘도 바다도 지상의 모든것도 만물이 소생하는 양춘을 맞은듯 밝고 따사롭게 느껴지는 행복하고 가슴벅찬 시각이었다.

봉화산의 나팔소리

최영선

력사는 잊을수 없고 지울수도 없다. 위인들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이다.

춘삼월, 이해의 3월도 변함없이 찾아와 산과들에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니 마음은 못견디게 봉화산으로, 못잊을 력사의 고장으로 달려간다.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속에 봉화산이 우뚝 솟아 자리잡은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류량한 나팔소리가 때없이 가슴을 흔들며 생각을 불러주게 된것은 과연 어느때부터였던가.

지금도 눈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나팔소리, 사연많은 나팔소리...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조선독립의 원대한 뜻을 펼쳐가시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명신학교에서 혁명활동을 벌려가시던 그때 봉화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새날을 맞았다. 세기적인 질곡에 잠겨있던 조선이, 악독한 일제의 발굽에 짓밟혀 몸부림치던 이 땅이 나팔소리와 더불어 조국해방의 새날을 향하여 달려갔다.

세월이 흘러 강산은 변했어도 그날의 나팔소리를 잊지 못해 우리 이렇듯 생각에 잠기는것은 바로 이때문이 아니겠는가.

봉화산의 나팔소리에 마음을 엮고보니 불현듯 병사시절에 새겨진 한토막의 추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골짜기에 젓빛안개가 자욱히 내려앉은 이른새벽, 기상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갓 입대한 우리 토래의 신입병사들은 덮고자던 모포를 아쉽게 밀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군했다. 그때 중대장은 사관장을 만나 아침일과를 긴장하게 할데 대해 강조하고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였다. 사관장도 매우 만족해하는 기색이였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긴장한 훈련을 진행하던 우리 중대가 멈춰선곳은 야간행군로정의 중간지점인 어린 시절 담임선생이 늘 말해주곤하던 봉화산중턱이었던것이다.

새벽안개를 휘감은 봉화산은 고요했다. 어디선가 나무잎 떨어지는 소리조차 가려들을듯싶던 그 고요속에서 우리 중대장은 조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아침마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곤 하였소. 이 아침운동터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미래의 투사로 키우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셨던것이요...》

그날새벽 우리는 중대장의 그 말을 들으며 력

사의 갈피에 아로새겨진 불멸할 이야기를 더듬어 보았다. 학생들을 데리고 봉화산에 오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발에 줄줄이 서있는 수수대를 바라보시면서 나라를 되찾고야말리라는 절절한 심정을 담아 하신 말씀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선에 군대가 저렇게 있다면 왜놈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을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한다.》

봉화산마루에서 그러보신 김형직선생님의 그념원, 《지원》의 숭고한 뜻은 마침내 이 땅우에서 현실로 꽃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조국땅에는 룡성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진것이다. 선렬들이 이 땅, 이 하늘아래 이룩해놓은 귀중한 전취물을 총대로 보위해갈 불타는 일념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군령도를 받들고 일당백의 전사로 한생을 빛내이리라.

하기에 그날 우리는 새벽안개 흐르는 봉화산마루에서 마음다졌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던 봉화산의 아침을 잊지 말자, 언제 어디서나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되새겨보며 조국 위한 길에서 성돌이 되자!...

부언하건대 그때부터 우리는 아침마다 기상나팔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격침처럼 뒹겨 일어나 군 하였다. 그리고는 훈련장에서 땀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군복이 강물에 행구어낸듯싶게 젖어들어도 내뺐은 발걸음을 주춤하지 않았다.

뜻은 멀리에... 라는 좌우명을 가슴속에 비문처럼 쏘아박은것도 다름아닌 그 새벽부터였다. 그때로부터 20년세월이 흘러갔다.

어느해 겨울, 병사들의 야외훈련장으로 취재갔던 나는 군인들과 같이 천막안에서 하루밤을 지내게 되였다.

울부짖는 눈보라소리가 그칠줄 모르던 밤이였다.

평양이 고향인 애젊은 병사와 함께 한모포를 덮고 누었는데 문득 귀전을 간지럽히며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린 래일 아침 타격대상물이 있는 현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팔소리를 못들을까봐 걱정이군요...》

아침기상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이 못내 아쉬워서 감자리에 누웠어도 아침기상시간을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병사를 보며 나는 말했다.

《언제나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가슴에 새기면 되는거요...》

그리고보면 나역시 저도 모르게 옛종대장을 닮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아지던 밤이었다.

터놓고 말해서 아침기상나팔소리를 들으며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보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병사라면 누구든지 봉화산을 잊지 못하듯이 거기에서 울려 퍼지던 나팔소리를 잊지 못하는 것이다.

력사의 초행길에 새겨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봉화산에서 랑랑하게 올리시던 나팔소리는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한 길, 창창한 래일을 불러오는 진군의 나팔소리였기때문이다.

그렇다. 봉화산의 나팔소리는 세월을 넘어 오늘도 메아리치고있다.

그날의 나팔소리가 있어 이 나라의 새벽이 밝아왔고 주체조국의 오늘이 마련되었다.

하기에 총잡은 병사들만이 아닌 온 나라 모든 인민이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잊지 못하며 심장에 안고산다.

그 나팔소리에 박동을 맞추며 내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길,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의 길을 달려가고있다.

세월과 더불어 지나간 모든 일들이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민은, 력사는 봉화산의 나팔소리를 잊지 않고있거니, 나는 오늘도 우렁찬 진군나팔소리를 가슴에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응위하는 리수복형의 육탄전사로 한생을 살리라는 심장의 맹세와 함께 그 나팔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살고있다.

푸르게 살리

오영재

인간의 한생엔
짧음도 있고 백발도 있건만
언제나 푸르게 살리
비뚤어 해비치는 아침
깨끗이 씻기운 푸른 숲처럼

걸어온 한생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머리위에 불구름을 이여도 보고
발밑에 폐허도 헤쳐보며
조국에 순정을 다해온
내 마음의 푸른 냇이여

가슴에 가득한 혼장만이
높은 직위와 명예만이
영원한 충신의 징표이던가
그것만이 아니더라
조국이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을 때
푸른 빛을 잃고 누렇게 황이 든 인간들
어머니 젖줄기에서 떨어진 그들의 운명은
어지러운 웅덩이에 처박혀 썩고있지 않느냐

모진 바람속에
굳은 길을 걸으며 이 나이토록 살아보니
더욱 소중해지는 내 인생의 푸르름
불길도 못태우는
우리의 푸름아

눈서리속에 더욱 청청한
송죽의 푸름아

황금도 나에게 행복을 줄수 없으랴
명예도 내 기쁨의 전부가 아니여랴
이 세상 푸른 빛이 다 없어졌다고
사람들 입을 모아 말한다 해도
나는 이 푸르름만을 끝까지 지키며 살리
가다가 열백번 죽는다 해도
내 푸르게 선택로 죽으리

태양이 안겨준 빛
시들줄 모르는 생명의 빛
순결한 량심으로 깨끗한 빛이여랴
미래를 비껴안고
오늘을 이겨가며
눈물도 있고 노래도 있는
나는 영원한 푸른 인생

인생의 가을이 왔다고
어찌 내 푸른 빛이 바래일수 있으랴
머리위에 검은 구름이 어지러워도
내 오직 태양만을 우러러
아버이장군님만을 따르며
푸르게 살리
푸르게 살리

끝나지 않은 6천리

김만영

못잊을 6천리 길우에

죄스럽구나
내 앞길에 봄을 펼치여
우리 장군님
대한의 추위를 헤쳐가신 6천리를
눈도 없는 봄철에 걷기가

죄스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한치한치를 다 더듬으니

깊어지는 생각속에
가슴은 넓어지고
지 멀리 미래가 가까이 바라보이는구나

못잊을 6천리여
자욱자욱 뜨거운 력사의 길이어
너는 이 가슴에 무엇을 새겨주느냐
너는 이 가슴에 무엇을 안겨주느냐

녹지 않는 눈

어디로 갔는가
강산을 뒤덮었던 그날의 흰눈은
장군님의 옷자락을 흔들며
세차게 불어치던 눈보라는

봄바람이 불어불어
그날의 눈은 다 녹았어도
장군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
건고건는 6천리에
력력한 그날의 차바퀴자리
력력한 그날의 발자욱 발자욱

눈을 들어
굽이굽이 산발을 더듬으니
3월에도
기슭에 절벽에
감돌아에는 봄바람
나무마다 가지마다 움트는 새싹...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때
시련의 눈바람을 헤치시며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야 할 진로를
열어주신 그이
그 마음속에 추위를 다 안고가시여
북방에도 매일씩 봄이 찾아왔는가

이제 꽃피는 봄이 지나고
열매익는 가을이 와도
력사의 길을 개척하시며
우리 장군님 맞으신 그 눈은
준엄했던 오늘을 이야기하며
불굴의 의지를 굳혀주며
내 마음속에 녹지 않으리
세월이 가도
하얗게 쌓여있으리

잠 못드는 밤

강물을 거슬러
물결을 거슬러
기행길 다그쳐가노라니
산기슭에 오붓이 자리잡은 55호동마을
그 집집의 창문이 내 마음을 붙잡누나

저마다 찾고 이끄는 집
인정깊고 살뜰한 그 많은 집들에
어이 다 들릴수 있으련만

하루밤만이라도 꼭 묵어가고싶구나
장군님 들려가신 이 집에서만은

시뻘경계 달아오른 이 전기화로를
장군님께서 보셨다고
아래웃방 구석구석을
장군님 손수 손으로 짚어보셨다고
걱정에 목메여
자꾸만 머금은 안주인의 이야기...

친어버이가 되시여
 세간난 자식의 집을 찾으신 장군님
 전기화된 그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터친 그
 웃음
 아직도 따스한채 남아있는 집

내 하루밤 묵어갈 길손이라도
 집주인처럼 마음 진정할길 없는 집
 앉아도 누워도
 장군님 체온으로 뜨겁고
 장군님 숨결로 후더운 집

끝내 잠들수 없이
 밖에 나서니
 온몸에 붙어치는 찬바람
 그날의 찬눈송이...

아, 밝고 따스한것을
 집마다 마을마다 다 안겨주시고
 장군님은 이밤도 그 어딜 가셨는가
 그 길이 밝혀와
 그 길에 붙어치는 찬바람이 안겨와
 잠못드는 밤이여
 기행의 한밤이여

북방의 새 모습 (1)

아니 저런
 얼음장을 타고 놀다니
 봄철에 얼음장이 갈라지면 어쩔려구

제법 막대기를 노인양 저으며
 장강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폐목처럼 얼음장을 타고 노오

그날 은반우에서 스케트라는 아이들을 보시며
 언뎀이 다 녹는다 하신 장군님

환한 웃음속에 오래도록 바라보신 그애들이요

이제 저 아이들
 봄이 완연하고 여름이 오면
 옷통을 벗어던지고 여기서 보트를 타리니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장구치던 우리 아이들
 이제는 발전소호수에서
 바다를 안고 자라게 됐소!

북방의 새 모습 (2)

새집을 받았다고
 빨리 오시라고
 몇번이고 재촉한 딸의 편지에
 빨리 간다는것이 오늘에야 찾아온 할머니
 옛날부터 새집들이에는 불이 선잠이라며
 딸앞에 내놓는 《금강》성냥!

아니, 성냥은 해서 뭘할가
 너무 어이없어 딸은 웃어도
 산골도 북방의 산골에서

전기로 밥은 짓고
 전기로 방을 덥히는줄
 할머니 어이 알라

성냥을 쥐고 꿈을 꾸는듯
 말없는 할머니
 원, 세상에
 산골에 제일 귀한 성냥이 필요없다니
 이걸 가리켜서 천지개벽이라 하지!

북방의 새 모습 (3)

해지기전에 빨리 가야지
 산골에선 해만 지면
 아는 길도 못찾아

저녁늦게 차에서 내려
 아들네집을 찾아오는 칠손로인님
 발걸음 재우 밝네
 길을 헛갈려 온밤 산길을 헤매던
 젊었던 그때 그밤을 생각하며

그런데 어인 일인가

굽이굽이 산골짜기마다
 층층 발전소가 잇대여 솟았거니
 깊은 골이 나지는가 하면
 거기에서도 마중오는 불빛들...

그제야 로인님은
 길가에서 담배 한대 피워무네
 어허-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해가 짧은 고장에
 지지 않는 해가 생겼군!

장자강의 물소리

굽이굽이 강기슭을 따라
가고가는 길우에
들리는 물소리도 정겨워
걸음멈추고 나는 듣네
무엇인가 자꾸 속삭이는 그 소리

수수천년을 덧없이 흐른 이 강물
이제는 보배물이 되었소
흘러흘러 전기를 생산하고
흘러흘러 산천을 밝히오

저기 굴뚝없는 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마을을 좀 보오
사시장철 따뜻하고
사시장철 밝고밝은 선경마을이요

이전엔 산이 높고 험해
가장 춥던곳이
이제는 가장 더운곳으로 되었소
가장 어두운곳이
가장 밝은곳으로 되었소

쉬이 걸을수 없구나
길은 평탄하고 물소리 정겨워도
자옥자옥 불을 났고가는듯
온몸이 뜨거웁구나

장강 북천강 물결을 따라 울리는
아담한 발전소의 동음소리도
집집에 흐르는 밝은 불빛도
이 마음엔 불, 불을 안겨주누나

산을 봐도 불
들을 봐도 불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불!
불!

아, 우리 수령님
빈터우에 천리마의 시대를 열어놓은
강선의 불
우리 장군님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여
이 땅우에 지퍼올리신 강계의 불
자력경쟁의 불

꽃을 안고 흐르는 물소리
빛을 안고 흐르는 물소리
북방의 강기슭에서
나는 제일먼저 봄이 오는 소리를 듣네
제일먼저 울리는 봄노래를 듣네

그 어떤 하늘의 조화도 아니요
이 천지개벽은
우리 장군님 안아온것이라오
장군님 하라는대로 한것이라오

굽이굽이 돌고돌아
그 어느곳에서도
한결같이 울리는 물소리 나는 듣네
장군님만 따르면 잘 살게 되오
꼭 잘 살게 되오

아, 대하의 격류처럼 크지 않아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장자강의 물소리
어디 가나 신심과 신념에 넘쳐있는
자강땅사람들의 그 목소리!

불타는 땅

이 불을 안고
기대는 기대마다 만부하로 돌고
산중의 제강소는 불노을을 펼치여라
이 불을 안고
행복을 가꾸는 포전마다에
기계의 동음소리 울리여라

시련이 아무리 겹쌓여도
고난을 박차고
용감무쌍히 진격하는 땅
사회주의의 노도치며 격류하는 땅

너는 시대를 향해 웨치고있구나
력사앞에 소리치고있구나
우리엔 다른 불이 없다고
우리 장군님 지퍼주신 이 불만이
민족생명의 불!
사회주의운명의 불임을!

오, 자강땅, 자강땅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로 불타는 땅
세차게 타오르는 그 불을
온 조국땅에 불이여가는
성스러운 땅이여!

끝나지 않은 기행

길은 끝났어도
가슴에 노래는 그냥 울리누나
걸음걸음에 힘을 주고
자옥자옥에 신심을 주는 6천리

거룩한 자취를 따라 걷고걸어도
다 걸을수 없는 6천리
이 길우에 수놓아진 그 뜻
어찌 한가슴에 다 안을수 있으랴

사람들의 가슴에 필승의 신심을 주고

신념의 불길을 지펴준 길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어
우리 당과 조국 력사에 길이 빛나는 길

걸으리라
내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길을 걸으리라
낮에 밤을 이어
폭풍해쳐 내 이 길을 가리라
아 6천리는 끝나도
끝날수 없는 나의 기행이여!

강성대국의 첫 새벽길

홍현양

사람들이 바빠 걸어가는
새해의 첫 출근길
우리 걸음 재촉하는
새날 새 아침이다
내리는 눈발속에서도
가야 할 길이 보인다

그 걸음걸음에
나래가 돋쳐
불을 안지 않고서는
밟을수 없는 이해의 첫 출근길
충진군의 이정표가 세워진 이 길

만수대언덕을 내려
맹세의 뚫는 피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쇠물로, 쏟아지는 석탄으로
번개치는 전기로 안아일으키는 사람들

뜨겁다, 불탄다
조국의 숨결은
제철소와 발전소
감자풍년을 안고 부푸는 농장벌에
강성대국건설의 발자욱이 찍힌다

가는 사람
천만이어도
위대한 장군님 받들어
전환의 해
전환의 길을 열어가는
첫 새벽의 첫 영웅들

바라보인다
이 길에 한번 오른 사람
이 길에 자옥을 내는 사람
그 누구라도
대홍단기풍으로
강성대국의 자옥을 내는 사람들

멀고멀어도
첫자옥을 떼며 떠난
이 새벽
용접의 불보라 날리며
시추기로 새 광맥을 잡으며
우리 힘
우리 방식으로 열어가는 이 길

총대가 물결친다
은빛매들이 하늘을 날은다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인
주체의 강성대국
그 하늘이 머리우에 푸르다

아, 조국이여
이해의 첫 새벽길은
강성대국의 첫 새벽길
우리는 벌써 그날에 산다
우리는 벌써 그날에 살며
이 아침을 맞는다
신심드높이 나아간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앞채의 무게

류정옥

이른아침이었다. 나는 여느날보다 펍 일찌기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구내에 들어섰다.

벌써 몇번인지도 모르게 이 공장 초급당비서를 찾아갔됐으나 매번 빈방앞에서 돌아서곤했던것이여서 오늘은 마음먹고 서둘렀다.

키높이 자란 수삼나무들이 수려하게 둘러선 산뜻한 청사의 복도에 들어선 나는 기쁨에 가까운 안도감을 느꼈다.

초급당비서의 방문이 병국이 열려있는것이였다. (됐구나!) 하면서도 나는 그가 또 어느 현장으로든 나가려고 문을 여는참이나 아널가 하는 조급증을 안고 걸음을 재게 놀렸다. 그러나 문앞에 이른 나는 주춤 서버리고말았다.

방안에서 따지는듯한 엄한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것이였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동무가 우리 공장에 당부원으로 온지 벌써 몇달째인데 아직도 담담기 줄파에 대한 파악이 고작 그런 정도요?》

이것은 분명 초급당비서의 목소리일것이다. 아마 벌써 아침모임이 시작된것 같았다.

나는 하는수없이 대기실 비슷한 간막이 옆방에 들어가 앉았다. 며칠을 뒤쫓아다니다가 만날수있게 된 초급당비서를 놓칠수 없었다. 몇시간이든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웅글은 목소리는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우리 공장에 왜 기술과를 네개씩이나 내오도록 하셨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하오. 그만큼 우리 공장은 기술적요구가 높고 복잡하기때문이 아니겠소. 우리 기술과들은 물론 각 기술부서들을 그 높은 요구에 따라세우지 못하고서는 공장이 제발로 걸어갈수가 없소. 뭐니뭐니해도 중요한 생산예비는 우리 기술자들의 머리속에 있소.》 그 목소리는 잠시 동안울 두었다가 계속되었으나 어성이 다소 누그러졌다.

《우리 공장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소. 한 20여년전 일이라고 하오. 동무들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나도 여기 와서 들은 소리요. 오래동안 농업분야에서 사업하던 한 일군이 이 공장(그때는 그저 10월5일전기공장이었소)의 책임일군으로 온적이 있는데 오자마자 열린 생산협의회에 참가하여 노기스가 부족하다는 제기를

받고는 당장에 해결하자고 하면서 그것이 한 자동차쯤이면 되겠는가고 했다는거요. 그 일군은 선반공들이 부속을 깎을 때 치수를 재보는 자인 노기스가 그 무슨 기계부속인가 했다는거요.》

당비서의 방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그러나 잠시후 계속되는 그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동무들이 지금 웃기는 하지만 아마 동무들부터 현재 우리 공장에서 흔하게 쓰는 공구들이나 합금소재의 이름같은걸 다는 모를거요. 채삼 강조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다그치는데서 자력갱생모범공장의 앞채를 맨 일군들이요. 힘이 없이는 앞채를 뭘수 없소. 당면하게 우리는 지금 단시일내에 소형풍력발전기 100대를 만들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하오. 이 파업을 수행하자면 우리 당일군들이 기술적문제들을 파악하고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야 하겠소.》

잠시후 그 목소리는 여유있게 울려나왔다.

《자, 담배들도 한대씩 피우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소형풍력발전기생산에서 우리 당위원회 일군들이 각자 해당 부문에서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 또 제기할것들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담배팩을 꺼내는 부스럭소리들이 들렸다.

《가만 내가 라이타를 어쨌더라?》

나는 이쪽저쪽 주머니를 만져도 보고 책상서랍을 이리저리 뒤져보는 그의 거동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동지 라이타는 여기 있습니다.》

《영?! 내 라이타가 어떻게 동무한테 가있소?》

《정기사동무가 주던데요. 아침출근길에.》

《정기사가?》

《비서동진 어제밤 풍력발전기 역변환기성능을 개조하느라고 정기사동무와 함께 밤을 새우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치미를 떼해도 안됩니다.》

비서동지가 돌아가신 다음 부속품함을 정리하다가 그속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참 황아장사 망신은 고불통이 시킨다더니.》

《비서동지, 이젠 낮익지 않습니까? 비상용반

창고를 감아놓은것인데.》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만 있자. 그건 또 어떻게 동무한테 가있소?》

《열처리장에 두고왔더군요.》

《아침, 그랬던가... 내 글썄 집사람한테서도 늙어가면서 점점 덜통해진다는 말을 들군하오.》

《확실히 그런것 같습니다.》

그 소리 에 모두들 웃고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공장에 와서 며칠동안 보고들은 사실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이 공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여러차례의 현지지도 사적이 깃든 영광의 공장이다.

공장의 규모와 생산품은 방대하다. 제품의 가지수만도 수백종에 달한다. 생산공정이라든가 생산품의 가지수를 두고 그저 한마디로 방대하고 평장히 많다는 말로밖에 표현할수가 없다. 따라서 기기에 《먹여》야 할 원료와 자재, 부속의 가지수와 규격은 수백, 수천종을 헤아린다. 그것을 제대로 다 《먹이》며 왕성하게 돌게 하자니 그 밀천과 원천은 막강해야 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막강한것은 자력갱생의 위력이었다. 공장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당의 호소에 열정과 사색, 탐구를 쏟아부었고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의 앞채를 메고 이끌었다. 하여 공장은 《고난의 행군》 몇해동안을 제발로 걸어가는 공장으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만점짜리 공장, 자력갱생 본보기공장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안게 되었다.

공장에는 새 기술 연구집단만도 여러개 있고 부문별마다 기술혁신조들이 조직되어있었다.

나는 물론 그들부터 만나보았다. 초급당비서를 만나려고 몇번이나 방에 갔었으나 빈방앞에서 돌아섰고 그가 나갔다는 현장으로도 찾아갔으나 번번이 헛걸음을 쳤던것이다.

어제는 당위원회 부원이 대주는대로 그의 행처를 찾아 구내의 한쪽끝에 있는 공업시험소로 찾아갔었다. 허나 거기엔 벌써 그가 없었다.

공업시험소에서는 금속공장에서 받아와야 할 소형풍력발전기의 축강을 자체로 뽑아내고있는중이었다. 말그대로 작은 시험로 하나밖에 없는 공업시험소에서 축강을 뽑아내고있는 어려운 《전투》에 공장지배인이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고있었던것이다.

초급당비서는 지배인을 한숨쉬도록 집으로 떠밀어보내고 축강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풀도록 대책을 토론해주고 자리를 떴다는것이다.

초급당비서는 그 길로 풍력발전기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역변환기성능을 높이기 위한 《전투》가 한창인 조종장치분공장으로 갔다는것이였다.

구내의 한쪽끝에서 퍼그나 떨어진 조종장치분

공장으로 부리나케 따라갔으나 또 허사였다.

기술자들과 소매를 걷고 역변환기개조에 달라붙었는데 상급당에서 급히 부른다는 전화편락을 받고 자전거질주를 놓은후였다. 떠나면서 그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것이였다.

그는 마치도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다니는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공장사람들도 내가 초급당비서의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기술자들과 연구집단성원들을 만나는것으로부터 나의 일을 시작하였던것이다.

연구집단과 기술혁신조원들을 만나보면서 나는 아리송한 일에 부닥쳤다. 그 기술자들속에서 김충일이라는 꼭같은 이름을 매번 보게 되는것이였다. 두번째로 찾아갔던 기술혁신조인 낡은 형태의 기계식고주파유도로를 반도체식으로 현대화한 전 기기술자들속에서도 김충일이라는 이름을 보고 나는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한것은 처음에 찾아갔던 금속연구집단기술자들중에도 김충일이라는 이름이 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세번째로 찾아간 컴퓨터수자조종에 의한 종합적인 열처리 기지를 꾸린 전자공학자들속에서도 또 같은 이름을 보게 되었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 공장의 기술일군들중에 김충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을수는 없을것이다.

만약 그것이 모두 한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기에 것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기술을 가질수 있으며 그보다는 어느 시간에 얼마만한 정력을 가졌기에 그 모든 연구사업과 기술혁신에 참가하고있는것인가.

풀수 없는 의문이었다.

나는 컴퓨터수자조종 열처리공청년에게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흥이 나서 말하는바람에 나역시 그의 말에 끌려들고말았다.

《작가선생은 여러 공장들을 다녀보셨을테지만 우리처럼 높은 수준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열처리 기지를 가진데는 몇이 안될것입니다.》

그는 스무살안팎의 말쑥한 청년이였다. 요즘 유행되는 바지에 줄무늬가 가로간 편직샤쓰가 활짝 드러나도록 작업복을 열어체끼고 조종반에 앉아있는데 그의 옆에는 외국어단어장이 놓여있었다.

청년은 자랑스레 그 유익성을 꼽아내려갔다. 8개의 열처리로가 하나의 수치조종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업》한다.

열처리실수들은 종전에 87프로로부터 100프로이다. 과학성에 있어서는 1,500도에서 1도차이며 온도유지시간은 1초도 편차가 없다.

로력은 8명으로부터 2명으로 줄었다.

청년은 쾌활한 인상으로 빙긋거리며 뭔가 자랑거리를 더 생각해내려는듯 눈을 습벽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충일이라는 놀랄 만한 정력을 가진 박식가에 대해 물었다.

청년은 오히려 제편에서 눈이 둥그래지며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되물었다.

《아니, 그럼 우리 초급당비서동지를 아직 모르십니까?》

《초급당비서가?!... 김충일?...》

나는 아연해졌다. 정말로 나의 놀라움은 컸다.

청년의 자랑거리는 물목이 터진듯이 초급당비서인 김충일에게로 쏠리었다.

《우리 비서동지는 실력이 있는 전자공학가입니까.》

《초급당비서동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서동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만나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이 열처리장도 우리 비서동지가 주동적으로 시작하고 기술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30년전부터 쓰던 수동식열처리장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청년은 그 과정을 조리있게 설명했다.

...공장에서는 80년대말부터 재래식열처리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사업도 하고 일군들에게 분공도 주었지만 감히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기술일군들이 외국에 더러 가보고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어느 연구소에 가보니 한대의 로에 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데 수많은 자금이 들었고 주체82(1993)년에 어느 나라에 가보았는데 6개의 로에 도입하는데만도 수백만팔라가 들었다는 소리뿐이었다. 몇달후 김충일초급당비서는 기술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당적분공으로 열처리로의 컴퓨터화에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자리에서 그는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자기의 연구안을 내놓았다. 필요한 전자계산기는 16비트짜리 한대면 충분하다.

열처리에 따르는 수감요소는 백금열전대나 크로멜전대이면 된다. 열처리로에 들어가는 니크롬피는 원천이 긴장하기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 대응으로 잔팔선을 개발해서 쓰되 이것은 금속실에서 해야 할 당적분공이다.

온도에 따르는 금속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과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것이다. 등등...

《자, 보십시오. 작가선생, 우리 비서동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술개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이렇게 자체의 힘으로 해내도록 과학적인 설계안을 내놓고는 〈날따라 앞으로!〉 하는데 누가 따라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비서동진 다방명적으로 기술을 파고드는 사람이어서 기술자들속에서 신비주의나 보수주의 같은것이 움짍을 못한답니

다. 하긴 우리청년들도 움짍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

《우리 비서동진 머리가 비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이 발표되면 그 다음날엔 벌써 토 한자 틀리지 않고 통달합니다. 우리가 떠들거리면 청년들의 머리가 그렇게 게을러서 무엇에 쓰겠는가, 그렇게 게으른 머리를 가지고서는 〈고난의 행군〉을 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청년의 입에서는 《우리 비서동지》라는 말이 떨어질줄 몰랐다.

《하지만 우리 비서동지는 인정도 많고 아주 소탈합니다. 공장적으로 수백명이 넘는 나같은 〈코흘리개〉들을 대하는데서도 그저 인사나 끄덕 받고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는가, 청년시절에 배워야 한다, 외국어도 소유해야 한다, 체육도 잘해서 몸단련도 하고...》 청년은 자기네 당비서에게 완전히 반해버린듯하였다....

사람이 반하면 그의 약점까지도 존중하게 된다고 한다. 나역시 청년의 말을 통채로 믿을수 없었지만 당비서 김충일을 만나보고싶은 충동이 더욱 강렬해졌다.

당일군이 당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인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일이지만 과학기술의 만능으로서 존경을 받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그것도 어느 한 기술분야만이 아니다....

열처리공청년은 김충일을 현대 전자공학전문가라고 했으며 기계식고주파유도로를 반도체식으로 현대화한 기술자들은 그들대로 김충일을 전기에 박식하다고 하였고 초음파연신기를 제작한 기계 기술자들은 김충일을 기계설계전문가라고 하였으며 금속연구집단에서는 또 그들대로 김충일을 금속전문가라고 하였다....

그중에 금속연구집단기술자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특수합금재료인 《베릴리움청동합금》, 《린청동합금》을 비롯한 수종의 합금재료를 대신하는 대응제를 개발하였다.

연구조를 책임졌던 조장은 그 연구조에 망라되었던 성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들이 달성한 과학기술적가치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었다. 그는 연구조의 한 성원이었던 김충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다.

연구사업의 첫 시작으로써 3명의 기술자가 외국문헌조사에 3개월이나 시간을 바쳤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베릴리움이나 석을 다른것으로 대응했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것만을 확인하였을뿐이다. 그들이 손맥을 놓고있을 때 김충일은 자기

자신과 함께 연구조원들을 각성시켰다.

《우리는 뭔가 잡도리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

《다른 나라들이란 석이나 베릴리움이 얼마든지 있는 나라들인데 무엇때문에 대용제를 만들어 쓰겠소. 이젠 째째이 문헌들을 찾아보다가 내가 찾아낸 결론이요.》

조장도 같은 생각으로 긍정하였다.

《웁습니다. 아직도 우린 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 먼저 생각해보는 경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나부터도 외국자료를 먼저 뒤적거렸으니말이요. 무엇보다도 절박한 우리의 조건, 우리의 난국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만이 풀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달라붙었어야 할 것이었소... 그래 뭐 좀 다른 방도를 찾아본게 없소?》

조장이 모색중에 있던 탐구안을 내놓았다.

《알루미늄이나 규소, 망간, 크롬 같은것으로 대용합금제를 얻어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보는중인데 아직은...》

조장은 신심이 없이 말꼬리를 흐렸으나 김충일은 그의 손을 으스스리게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두사람의 견해가 일치했구만. 이젠 벌써 가설이 아니라 정설에 도달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일것만 같소.》

《?!》

연구조원들은 모두 놀랐다. 수많은 일을 안고 있는 당비서가 어느 틈에 문헌조사를 했으며 금속에 대한 속성과 특질들을 연구분석하고 탐구하여 묘한 방안을 탐색해냈을가... 그로부터 연구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흔히 쓰는 금속재료를 가지고 대용제를 만들어낸다는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과학기술적문제였다.

수십차례의 실패, 문전을 아껴써야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엄청난 자금지출과 가재량비... 그들은 실패와 죄의식감에 주저앉을 때도 많았다. 계속되는 실패, 자재와 자금의 량비가 한도를 넘어섰다. 법적인 책임감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의기 소침해지기도 하였다.

그렇수록 김충일은 그들에게 힘과 의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보우, 동무들, 우리의 법은 진정한 애국심을 처벌하지 않소. 우리가 법보다 더 무서워해야 할것은 패배주의적인 비판과 주저, 자기보신과 동요요,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리 공장이 제발걸음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요. 또한 오늘의 경제건설이나 과학탐구는 단순한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생활이고 운명인 사회주의를 지켜내는가, 못내는가 하는 판가리싸움이요. 사람이 운명을 걸고 악

을 먹으면 무서운것이 없는 법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무기를 쥐여주시지 않았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이 명언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팀없는 신조로 되어야 하오.》

김충일은 먼저 실험대앞으로 다가갔다. 말없는 《날따라 앞으로!》의 구령이었다.

그들은 무려 40여차례의 실패를 거듭한끝에 마침내 린청동판이나 베릴리움청동판에 못지 않게 튼성도 좋고 전기전도성도 좋으며 변색되지 않는 대용재질을 얻어내고야말았다.

초급당비서방에서 결상 옮기는 소리들이 났다. 모임이 끝난 모양이다. 이어 사람들이 나왔다. 나는 마지막사람과 어기며 당비서방에 들어섰다. 키가 크고 어깨가 썩 벌어진 건장한 체구의 50대의 중년이 한순간 의아스레 나를 바라보다가 짐작이 간듯 미소를 지었다.

《아, 몇번이나 찾아오셨댔다는 말은 전해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별로 들려드릴만한 이야기도 없는데 공연히 수고를 시키서 말입니다.》

번듯한 이마에 검은 눈썹이 선명하고 역설역설한 눈이 광채를 띠고있었다. 결보기엔 특별한 점을 찾아볼수 없었다. 공장, 기업소에 가면 흔히 만나볼수 있는 일군, 평범한 당일군의 인상이었다. 나는 인사말을 나눈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서동진 어느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어느 어느 대학이라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장에 와서 들어보니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속에서 비서동진의 지식에 대한 평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는곳마다에서...》

김충일은 손을 저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고 그런 뜬소문을 아예 믿지 마십시오. 난 원래 대학을 몇개씩 다닐 재목이 못됩니다.》

...김충일은 1960년대 초엽에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였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문한 기계설계 전문가였다.

그에게 금속전문가라는 말이 붙게 된것은 김책공업대학 금속학부에서 부문당비서사업을 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당비서로 온후 사업상 필수적인 요구로부터 순전히 자습으로 얻은 지식이었다. 그 지식이 기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게되자 금속전문가로 소문이 난것이다. 전기전문지식 역시 독학으로 터득하였다. 자동화종합공장에서 전기를 몰라가지고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생산활동에 깊이 침투할수가 없었다.

전자공학도 마찬가지였다. 김충일이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 나라에서 1세대 전자계산기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피상적인 상식밖에 몰랐다. 지금은 5세대 전자계산기가 개발되는 시

대이다. 하기에 김충일은 자기보다 20년후배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인 전자계산기실 실장을 선생으로 정하고 배우기 시작하였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전자계산기에 대해서도 그럭저럭 알게 되더군요. 내가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한다는걸 안 우리 도서실 대출원 동무가 새로 나오는 기술서적들과 잡지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답니다.》

정말로 그의 책상에는 여러권의 기술서적들이 쌓여있었다. 수천명의 종업원을 가진 큰 공장의 당일군이 언제 어느 시간에 그것도 세네가지 분야의 과학기술을 파고드는것일까, 당일군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다.

생산기업소 당일군들은 다른 비생산부문의 당일군보다 몇배로 더 힘들다는것을 나는 잘 안다. 더구나 《고난의 행군》 나날에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은 일을 맡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늠할수가 없을것이다.

정치사업과 함께 생산지도일군들과 같이 뛰어야하며 노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고심어린 탐구를 하고 고락을 같이하며 무거운 《집수레》의 앞채를 메고 이끌어야 한다.

생산단위를 책임진 당일군이 생산과제를 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오늘의 당일군으로서 제몫을 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비서동진 하루에 몇시간씩 주무십니까?》

《예?》

그는 의아한 눈길로 잠시 나를 건너다보더니 묻는 뜻을 짐작한듯 가볍게 웃었다.

《나는 원래 무척 절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드레가 없고 먹는것도 역시 생각나는대로랍니다. 퇴근시간도 까맣게 잊어먹고있다가 집 사람의 전화를 받고야 〈아차!〉 하고 일어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방금 쓰린 라이타를 어데다 두었는지, 손수건을 언제 어디서 떨구었는지 통 모른답니다.》

《...》

그것은 아마도 그의 타고난 무절제가 아닐것 같다. 그의 사색과 모든 시간은 한초한초까지도 그 개인의것이 아닐것이다. 공장의 수백가지 일과 수천명 종업원들의 시간일것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자는것마저 《무절제》속에 빠져들게 하고 방금 쓰던 소지품도 어데다 놓았는지 모르게 《덜통》한 인간으로 만들면서 사색하고 탐구하며 뛰고 또 뛰며 무거운 《집마차》의 앞채에 어깨를 들이밀게 하는 힘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서 생기는것일까?

단순히 강한 의지이고 열정이며 책임적인 의무감이겠는가. 또 전화종이 다급히 울렸다.

김충일비서는 책무지를 밀며 구내전화기를 당

겨 송수화기를 들었다. .

나는 그때에야 책무지에 가리웠던 작은 탁상액틀을 보았다. 앞뒤판이 유리로 된 손바닥만한 액틀에는 《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 《자폭정신》이라는 빨간 글발이 씌여있다.

어데서나 볼수 있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면모를 말해주는 직관물이었다. 현대 액틀 맨밑에는 눈에 선 글발이 또하나 있었다.

《앞채의 무게!》라는 글줄이었다.

(앞채의 무게?!...)

전화를 받는 김충일비서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아니요. 4. 15까지의 날자는 절대로 어길수 없는 초급당위원회 결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일군들이 산판으로 떠나도록 합시다.》

나는 전화내용이 짐작되었다. 지금 이 공장에서 《전투》를 벌리고있는 소형풍력발전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진 초소들에 보내주실 은정어린 선물이었다. 현대 발전기의 날개를 만들 목재가 미처 들어오지 못해서 제 기일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 형편이었다.

《...지배인동무는 자리를 뜨면 안됩니다. 공장 전반사업을 지휘해야지요... 거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야 함께 앞채를 멘 사람이 아닙니까... 저녁차로 떠나도록 조직사업을 합시다...》

나는 김충일비서의 정력에 넘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하였다.

저 사람은 어제밤도 기술자들과 밝힌 사람이다. 오늘저녁은 또 멀리 자강도의 산판으로 떠나려 한다. 초급당비서가 직접 가지 않은들 어떠랴만 중대사가 될가봐 마음을 못놓는 가장처럼 매사에 어깨를 들이밀고있다.

《비서동지가 산판에까지 직접 가야 합니까?》

나는 전화를 끝내고난 그에게 물었다.

《자재일군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발전기 생산에서 제일 걸린 문제가 목재입니다. 앉아서 마음 조이기보다는 직접 가서 현대의 나무라도 메내는것이 속편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폭심을 들여 통나무같은걸 멘다던가 땅을 파고 등짐같은걸 지는데서라면 그 좁한것은 〈날따라 앞으로!〉에서 별로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보다 어렵고 힘든것은 우리 공장에서 자력갱생의 기본고리라고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서 앞채를 메야 하겠는데 나로서는 참으로 험치 않습니다. 내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김충일이 일에 몰리우고 줄음이 매달린 펜간혹 의지와 자각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어느 월말생산전투때였다.

새 기술개발연구조나 기술혁신조 그리고 생산현장들을 돌아보며 《무슨 조건이 그리 많은가》,

《우는 소리를 하는데서는 나오는것이 없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회의때 결의나 다지는 구호가 아니다.》 하면서 해종일 분주히 보낸 날이었다.

밤늦게야 사무실에 돌아와 밀렸던 사무처리를 하고 전자공학교과서를 펼쳐들자 저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걸렸다.

김충일은 책을 덮어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하였다.

(당일군이 기술을 그만큼 알아도 기술자들을 지도하는데서야 결릴것이 없지 않은가. 이젠 좀 쉬엄쉬엄...)

이렇게 생각하면서 퇴근차비를 하는데 구내전화중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느 현장에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하고 김충일은 수화기를 들었다. 허나 전화는 뜻밖에도 전자계산기실 실장인 《선생님》이 월말전투로 며칠째 결강한 《학생》을 호출하는 전화였다.

《...이거 미안하게 됐소. 나때문에 아직 퇴근하지 못했구만... 오늘은 그만두지요. 시간도 늦었고 〈학생〉도 〈선생〉도 다 머리가 피로한데...》

전화기에서는 의외에도 웃음기가 실린 실장의 공격이 날아왔다.

《비서동지, 무슨 조건이 그리 많습니까?》

《뭘라구?!》

《앞채들 메기가 그리 혈한줄 아십니까? 앞채의 무게가 어떤것입니까?》

《허허...》

김충일 일군들앞에서 자신이 자주 쓰는 말투를 본따서 역습을 하는 실장에게 손을 들고말았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곧 갑지요, 허...》

김충일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실장동무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나는 공장의 책임일군들과 기술일군들에게 이런 말을 하군합니다.

〈정신육체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풀기 어렵고 뛰어들기 힘든 가시밭에서 앞장에 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쉽다면 무엇때문에 우리 일군들에게 앞채를 매라고 하겠는가. 우리 어깨에 실리는 앞채의 무게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떠메고계시는 조국의 무게와 잇닿은 한줄기이다.

지금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들의 경제봉쇄, 전쟁소동 등 온갖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그 언제도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난국을 겪고있는 우리 조국의 앞채를 량어깨에 떠메시고 〈고난의 행군〉을 진두지휘하신다. 장군님께서 떠메신 앞채에 운명을 걸고 자신을 강그리 바치라. 자기 어깨에 더 많은 짐이 실리도록 하라.〉 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 자신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잠시 말을 끊고 눈길을 내려뜨리는 그의 얼굴엔 자책의 표정이 어려있었다.

《사실말이지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의 조성된

난국을 함께 헤쳐가시자고 전당 당일군대회를 마련하시고 크나큰 믿음을 주셨는데 그 백분의 일도 보답을 못하것만 같아 죄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저것이로구나!)

먹고 자는것마저 잊게 하는 저 사람의 정열과 의지를 떠미는 힘이... 그것이 바로 당일군의 자세이고 인생의 신념일것이다.

저런 당일군이 많아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메신 난국의 무게가 그만큼 덜리울것이 아닌가.

나는 모든 일군들에게 말하고싶은 충동이 불쑥 일었다.

자신들의 어깨가 더더욱 무겁게 더 많은 짐을 지고 강행군의 앞장에 서라고...

김충일은 담배곽을 꺼냈다. 그리고는 옷주머니와 책상서랍을 여기저기 열어보았다.

《라이타를 어떻게 했더라?》

라이타는 탁상일력앞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탁상일력에 시선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타를 발견하지 못한채 탁상일력에 써놓은 사업내용을 보고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충일입니다... 동무네 작업반에서 공업대학 결석생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지요?》

전화를 하면서도 그는 옷주머니를 더듬었다.

역시 사업밖에 모르는 《덜통한》 수재형이다.

무슨 일이든 손에 잡기만 하면 모는것을 잊어버리고 온 정력과 사색을 쏟아붓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다. 사소한 신변다반사에도 빈틈이 없어야 알 당일군으로서 약점이라고 알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끌리기까지 하였다. 왜냐면 그만큼 자기 사업에 깊이 몰두하기때문이다.

초급당비서에 대해 것처럼 공지를 가지고 말하던 열처리공청년이 존경심에 의심할바 없는 공감이가면서 그가 하던 말이 생각되었다.

장군님의 로작들을 토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리속에 새긴다는 사실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어찌 단순한 비상한 그의 기억력에 달렸겠는가. 50대의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메신 앞채를 받쳐드리는 하나의 주추돌이 되고저 밤잠도 줄여가며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과 과학기술문헌들을 파고들며 자신의 높은 실력으로 앞채를 메고 강행군대오를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당일군.

나는 어쩐지 이 직장, 저 직장에서 라이타며 또 무엇을 《잃어》버리고다니는 그 《덜통성》이 크고 작은 신변사를 잃어버리고 오직 당의 뜻을 받들며 노동자, 기술자들속에서 사는 김충일의 《흔적》처럼 생각되어 그것이 그에게 더 어울리는 것만 같았다. 전화를 끝내고 송수화기를 놓던 김충일은 그제야 라이타를 발견하고 허거른 웃음을 지었다.

조선의 기적

김익철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수도의 거리로 걸음을 옮기는 나의 생각은 깊어만진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일 우리 당의 원대한 뜻이 가슴가득 안겨왔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새해에 들어서니 생각 또한 류다르다 하겠다.

시련이 걸음걸음 뒤따르던 강행군에 이어 희망에, 찬 새해를 맞고보니 문득 기적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언제부터였는지 사람들은 보통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나 사실을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해왔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가지가지 기적과 변혁으로 가득찬 세기였다.

고도로 상승한 인간의 창조적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람의 지능활동을 대신하는 전자계산기의 출현을 비롯하여 텔레비존화의 실현, 우주행성들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기적은 자연과학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일어났다. 금세기초에 인류가 오래동안 갈망해오던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 사회주의가 지구상에 출현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었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는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분연히 일떠섰으며 금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그 력량은 거의 모든 대륙을 포괄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혁명의 배신자, 사회주의의 배신자들에게 의하여 반세기 이후에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줄지에 붕괴되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혁명의 원수들은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입을 모아 떠들어댔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종말이 아니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동방일각에서는 붉은 기발이 끄떡없이 힘차게 나뭇기였다. 이것은 세상사람들 앞에 보여준 조선의 기적이었다.

이미 50년대에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승히고 공화국을 수호함으로써 조선은 기적을 파시했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면전에 이 폭탄같은 선언을 하였을 때 인류는 조선이 사회주의의 굳건한 보루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

여 조선이라는 존재는 제국주의의 두목 미제의 눈에 박힌 가시처럼 되었다.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이때부터 더욱 본격화되었다. 군사적 압력과 봉쇄, 경제봉쇄를 들이대는 한편 《핵의혹》이라는 울가미를 조이려들었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들이닥쳤다.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준엄한 시각에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난국을 맞받아나아갔다.

이 행군의 진두에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강추위에 얼어드는 신발도 녹일사이없이 머나먼 최전연초소들과 강계와 성강, 희천과 덕천을 찾으시여 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리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려움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험로를 웃으며 헤쳤다. 그 투쟁속에서 김철의 로동계급은 콕스탄이 떨어진 해탄로를 살려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웠으며 희천과 덕천에서는 공작기계와 지동차를 만들어내고 군민이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4.25려관과 새 거리도 일떠세웠다. 이 나날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단방에 쏘아올림으로써 당당한 위성보유국이 되었다.

이에 질겁한 미제가 《유화전략》을 췌던지고 다시금 《지하핵의혹》을 걸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12월의 단호한 성명으로 적들이 찍소리 한마디 못하게 눌러버리고말았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조선은 20세기말엽에 이르러 꺾을수도 없어버릴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라는것을 세상만방에 다시금 파시하였다.

바로 이것이 20세기말에 창조한 또하나의 조선의 기적이다.

기적은 기적을 낳는다.

어제날의 고난의 행군이 조국해방과 사회주의 조국을 안아왔다면 오늘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기를 안아왔다.

당보, 군보, 청년보 공공시설에서는 올해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맞이할것을 호소하고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써오는 말이지만 그 참뜻이 오늘처럼 값높게 발휘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 고생없이 차례지는 락이

무슨 락이라. 최근년간 우리 인민은 참으로 가슴
쓰린 아픔을 많이도 당하였다. 그만큼 새로 누리
게 될 락도 크고 보람찬것이다.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나날에 강성대국건설
의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우리 조국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강
력한 대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앞날
은 멀지 않다. 올해 우리는 강성대국으로 뛰어넘
기 위한 도약대를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쌓고 강
성대국건설의 길이 활짝 열린 21세기로 뛰어넘어
가야 한다.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겹쌓인다 해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이 없다. 21세기는 우리 조

선이 강성대국으로 일떠서는 세기, 이 땅우에 기
적으로 수놓아질 세기이다.

강성대국건설, 이것은 조선이 남게 될 또하나
의 기적이다. 21세기 초입에서 일어나게 될 조선
의 기적은 이미 토대가 다 마련되었다.

이것은 확정적이다.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계시는 한 점
령못할 요새는 없다.

21세기에 맞게 될 그 기적을 향해 지구가 움썹
흔들리게 조선은 올해의 첫걸음을 장엄하게 내디
디었다.

운전지휘원의 마음

한정현

벌써 그 몇번째
맞고보내는 렬차인가
긴장한 근무의 밤은 깊어
또다시 나를 찾아 들보내는
사령전화기 종소리

다급한 마음으로 신호기 찾아들고
서둘러 나서노라
저 멀리 산굽이쪽에선
정다운 기적소리 메아리치는데
급히도 달려온 순환렬차가
어느새 역구내로 들어서는구나

수고한다, 먼길 다그치는 렬차여
힘차게 달리는 너를 보니
새힘이 부쩍 솟는구나
오늘도 정시로 통과-
푸른 신호 열린 이 길을 지나
어서 기운차게 달려가라

좋다 이런 순간엔!
일본도 드림없는 정시가 아니냐
차판가득 화물을 실은 렬차들이
끝없이 가고오는 여기에
우리 일하는 맛이 있는것 아니냐

쿵 쿵- 궤도를 구르며 내결을 질풍쳐지나는
낮익은 기관사 이 친구야
렬차의 시창너머 너의 웃음소리 떨기져 진하구나
나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인양
네 울리며 가는 기적소리도 반가웁구나

순간에 만나고 순간에 헤어지는 우리
심중의 많은 말 눈빛에 담고
서로의 믿음을 경례에 담아
비길데 없는 혈육의 정 나누는 우리

달리 말하지 말자
우리 사이 그저 범상한 사이라고
언제나 맞이하교 바래우는것뿐이여도
오로지 조국의 앞길을 남먼저 달리는 우리
말없는 언약으로
시대의 안장에서 큰일을 하고있거니

진정 멋이로다
네 울리는 기적소리
내 추켜든 푸른 신호기
그것이면 모든게 통하는 우리거늘
이 한밤도
조국의 어깨에 떠실린 무거운 짐을
마음합쳐 두줄기 철길로 받들어감이어

잘 가라, 갈길 바쁜 친구여
구내신 벗어나 더 멀리 가기전에
기적이냐 한번 더 울리려무나
이밤도 우리를 지켜보는 조국앞에
삼가 거수경례하고

고동변을 놀러라
그것은 수송전선의 미더운 보고
우리 울리는 기적소리 이밤도 우렁차다교
우리 휘젓는 신호기도 힘차게 펄럭인다고
하기에
이밤도 조국위한 길에서 순간의 정지도 없었다고
이밤도 우리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헤어졌다고...

형제봉의 새벽노을

김성희

1

나에게서 오후 첫시간은 하루일과치고 제일 조용하고 한가한 시간이다. 이즈음에 교환대의 가입자들은 얼어붙은듯 꼭 닫겨져있었다.

축산반에서 사양공으로 일하던 내가 자그마한 교환대를 맡게 되기까지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몇개 안되는 접속구를 끼웠다 뺐다 하며 하루종일 해를 보내고 겹해서 우편통신원이 주고간 출판물들을 배정목록에 따라 배포하는것이 지금의 나의 일이었다.

나는 절로 마음이 쓸쓸해지는것을 느끼며 교환대우에 있는 신문을 펼쳐들었다. 날자를 보니 며칠전의것이였다. 신문에는 풀판을 대대적으로 조성할데 대한 사설과 함께 염소, 양을 비롯한 풀먹는 짐짐승들을 많이 기르고있는 모범단위들이 소개되어있었다.

불쑥 송순이 생각이 났다.

(그엔 지금 뭘하고있을까?)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축산반가입자에 머물렀다. 금시라도 바르르 떨다가 딸각 열려질것만 같았다. 웬일인지 그애 생각을 할 때마다 가입자가 열려지고 뒤이어 맑고 청아한 송순의 목소리가 울리곤했던것이다. 범이 제소리 하면 온다는 속담을 빗대고 나는 이런 일어 몇번 반복되는통에 송순이를 《범아지미》로 불려주었다. 정말이지 그애는 기이한 과장을 먼저 보내고나서 나를 찾는것이 아닌가. 전화로 말할 때면 송순은 나를 《큰엄마》로 불렀다. 웃기 잘하고 룡질도 좋아하는 그애는 자기보다 한살 아래인 내가 먼저 시집을 가서 아이어머니로 된것이 무등 기쁘고 즐거운 모양 매번 《큰엄마》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정작 만나면 예전 그대로 《분이야, 분이야.》 하면서도.

나는 접속구를 쏙고 축산반과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한참만에 응답자가 나왔다. 반장아바이였다. 은연중 기뻐했다. 시어머니와 송순이를 내놓고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아바이-축산반장이였다.

《큰엄마냐? 왜 그러니?》

나를 송순이식대로 불려주는 아바이가 재미있고 고마웠다. 아바이는 나에게 그동안 자신의 생활과 축산반소식을 대략 들려주고나서 송순이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엔 여전하다. 한번 나오려무나. 갑갑할텐데

... 네가 키우던 돼지도 볼겸...》

아바이가 무심중 건네는 말이였지만 나는 내 마음을 송두리채 뽑는듯함을 느꼈다.

《갈래요. 이제 곧 가겠어요. 그쪽 선로도 볼겸.》

《선로? 응, 그래라. 그애가 좋아하겠군.》

...나는 급히 갈길을 서둘렀다. 향기로운 들꽃냄새와 시큼한 두엄냄새를 실은 선들바람이 나의 불을 어루만지고 새들의 즐거운 우짖음이 발걸음을 재촉하는것 같았다. 봄아지랑이가 아물아물 피여오르는 둔덕에 나서니 축산반으로 통하는 길이 확 트이였다. 몇달전까지 콩콩 뛰여다니다싶이 이 길을 바삐 다니던 내가 남편잃은 지금 선로검열을 핑계대고 나그네격으로 한가스러운 걸음을 옮긴다고 생각하니 서글픔 비슷한것이 피여올랐다.

저 멀리 산자락 길가에 장대를 세우고 줄당콩을 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띄여보이였다. 언제나 부지런히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는 시어머니를 볼때마다 가슴에 젖어드는 련민의 정을 금할 수 없다.

현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후 며칠 안되여 강원도에서 군의장을 하는 맏아들과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이사집을 꾸러가지고 찾아왔던것이다.

문득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저녁설것이를 끝내고 방안에 들어가니 자리에 누웠을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현주를 재우고 나를 기다리며 앉아있었다. 긴히 무슨 말씀을 하실 작정같았다. 내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려 마음을 조이는데 지금하는 일이 한가해서 맘에 없으면 사양공으로 다시 옮겨앉는것이 어떤가고 직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나는 아연한 심중을 감추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고민이 사람을 찾아오는게 아니라 사람이 고민거리를 만들어낸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이것저것에 머리쓸 일이 생기고 더 고달프게 된다. 옛날부터 너자 치마자락에선 돌개바람이 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밥상이 풍성하고 단잠을 자게 되지. 더구나 강행군시기가 아니냐. 먼저 간 사람을 봐서 사람들이 우릴 생각해준다구 쉬운 일거리에 매달려 해를 보내군한다면 뭐가 남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씀은 대체로 이러했다. 며칠동안 나의 기색을 말없이 살피며 그 깊은 마음속고충

까지도 낱알이 헤아려보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뭐라고 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백번 옳았지만 나에 대한 목장사람들의 후더운 마음들과 소박한 기대를 저버리는것만 같아 하루하루 예전대로 교환대와 마주 앉곤하였던것이다.

어느새 산에서 풀을 베던 송순이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내려왔다. 싱그러운 풀냄새와 땀냄새가 어울려 풍기는 곤색작업복을 입은 송순이를 마주하는 순간 방금전의 서글썩었던 감정이 확 되살아나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왜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걸까.

자신의 감정에 불만을 느끼며 송순이가 이끄는 대로 풀판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머린 파마기가 다 없어졌구나. 현주가 할머니와 삭갈리지 않던? 할망구처럼 머리를 막 꽂져매구. 분은 언제 발라왔니?》

송순은 한동안 내 기색을 훑어보더니 맛갓잖게 지칭구를 했다. 띠동갑이고 생활에서는 내가 선배이지만 이런 뎀 말언니처럼 어려워지는 동무이다.

《넌 만나자부터 비판! 요샌 전화도 안하구. 내가 보고싶지도 않던?!》

나는 온뜩지 않게 흘겨보았다.

《그래, 한번두 보고싶지 않더구나.》

《정말이야?》

《응.》

나는 불식간에 달려들어 그애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 간지럼을 피워 항복을 받아내는데는 이 방법이 제일이었다.

《이래두!》

나는 정말 오래간만에 즐거움에 헛싸여버렸다.

송순이와 마주앉으면 내가 외롭다는것도, 남편은 너자라는것도 감감 잊게 되는것이였다.

《분이야, 미안해. 솔직히 난 네 생각을 못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줄 알았더라면 넌 성내지 않을거야. 지금은 내가 있을 때하군 달라. 새끼마리수는 늘구, 건먹이를 대용하는 풀은 사양공이 말아야 해. 그래 늘 산판에 붙여산단다.》

나는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편안하게 하루해를 보내니 송순이도 그러리라고 단정했거든. 게다가 제생각을 안해준다고 고깝게 생각하기까지... 나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낯을 붉히며 송순이를 도와 풀단을 저날랐다. 모아들인 풀단이 작은 산더미를 이루었다. 지여들인 풀을 죽탕기에 넣어 사료와 함께 배합하여 발효탕크에 통과시켰다. 송순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었다 가다며 거둬 말렸지만 그애의 일손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신바람이 났다.

문득 송순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 적었다. 그 수첩을 펴여보는 순간 나는 주춤 물러서기까지 했다. 나는 그 수첩의 첫장에 무엇이 쓰여있는지 보지 않고서도 잘 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그때 우리는 수첩을 두껍게 매서 《공훈사양공 수첩》이라는 표제를 달고 간수했던것이다. 나의 발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수첩에는 처녀시절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농장대학기간에 사귄 동무들의 주소와 참고서적들의 목록에 이르기까지 다 적혀있었다.

추억의 실마리런듯 송순의 이 수첩은 지난 십년간의 일을 낱알이 이끌어냈다.

2

우리 부락 서전에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은 두개의 산봉우리가 나란히 서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형제봉목장이라고 불렀다.

형제봉목장으로 진출한 첫날 《아바이》라고 무렵없이 부르는 우리에게 축산반장은 물었다.

《그래, 누가 손우냐?》

《저예요.》

송순이가 한발자국 나섰다.

《허허... 보군 모르겠다. 분이가 언니같은데.》

반장은 새삼스런 눈길로 우리를 보았다.

《아바이두, 제가 까불어대서 다들 빗보기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두 분이한테서 참한걸 본받으라지만 전 여태 못배웠어요. 그래서 언니대접을 분이가 받지요 뭐.》

송순이 말이 옳다. 나이드 생김새도 비슷했지만 우리 둘의 성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였다. 나를 부드러운 솜뭉치에 비긴다면 송순이는 통통튀어나갈 잘하는 고무공이나 비길런지... 나는 송순의 발랄한 성미를 부러워하였으나 그의 어머니는 못마땅해하면서 어릴적부터 늘 나를 모범으로 내세워 딸을 교양하려들었다. 그러나 송순은 애초에 고무공이였다. 솜뭉치가 고무공이 될수 없는것처럼 고무공이 어떻게 솜뭉치로 될수 있겠는가.

《그래, 감상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험하다구 한단다. 꽃같은 처녀들의 일이 못된다는거지. 원, 안할 소리. 처녀들이 꽤질 기르는게 뭐 대수냐?!》

반장은 우리를 이끌고 여기저기로 안내하고는 소감을 물었다.

《한데 이상해요.》

송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장의 기름한 얼굴을 뵈히 올려다보았다.

《뭐가?》

《우리 목장엔 왜 공훈사양공이나 영웅이 한명도 없어요?》

송순은 《우리 목장》이라는 말에 력점을 박았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것 같았다.

《허허… 참 이런 공명주의자들 봤나?》

《어마나, 우리가 공명주의자들이라구요?》

《아바인 나빠요. 우릴 공명주의자들이라니…》

우리는 발끈해서 제각기 소리쳤다.

아바이는 그러는 우리를 재미있다는듯 내려다 보았다.

《괜찮아 그런 공명심이 없으면 여기서 일할 생각도 없을게야. 한번 이름을 떨쳐봐라. 공훈사양공 아무개, 영웅 아무개 하구말이야.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 공명심두 있는게지. 창조성없이 시키는 일이나 수직수직 하는건 난 반대다.》

《그럼 아바이두 우리가 공훈사양공이 될수 있다구 생각해요?》

《그야 물론이지.》

아바이의 어조에는 어린 딸들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아버지다운 너그름이 비껴있었다. 나는 이때라고 단정하며 송순이에게 눈짓을 했다. 송순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둘이 밤새워가며 토론한 《10년동안에 할 계획안》이였다.

《이건 뭐냐? 〈10년동안에 할 계획안〉! 허, 난 이런게 너희한테 있을줄은 뜻박이구나. 이런, 인민경제계획안처럼 그췌한결, 멋있어. 기사가 되구, 당원이 된다.》

반장아바이의 입에서 김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중요한게 빠졌어. 시집? 안갈테냐?》

《아바이두, 그것두 다 들어있어요. 반영은 안했지만…》

송순이가 얼른 대답하고는 점직한듯 혀를 쑥 내밀었다.

《좋아, 괜찮아. 난 너희들처럼 포부가 큰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럼 통과예요. 자요, 수표해줘요.》

《뭐 수표까지?》

반장아바이는 송순이가 쥐여준 만년필을 들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여기다두요.》

나도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어 수표할 자리를 꼭 짚어주었다. 아바이는 웃음을 거두지 못한채 제각기 내미는 수첩 한복판에 《박형식》이라고 또 박또박 써주었다.

《이젠 됐냐?》

《예, 고맙습니다. 아바이.》

우리는 아바이의 마디센 손을 약속이나 한듯 잡았다. 반장의 찬성이 계획실행의 첫공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처럼 인식되었던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그다음날로 온 목장에 짜-하니 퍼져갔다. 원체 손바닥같이 뽀드름한 골안이여서

아침에 무슨 일이 나지면 저녁밥상머리에서는 누구의 집에서나 이야기거리도 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처녀애들두 참 어벌뚝지가 크다고 혀를 내둘렀다.

목장에서는 사양공으로 뽑히운 처녀치고 10년을 채운적이 없었다. 10년도 못채우는 처녀사양공이여서 목장일꾼들은 사양공후비를 키우는데 낮을 돌렸다. 최대의 책임성과 자립성을 요구하는 사양공이여서 로동지도원을 비롯한 관리성원들은 사양공 한사람한사람을 금싸래기 팔라내듯해서 배치했다.

《출가도 앓은 장훈일 해야지.》

반장이 흐뭇이 내뱉는 말에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 멀리루 시집가지 앓구 여게 놀러앓는거 말이야.》

사양공처녀들은 7~8년쯤 일하다가는 도나 읍의 똑똑한 총각들에게 시집가는것이 기정사실로 되어버렸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오랜 목장이지만 20~30년의 경력을 가진 사양공을 단 한명도 남겨두지 않았던것이다.

우리가 되자! 30년, 40년 사양공으로 살자!

우리는 신들매를 단단히 조이고 돼지사양에 달라붙었다. 송순은 어찌나 손부리가 영글었는지 구질은 사양관리를 하면서도 짚검불 한오리 널리지 않게 하고 진거름물 한방울 텅기지 않았다. 하루종일 돼지시중을 드느라 고무공 튀듯 쿵쿵 뛰여다니면서도 작업복은 아침에 입은 그대로였다. 돼지우리도 어찌나 깨끗한지 농산반에서 거름치러 왔던 사람들이 《돼지우리가 맞니? 땍 굴러줘두 먹겠구나.》라고들 했다.

반장도 깨끗한 송순이를 뒤에서는 되게 칭찬하면서도 앞에서는 실똥한 기색으로 《너무 닥달대지 말아. 돼지란거야 제 동물에서 크는거지.》하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사양공일을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몇해 지나서부터 농장대학 축산학부를 다녔다.

《등교가서 댄 총각들과 눈맞추지 말아. 너희 신랑들은 내가 고르는중이다. 알았니?》

아바이는 세번째 등교수업을 받으러 갈 때 이런 말로 우리를 떠밀었다. 나는 속이 한줌만해서 췌는데 송순이가 한발 나서서 거수경례까지 붙이며 《알았습니다. 절대로 눈맞추지 않겠습니다.》하고 깔깔 웃어댔다. 그리고 우리가 표준에 넣은 총각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키는 큰편, 지식정도, 정당별,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등을 다섯가지로 련거하였더니 아바이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리고 한조항씩 따져보고나서 《저런, 공주 시집보내듯해야겠구나. 키는 큰편이라구? 키크면 싱겁다.》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야, 싱거우면 다시 가공할 여유가 있잖아요.》

아바이의 톱말에 송순이는 유쾌히 톱을 받았다.

《좋아, 전국을 뒤져서라도 내 녀석들을 찾아보자.》

송순은 《고맙습니다.》 하고 호호 웃었지만 나는 속이 졸아드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명시목장에서 수의사로 일하고있던 한 청년과 《눈을 맞추고》있었던것이다. 제대군인, 당원에 나 이도 알맞춤, 대학연구원생... 송순이가 말한 다섯가지조항에 다 맞는것은 아니지만 진지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나는 등교수업 받으러 가서도 아바이가 한 말이 생각나서 그 동무를 슬슬 피해 다녔다. 송순이가 내대신 몇번 만나고나서 나를 달구었다.

《얌전한 고양이와 반찬단지에 먼저 오른다더니... 그 동물 열나게 한건 누구야?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 약속해. 오늘중으로 만나. 응.》

《싫어, 안만나겠어.》

《야, 땡충이, 거게두 목장이야. 그래두 같은 부문이니 얼마나 다행이야. 만나지?!》

본인보다 더 안달아하는 송순이었으나 나는 등교기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끝내 안만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로 일이 터졌다. 그 동무가 목장까지 따라왔던것이다. 아예 결판을 낼 잡도리갈았다. 나는 더 숨을데가 없었다. 한대 칠듯이 펄펄 뛰며 노려보는 그 눈길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했다.

어느새 이 일을 안 아바이가 달려왔다.

《응, 우리 분이가 눈이 바로배졌거든. 마음에 들어. 명시목장 수의사라고. 내 얼른 분이를 보내 주지.》

반장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궁냥은 판데 있었다. 지배인을 내세워 명시목장의 안면있는 간부들을 다 동원해서 그 동무를 여기로 끌어올 잡도리를 한것이였다. 명시목장에서는 기둥을 몽청 뽑아가는게 말이 되는가고 하면서 처너나 빨리 보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우리 반장은 검질기기로 소문난 일군이였다. 아바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1년만에 그 동무가 우리한테로 왔다. 우리 목장의 일부 사람들은 실 따라 바늘이 왔다고 비웃었다. 그 동무는 그런 말에 귀도 안기울였다. 명시목장보다 조건이 불리하고 현대화되지 못한 우리 목장에서 수의일군이 자기 몫이 커졌다고 오히려 기뻐하는 눈치였다.

형제봉에 새벽노을이 불타던 어느날 어깨나란히 걸고있던 남편이 불쑥 말했다.

《난 형제봉목장이 맘에 들어. 더구나 저 봉우

리에 비긴 노을이 좋거든. 노을이 불탈 때 내 마음도 불탄단말이야. 일욕심으로 가슴이 그들먹해 지구.》

나도 남편의 눈길을 따라 형제봉에 아름답게 비긴 새벽노을을 바라보니 가슴 부풀어올랐다.

《분이, 우리 언제나 이렇게 새벽길을 걷자구. 남편저 새벽길을 걷는 사람만이 큰일을 할수 있 다구 했어. 본인 공훈사양공이 되구. <공훈사양공수첩> 결의대루 말이야. 나두 모범수의일군이 될 테야.》

나는 여느때없이 다감해진, 노을빛에 물든듯 불그레 상기된 남편의 얼굴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형제봉 금빛노을의 밝은 색조가 차츰 차츰의 아래로 번져내려오고있었다. 남편은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손으로 나의 작은 손을 꼭 감싸 잡았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시집보내고 도에 있는 오빠네와 살림을 합치였다. 말은 다 안했지만 남편이 《데릴사위》라는 소리를 들을가보아 부랴부랴 떠난것임을 짐작할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목장에 뿌리를 내렸다. 아바이의 말대로 표현하면 《앓은 장훈이》를 한셈이였다.

1년후 우리에게는 아이가 태어났다. 딸애였다. 반장은 내등에 업힌 어린 딸애를 얼리느라고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때서 《딱》소리를 내며 《애, 송순아, 너두 하나 봐놓구 <어데 있소.〉 말만 때려 분이내처럼 내 당장 데려다놓지 않으리.》 했다. 눈맞추지 말라고 이르던 말은 언제 했던가싶었다.

《신통히 빼물었군. 요것 봐라. 벌써 옷을줄 알구. <적지적작> 이 좋아. 송순인 하나 밋졌어. 분이처럼 <적지적작> 해라. 공훈사양공이 된 땀엔 늦어.》

아바이는 칭찬인지 조언인지 딱히 가슴이 안가는 말을 누구에게라 없이 했다.

《분이가 <적지적작> 했다면...》

송순은 또 무슨 말인지를 적당하게 꾸며낼 잡도리인듯 장난기어린 눈으로 반장을 보았다.

《좋아좋아. 넌 <적지적작> 하겠단 말이지. 다 좋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면...》

저녁에 남편한테 하루일을 《보고》하는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였다. 나는 반장 아바이가 한 말을 흉내내였다.

《<적지적작> 이라, 그 아바이 표현이 그럴듯한 데...》

남편은 싱글싱글 웃으며 나를 돌이보았다. 그리고 잠든 현주를 들여다보며 《잠자는 모양이 더 고와. 이제 우리 현주는 뭐가 될가, 과학자?》 하고 말하고는 잠시 동안은 두었다가 《배우? 당시

처럼 사양공? 그때에두 사양공이 있게 될가.》 하며 정겨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렇잖음.》

나는 30년, 40년 사양공으로 일하리라던 결심이 흐지부지되는것만 같아 조마조마해서 제격 말을 받았다.

《아마 그때 현대적인 고기공장에서 사양공들이 단추만 눌러떨거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미리 미리 일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현주앞에서는 별스레 말을 많이 하며 자기 일에 열성을 낼줄 아는 남편이 더더욱 정겨웁게 느껴졌다. 남편은 아기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를 보며 말은 일에 더욱 분발하는것이였다.

그런 남편이 딸애가 돌도 되기전에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겨울, 남편은 저수지의 얼음구멍에 빠진 아이들을 구원해내고는 그만 희생되있던것이다. 줄지에 나는 남편없는 녀자로, 현주는 아버지없는 아이로 되였다. 나는 병어리가 되어버렸다. 가벼운 고통은 말로 나타내지만 큰 고통은 침묵으로 표시된다는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집이 싫어졌다. 하루일을 끝내고서도 아무데고 있다가 어두워져서야 하는수 없이 현주를 업고 집에 들어서곤했다. 달빛에 창문이 번들거리는것을 보아도 마치 집이 나를 흘겨보는것 같이 느껴졌다. 남편이 이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송순이와 반장아바이가 여러모로 원심을 써주었지만 나는 끝내 축산반에서 나와 교환대와 마주앉게 되였다. 복잡하고 다방한 사양공일을 내놓고 조용하고 편안한 교환수일을 말아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목장사람들의 소박한 성의를 나는 두말 없이 받아들였던것이다....

3

《송순아, 나도 너처럼 오늘까지 처녀로 살았다면말이야. 가슴뻗힌 일도 없었을지 몰라. 현주 아버지 여기 와서 애만 쓰다가...》

나는 마음속에 틀고앉아 괴롭히던 심중을 털어놓았다.

송순은 《공훈사양공수첩》에서 손을 떼며 피곳 나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내 푸념을 끝까지 듣지 않은채 정색해서 가로챘다.

《너 무슨 소릴 해. 아바이도 널보고 〈적지적작〉 했다고 하잖았니. 그건 의로운 사람을 욕하는거야. 다신 그런 소릴 말어. 아바이가 들었던 큰일이다.》

송순은 어두운 표정을 가시지 못한채 다시 수첩에다 무엇인가 꼼꼼히 박아썼다. 그러는 그의 모습이 무척 돋보이며 더욱 서글픈 심정에 휩싸

이게 했다. 10년세월을 하루같이 사양공으로 변함없이 살고있는 송순이가 못견디게 부러웠다.

싱그러운 폴넴새가 함뿔 배인 작업복을 입고 《공훈사양공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놓고있는, 청춘의 열정과 삶의 희열에 넘쳐 웃고있는 송순이를 마주하고보니 불길같은 욕망이 나의 가슴에서 용솟음쳤다. 예전 그대로 송순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반장아바이의 편잔과 칭찬을 밥먹듯하고싶은 열망이 나의 몸을 달구었다.

《현주 할머니 편안하니?》

송순은 너무나 때늦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자신이 민망했던지 미안한 어조로 물었다.

《여전하셔. 봄철이어서 더 바빠하신단다.》

어제도 시어머니는 동네 오물장을 정돈하고 주변에 피마주를 박고 뒤울안에 호박을 심느라 하루해를 다 보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현주 할머니기 오셨다기에 네 뒤바라지나 착실히 할줄 알았지. 그렇게 부업에만 열성일줄은 몰랐어. 글썽 너무하지 않니. 현주 업은건 한번도 못봤어.》

송순은 입이 뿌루통해서 내쏘았다. 제 생각을 끝이끝대로 내쏘는 송순이앞에서 갑자기 시어머니를 두들릴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쩐지 우리 집에 온날밤 시어머니가 나의 두손을 꼭 잡고 젖은 목소리로 뇌이던 모습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랐다.

《아금아, 함께 지내자꾸나.》

여느 시어머니들과는 달리 머느리를 불러주는 그 말투가 나에게는 퍼그나 정답게 느껴졌다. 그 새 아들을 잃고 머리가 더 희어지고 주름살도 더 깊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설음이 북받쳤다.

《울이라, 녀자들은 불행을 눈물로 이긴다. 내 앞에선 실컷 울어라.》

시어머니는 싫게 우는 내 잔등을 어루쓰다듬으며 목메여 말쑼했다. 그리고 혼자말처럼 계속했다.

《내 오늘 그 녀석들을 봤다. 눈들이 새까만게 푹푹하게들 생겼더라. 다른 애들은 소년단경례를 불이는데 두 녀석만은 주뿔거리며 눈치만 보지 않겠니. 후- 짐작이 가더구나. 그 녀석들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몸이 막 달아오르더라.》

나는 시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였다. 이제는다 키워 사회앞에 떳떳이 내세웠던 아이들이였다.

《안되겠다. 당장 일감을 잡아야지...》

시어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온 동네를 채바퀴돌듯하며 개똥, 닭똥을 모아들이고 짹짹이 새끼도 꼬았다. 할머니가 있는 아이들은 한겨울동안 따뜻하게 집에서 지냈으나 현주만은 추운 날에도 내등에 입혀 탁아소에 나가야

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송순은 시어머니에 대한 의견을 감추지 않는 것이었다.

《송순아, 의논할게 있어.》

《뭘데? 말하렴.》

갑자기 말더듬이라도 된 듯한 나를 의아스럽게 보며 송순은 재우쳤다.

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꼼꼼히 생각한 것을 털어놓았다. 또다시 사양공이 되고 싶다고 ...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지?!》

송순은 환성을 지르며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다. 잠시 후에 반장아바이와 함께 달려왔다.

《원 애두... 선로를 보러 온다더니, 〈본가〉에 올텐 알리구 와야 해. 그래야 환영두 할게 아니냐.》

...탁아소에서 현주를 찾아가지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는 밥을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이래야 내가 이름지어놓은 《영양죽》이었다. 시어머니는 염소젖 한종지를 두고 끓여서 구수하고 달큰한 죽을 만들곤 했다.

《〈영양죽〉 이군요. 참 맛이 좋아요.》

《네가 좋다니 나두 좋구나. 생각할타이지. 흰밥에 고기반찬만이야 하겠나만...》

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손질한 작업복을 포개여 내앞에 내놓았다. 작업복우에는 《공훈사양공수첩》이 놓여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전류같은 그 무엇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조용히 울리는 시어머니의 말씨는 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네가 참 생각을 잘했다. 현주 애빌 생각해서 사람들모두가 우릴 생각해준다구 편히 살길 바라셔야 되겠냐. 우린 현주 애비 그림자가 돼야 해.》

4

축산반에 사양공으로 다시 나가는 실무적인 공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가 짬짬이 손질해준 작업복을 가방에 넣고 출근길에 올랐다. 가방속에는 《공훈사양공수첩》도 잊지 않고 넣었다. 시어머니는 말씨는 다하지 않았지만 변함없이 사양공으로 살기를 바라시었다. 그것은 반장아바이와 송순이 그리고 뜻밖에도 돌아간 현주 아버지도 바라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힘든 길이지만 기꺼이 나섰던 것이다.

사양공일은 나를 벅찬 로동의 선풍속에 휘감아 넣었다. 하루종일 말 몇마디로 굶배버리던 교환수일과는 판판 달랐다. 집은 집대로 분주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작은 목장을 꾸렸다. 마당 한옆에 돼지우리를 짓고 새끼돼지를 넣었다. 토방 한 끝엔 널판자로 개우리를 만들고 강아지도 두마리

나 안아왔다. 염소, 오리와 계사니, 두눈이 빨간 토끼도 가져왔다. 조용하던 우리 집은 온갖 생명이 차고 넘쳐 활기에 들끓고 소란스러웠다. 여기 저기서 제각기 꿀꿀, 멍멍, 짹짹, 매매 거렸다.

나는 시어머니가 초롱에 가득 끓여놓은 먹이를 제마끔 그릇에다 퍼주기만 하재도 바빴다. 아직 새끼시절이어서 그러지 먹성이 강해지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나를 초조감에 휩싸이게 했다.

《무슨 일이나 시작이 힘들지 하느라 미련이 트는 법이다. 그저 잠을 덜 자고 손을 더 놀리면 된다.》

시어머니의 몸에선 언제나 풀다래끼가 떨어지지 않았다. 벌판의 풀이 다 우리 대문으로 들어왔다. 누구의 입에서부터 나왔는지 우리 시어머니에게 《벌꿀이로친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비자루로 벌을 쓸듯이 풀이란 풀은 다 베어들인다는 데로부터 나온 호칭이었다. 시어머니는 짬짬이 밥을 일쿠었다. 목장으로 넘어가는 최목의 풀을 다 뽑고 그자리에 모아들인 거름을 내고 강냉이와 수수를 박았다. 그바람에 목장으로 꺾지르는 최목길이 없어졌다. 일에 바쁜 사양공들이 저도 모르게 들어섰다가는 어쩔수 없이 뒤번져진 흙을 다져놓으며 지나가기가 일쑤였다.

《날알먹는 사람들 같지 않군.》

다져진 발자국을 보며 시어머니는 몹시 노해서 말씀했다. 시어머니는 새끼를 내다가 최목에 일꾼 발두리를 빙 둘러쳤다. 멀리서부터 띄어보고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는수없이 우리 사양공들은 더 큰길을 따라 빙 에둘러 다녔다.

《오늘 지각은 〈벌꿀이로친네〉 때문이야. 글쎄 고개서 얼마나 나겠다구.》

《음에서 왜 왔대?! 아침마다 뜨물을 받아가느라 분주하게 대문을 두드리구, 여계저게 차단물을 만들구... 그저 부업에만 정신이 나갔어.》

일손뿐아니라 입까지 켜 축산반처녀들은 시어머니 일을 두고 로골적으로 비난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못쓴다. 그런 말은 망탕 하는게 아니야! 내 평생에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속 나쁜 사람 못봤다.》

어느새 우리의 말을 엿들은 반장아바이가 던지는 말에 처녀들은 자라목이 되었다.

반장은 그 길로 돼지두엄을 지고 최목에 나갔다. 들것으로 내가면 험하게 인차 끝날 일이였지만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큰 삼태기를 세운 지계에 담아지고 내가느라니 잔등이 온통 땀투성이였다.

우리의 지름길이었던 최목에선 곡식들이 푸르러갔다. 넓어진 밭새들이 바람에 흐느끼는것을 볼때마다 바쁜 우리 사양공들의 출근시간을 지연

시키는것 같아서 마음이 언짢았다.

《아금아, 이걸 좀 쳐매주렴.》

이런 내 마음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어느날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찾더니 온통 피자박이 된 왼손을 내밀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어야...》

나는 마음이 황황해져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찼었다. 시어머니는 해동갑하려고 덤벼치다가 호미날에 맞았노라고 레사롭게 말씀했지만 나는 고까운 마음을 누를수 없었다.

제발 집에서 현주나 봐주며 며느리의 뒤나 감당해주셨으면... 나이에 맞지 않게 온갖 짐승을 끌어들여 고생하지 말고 손녀와 며느리 시중에 재미를 보셨으면...

《좀 쉬세요. 어머니.》 하고 버릇처럼 하려던 나의 말이 목구멍안으로 찾아들었다. 시어머니가 늘쌍 하시던 말쑥이 귀전을 때렸기때문이었다.

《논 공은 없이두 일한 공이야 남지. 가만 앉아서 먹을건 하늬바람밖에 없다.》

그리고는 더욱 일손을 채우치는것이였다.

한낮에 큰닭이 꼬꼬덕 울어대면 파근파근한 닭알을 받아든 얼굴엔 웃음이 확 피어나곤하였다.

《이것 봐라. 현주 간식이 또 생겼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할 때면 나의 마음은 무척 즐거웠다. 차츰 시어머니의 일에 리해가 가고 집일에 재미도 붙일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속깊이를 다 가늠할수는 없었다.

온종일 뛰고 또 뛰어도 일손이 딸리였다. 당장 주저앉고싶을만큼 피로감이 온몸을 엄습할 때면 힘겹고 고달픈 마음을 누구도 알리지 못하는것만 같은 허전감이 갈마들곤했다. 그 누구한테서도 실전한 애무는거녕 위로의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항시 나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날도 마음먹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지만 시어머니의 잠자리는 벌써 비어있었다. 밥을 찾히는 구수한 냄새... 어야, 또 늦었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직 채 밀려나지 않은 잠기로 하여 나는 선뜻 부엌에 내려설수가 없었다. 현주 아버지 앞이라면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질이라도 하련만... 지난 생활이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졌다. 아무걸 해놓아도 맛있게 들곤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깨나란히 일터로 다니곤하던 그 모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다. 얼마나 좋은 때였나... 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시어머니는 집둘레의 강녕이들에 물을 주고있었다. 강녕이잎새들이 가물을 타느라 초들초들 말랐다. 나는 하품조차 할새없이 또 하루의 바쁜 일과에 뛰어들었다. 현주가 깨여날세라 방안을 정돈하고 마당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집짐승우

리들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먹이를 뿌려주었다. 매매... 염소가 방울을 흔들며 어서 빨리 풀판에 가자고 재촉했다. 뜨물통을 보니 비어있었다. 나는 염소를 끌고 한손에는 빈 뜨물통을 들고 나섰다. 뜨물을 받으러 가는 길에 염소를 매고 오려는것이였다. 요즘엔 한걸음에 두세가지 일하기가 보통이였다. 뜨물을 받아오는 길에 토끼풀까지 뜯으면 단번에 세가지 일을 해치우는것으로 된다.

시어머니가 내 일을 칭찬해주곤했다.

《젊은이가 다르구나. 번개불에 콩볶아먹을 일 본새야. 난 마음만 앞서지 오금이 따라서지 않는걸...》

시어머니의 칭찬을 바란건 아니였지만 정작 받고보면 기다렸던듯 마음이 즐거웠다.

남실거리는 바게뜨를 들고 급히게 걸음을 옮기던 나는 아뿔사! 몸의 균형을 잃고 쿵- 모재비로 나가넘어졌다.

《어야나, 이걸 어쩌나.》 맥빠진 탄식이 절로 나왔다. 바게뜨에 동동 떠돌던 씨가 앉기 시작한 호박숙과 오이꽂지, 강녕이쌀논이 온몸에 튀어올랐다. 반사적으로 그것을 털어버리던 나는 그만 에야 무춤 놀랐다. 바게뜨를 잡았던 손이 막 저리다싶이 아파났다. 넘어질 때 다쳤는지 피가 줄줄 흐르는데 흙이 엉겨붙어있었다. 까닭모를 설음이 목구멍을 짹 메웠다. 나는 그대로 퍼더버리고앉아 일어설 생각을 못했다.

눈앞에 불쑥 현주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런 때면 어린아이 달래듯하는 남편의 정다운 음성이 귀결에 울리는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울렸다.

《몸시 아프니?! 에구 피가 나누나.》

현주 아버지를 그려 순간이나마 환각에 빠졌던 나는 황황히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닦았다. 아픔을 참고 레사로운 낮빛을 지으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아픔으로 하여 자꾸만 얼굴이 찌프려졌다. 시어머니는 길짱구풀을 뜯어 짓이겨서 상처에 붙여주고나서 말씀했다.

《늦을것 같아 아침밥을 싸가지고 나오됐다.》

시어머니는 풀밭에 놓인 보자기를 가리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아침출근이 늦을가보아 밥부터 꾸러가지고 나온것이 아닌가. 일을 많이 벌리면서도 어느 일 하나 튀지 않도록 매사에 세심하고 빈틈없는 시어머니의 관심과 정성이 무척 고마웠다. 어머니의 의향을 깨달은 순간 나는 뉘름 일어나 옷을 툭툭 털었다. 시어머니가 나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었다.

《아금아, 사람이 한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별 일이 다 있다. 이 풀을 보렴. 한해 사는 이 풀도 가

몹, 장마를 다 겪고서야 열매를 맺는다. 하물며 수십년을 넘겨사는 사람들에겐 무슨 일인들 없겠니. 문젠 마음을 잘 먹는거다 옛날부터 지어먹은 마음 사흘을 못간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도 자주 지어먹으면 되지 않겠니.

매일 밥도 지어먹을라니... 마음먹는거야 품도 시간도 드는것이 없는데... 어땠니? 내 말이.》

나는 시어머니의 말뜻을 채 음미하지 못한채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다. 조금 있으면 길우에 일터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조용하였다. 시어머니가 서둘러준탕으로 나는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큰길로 호젓이 걷는 나의 마음은 방금전까지는 달리 퍼그나 여유있고 침착하였다.

시어머니의 말씨가 귀가에 쟁쟁하였다... 한해 살이풀도 가뭄, 장마 다 겪는다. 사흘 건너 한번씩 마음을 지어 먹으면 된다...

그날 어떻게 된 일인지 매일 힘들게 넘기던 작업공정이 험하게 느껴졌다.

5

《분이, 넌 참 용쿠나. 시집가면 누구나 그만두는 일을 넌 디시 찾아와서 말아가지구... 한번 놓았던 일이니 더 힘들텐데.》

언제나처럼 제일먼저 나와 일터를 돌아보던 반장아비이가 나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좀 혈한 일자리로 옮겨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번에 머리를 저었다. 아마 어제쯤 권유했어도 기우뚱했을런지 모른다. 현주와 집일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는것은 사실이지만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 마음 먹는거야 밥을 먹는것처럼 매일 매끼 먹는것도 아니고 품과 시간이 따로 드는것도 아닌데...

송순은 내 일을 제일로 기뻐하고 찬동하였다.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탓이야. 미음먹고 달라붙으면 힘든 일이 따로 없어. 힘들면 어때, 이〈범 아지미〉가 있잖니.》

그리고는 때마침 발치에서 꿀꿀대는 새끼돼지를 냉큼 들어 긴 코주둥이에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었다.

《앤 구접스레...》

내가 청원하자 그앤 또 까르르 웃으며 《나도 어머니가 됐으면... 내가 낳은 아긴 어떻게 생겼을가?!》 하고는 온 목장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그애의 웃음소리는 어찌나 청아하고 명랑한지 결의 사람들도 덩달아 웃지 않을수 없게 하곤하였다. 신비스러울만치 락판에 넘치게 하는 그의 웃음소리에 나는 멋도 모르고 따라웃다가 방금 한 그의 말뜻을 되새겨보았다.

송순은 서른살이 되도록 어느 한 총각에 대해

서도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다. 인물품고 알뜰한 처녀에게 따르는 총각이 없다는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은 그의 어머니때문이었다. 송순이 어머니는 딸을 무섭게 통제하였다. 경비날마저 엄격히 단속하였다. 딸의 경비날을 력서에 표식해두었다가 그 날에만 밤출입을 허락하곤하였다. 혹 사정있는 동무를 대신해서 송순이를 경비세우려면 내가 보증인으로 나서서 어머니를 미리 만나야 했다. 어머니는 내 말만은 잘 믿어주었다.

어머니의 통제를 벗어난 그런 날이면 송순은 숨이 턱에 닿아 뛰어와서는 밖에서부터 깔깔 웃으며 들어왔다.

《어떻게?》

송순이가 너무도 일찍 교대나오는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가 뭐야, 언제 밥을 해먹구 설것이까지 말끔히 치우겠니. 낮에 남겨놓았던 밥을 물에 말아먹구 뽕소니쳐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닭은 강냉이를 와르르 털어놓았다.

《너 내가 엄마한데 꼼짝 못하는걸 말하문 안돼.》

나는 물론이라는듯 고개를 끄덕여보이며 절로 피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시집갈 나이가 지나도록 어머니 통제속에서 지내는 그가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매력있어보이기도 했다. 목장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벌써 아는지가 오랬다.

《행, 시집은 어떻게 보내겠소. 아마 시집도 따라갈지 몰라.》

《제 딸을 무슨 공주로 안다니까. 그러다 이제 고스란히 늙히는걸 봐. 늙은 오인 지쳐나 먹지. 처녀 늙은건 어쩐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먹은 처녀들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것이 옳다고 수고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너무 유치하다고 비난했다.

정말 송순이 어머니는 너무히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사위감을 고르길래 그렇듯 한본새로 딸금새를 높이기만 할가.

여전한것은 송순이었다. 웃고 떠들고 닭고 쓸고...닭고 쓸고 웃고 떠들고... 송순이에게는 락판만이 있었고 비판이란 어울리지 않았다. 이따금 내가 우울해지면 《웃어, 웃으라니까, 그것봐, 넌 웃어야 더 고와. 이건 내 말인데 들어봐. 〈웃는자에게 행복이 울지어다.〉 호호호...》 하고 송순은 웃어제끼는데 그때면 나 역시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말은 영화에서 나오는 전도사들의 어조를 흉내낸듯해서 더구나 허리부러져라 웃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낮에 송순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몹시 흥분하여 나에게 편지 한장을 들려주었다. 조선인민군우편함 대호, 활달한 달필...

(그럼 송순이 대상자가?!)

번개치듯 떠오르는 생각과 함께 말할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나는 《승낙했어요?》 하고 묻기부터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반장네 둘째야. 현주 할머니가 발을 놓았지. 만아들네 부대에서 복무하고있으니까... 사람이야 제 아버지질 닮아서 진국이지. 어느새 오고간 편지가 이만큼이나 와있어. 그애의 책상서랍에 말이지.》

송순이 어머니는 허공을 뿔재듯 손가락을 펴보였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 환희의 물결이 확 피어올랐다.

《어머닌 헛수풀 했군요.》

나는 재미있다는듯 어머니를 시까슬렀다.

그러길 잘했지. 이런 총각이문야 열백번 환영하겠다. 난 현주 할머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이 팔쩍 든다니까. 그 사람은 영웅감이야. 내가 채친거야 이런 사위를 얻느라구 그런거지.》

어머니는 만족스러운듯 호호호하 웃어댔다. 나도 웃으며 진심으로 송순이의 일을 기뻐했다.

《아직 말내지 말라구. 송순이에게두 안책 말구. 난 반승낙두 안했어. 사내들이란건 처음부터 싹싹이 굴면 제 난것만 안다니까. 고자세가 좋아. 그제 없으면야 너잔가.》

나는 또 웃었다. 나는 웃을 때마다 언제인가 송순이가 설교한 그 특유한 어조의 말이 생각나곤했다. 정말이지 웃기 잘하는 송순이기에 행복은 한발자국 두발자국 찾아오는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웃느라면 나한테도 그 보이지 않는 행복이 조심조심 찾아오게 될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도리머리질 했다. 현주 아버지가 다시 살아돌아올수는 없는것이니...

송순은 왜 편지가 한뼘이나 쌓이도록 나한테 말 한마디 안했을까. 송순이가 정말 그 동무를 사랑하고있었구나. 참사람을 누구도 모르게 고이 간직하려고 하는것이 보통 련인들의 심정이다. 때로 가슴속에 묻어두기 아름답 때 친한 동무를 찾아 숨김없이 터놓으며 사랑과 행복을 고백하는것이리라.

하지만 송순인 내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자기의 사랑과 기쁨을 선뜻 터놓을수 없었을거야.

고까웁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면서 어느덧 송순의 심정이 다감하게 안겨왔다. 송순이 어머니가 말내지 말라고 오금을 박았으나 어떻게나 마음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지 나는 참을수 없었다. 짍을 봐서 송순이를 불러내어 알아보리라 맘속으로 버려졌다.

한낮의 해변속에서 해바라기를하던 돼지들이

어느새 제 우리로 들어가버렸다.

팔랑팔랑... 여무진 종소리자 기분 좋게 울렸다.

어느덧 저녁먹이시간이 된것이였다.

돼지먹이를 주고나시 허리 펼 틈이 생기자 나는 짐짓 엄한 어조로 불쑥 물었다.

《송순아, 너 나한테 숨긴게 있지?》

나한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송순이인지라 불에 덴듯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이윽도록 나의 눈길과 마주쳤던 그의 두눈에 눈물이 핑 어리는듯싶었다.

《분이야, 용서해. 차마 그 말만은... 네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더라. 네가 안다구... 그래두 난 말할수 없었어...》

송순의 갈린 음성을 토막토막 끊기였다. 아마도 시어머니 역시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송순이와 같은 심정이여서 나에게서는 알리지 않았을것이다. 그 애투한 마음들이 고마와 나는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6

저녁어스름이 목장끝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뒤겨두매를 말끔히 하려고 서둘러댔다. 이럴 때면 비둘기 마음 콩밭에만 간다고 현주생각뿐이다. 마음이 급하다못해 자꾸 헛손질이 나갔다. 그러지않아도 송순이가 아까부터 계속 재촉했다.

《빨리 가보라는데, 야! 이젠 됐어.》

나는 그래그래 하면서도 매번 뒤일을 맡기기가 미안하여 마당을 쓸고 조리칸까지 거두었다.

《넌 정말, 현주 혼자 남았겠어. 에이, 내가 먼저 가야지.》

송순인 당장 나보다 앞설 차비였다.

탁아소에서 보육원들은 애기어머니들이 지정된 시간과 질서를 지키도록 이따금 일깨워주곤했다. 그들은 퇴근시간전에 아기를 찾아가는 부모들을 좋지 않게 여기지만 늦게 오는 어머니들을 더 나쁘게 말했다. 많은 아이들속에서 먼저 뿔혀간 아이는 으쓱하여 어머니 잔등에서 버들썩대지만 남은 아이들은 출입문만 초조히 바라보며 주눅이 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늦게 오는 애기어머니들을 단단히 단속하곤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모든 사정을 아이들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는것이 탁아소의 요구였다. 송순은 처녀지만 이 사정을 잘 알고있어 나보다 더 바빠하곤했다.

《할머니가 업어갔을게야.》

나는 송순이를 안심시키려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갑자기 마음이 황황해졌다. 텅 빈탁아소에 혼자 남아서 울고있을 현주가 눈앞에 삼삼하게 떠올라서였다.

《피, 데려갔을게 뭐야. 두구봐라. 혼자 있지 않나?》

송순은 손주보다 부업에 신경을 더 쓰는 시어머니를 빗대고 밀하며 대바람에 입을 빼죽 내밀었다.

할머니가 데려갔을게 뭐냐고 역정을 쓰던 송순의 말이 사실이었다. 탁아소에 들리니 현주는 책임보육원의 잔등에 업혀 쉼쉼 잠들어있었다. 그래도 혹시… 하고 시어머니한테 기대하였던것이 허망한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마음속이 텅 빈것처럼 허전하였다. 보육원을 대하기가 먼구스럼기 그지없었다.

《현주 엄마, 미안해 말어. 도리어 우리가 더 미안한걸. 글썄 이것 보라구. 현주 할머니가 뭘 가져왔나.》

책임보육원은 나를 영양칸으로 이끌었다. 넓은 영양칸의 조리대우에 눈에 익은 짜리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바구니에 무드기 담긴 주먹같은 닭알들중에서 한알을 들어 매만지며 책임보육원은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글썄 이 많은걸 우리 애들한테 먹이라누만. 할머니 손이 정말 걸어. 다른건 말구라도 지붕에 올라간 호박농사만 봐두… 오물터에 피마준 어쩔구… 현주는 걱정말라구.》

탁아소계단을 내리는 나의 온몸에 시어머님에 대한 고마움과 후더운 감정이 전류처럼 흘러들었다.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정성바쳐 기르는 돼지들도 명절때 형제봉초소의 인민군대동무들에게 보내주려 하는거구, 젓짜는 염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른다는것을… 나는 가슴이 뻐개질듯 벅차올랐다.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모르고 살아온 자신이 알미를 지경이었다.

베개에 귀만 붙이면 단잠에 들곤하던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하여 그날 잠들지 못하고 등싱거렸다.

별판의 풀을 쓸듯이 베여들여 짐승을 기르고 지름길을 막고 공지를 가꾸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가슴 저리도록 존경심을 불러오며 오래도록 눈앞에 밝혀왔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위는 잠잠한데 풀벌레소리만이 여름밤의 정취를 돈고있었다. 웬일인지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 일이 궁급하여 살며시 눈을 떴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눕지 않고 잠든 현주의 옆에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나는 상반신을 일으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가슴이 후두두 뼉다. 어머니의 무릎에는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이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도로 누웠다. 시어머니를 방해하고싶지 않았다. 그저 일밖에 몰라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원망까지 들을 때가있는 시어머의 가슴 한복판에 저 아들이 살아

숨쉬고있었을것이다.

시어머니의 깊은 심중을 나는 여태 모르고 살아왔구나… 무력무력 자라는 현주를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저 무심히 들어넘기곤하였으니… 《어쩔 제 애빌 꼭 먹구 게웠어. 애비도 요만해선 꼭 이랬다니까…》라고 하곤하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의 뇌리를 치는것이였다.

반장아바이는 정말 좋은분이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나는 시어머니와 한가마밥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의 진정을 다는 모르고 지냈는데 어찌면 반장아바이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죄되는 마음뿐이 나의 가슴속에 차올랐다.

7

황혼이 깃드는 저녁길은 일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나는 조용한곳을 찾아 최쪽에 나섰다. 한여름 넓은 잎새를 펼쳤던 최쪽의 강냉이대들에는 팔뚝같은 이삭들이 두개씩이나 엮혀있었다. 비자루를 거꾸로 세운듯한 붉은 수수이삭들에는 방금 튀어나올듯 통통 여문 수수알들이 소담하게 박혀있다. 시어머니의 노력이 이삭으로 익어가고있었다.

불쑥 반장아바이의 말이 귀전에 울렸다.

《내 평생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속 검은 사람 못봤다.》

반장아바이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아들없는 슬픔은 조금도 내색치 않고 오히려 나를 걸음걸을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엿저녁 일이 되살아오르며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시어머니는 지붕에 덩이덩이 주렁진채로 누렇게 익어가는 호박을 손꼽아 세여보시였다. 모두 쉼다섯개였다. 우리 집 호박을 보고 호박무게에 지붕이 주저앉을것 같다고 한 익살꾼들의 말을 상기하며 나도 흐뭇한 심정에 휩싸인채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었다.

《모두 잘 익혀서 호박곰을 해야겠다. 강행군하느라 수고많은 너희 작업반사람들께 하나씩 대접하문 어찌나.》

나는 닭곰, 토끼곰 소리는 들었지만 호박곰이란 말은 처음인지라 의아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호박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다.

《꼭지 있는덜 도려내구 속을 파낸 다음 엿, 미꾸라지, 찹쌀을 두고 쪄내면 그제 곧 호박곰이지. 닭곰, 토끼곰이 울고 갈게다.》

엿은 수수농사 지은걸로 집에서 달이면 되고 미꾸라지도 논고를 뒤희면 한바께쓰는 쉽게 잡는다는것이였다.

나는 마당 한켠에 서서 달빛을 받아 늦동이나냥 번쩍거리는 호박들을 담아인 지붕이며 유리창

문들이 달린 벽체며 세멘트로 반듯하게 미장을 한 토방이며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낯선듯하고 허렁청해보이던 우리 집, 번들거리던 창문들조차 나를 흘겨보는것만 같던 집이 아니었던가. 그렇던 집이 오늘은 달빛에 정답게 빛나며 나를 애무해주고 창문들도 별빛을 받아 반짝이며 어서 들어오라 손저어 부르는것만 같았다. 나는 별스레 아늑해보이는 집안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다.

《참, 편지가 왔더라.》

어머니는 품속에서 엽서를 꺼내었다.

《예술학원에서, 김봉남 올림》

김봉남, 누굴까? 끝내 생각해내지 못한채 편지를 뜯었다.

《아지미, 최웅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예술학원에서 공부할수 있겠나요. 귀가에 아저씨 말씀이 쟁쟁합니다.

《이너석들, 공부는 안하구 얼음만 지쳐?》

얼음구멍에서 나를 어깨에 떠메고 하신 말씀이 예요.》

나는 아차하고 이마를 쳤다. 탁아소의 현주한테는 때없이 찾아다니면서도 나만 보면 멀리서부터 비실비실 피하던 애다. 그애가 바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여왔다. 나는 잠시 숨을 몰아쉬며 고르지 못한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다.

《학원에 오는 날 아지미 만나려 집에 갔됐어요. 대문앞에까지 가면서도 제발 아지미가 안계셨으면 했어요. 꼭 만나 인사를 드리고싶었으나 안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아지미, 아저씨와 아지미의 땀이 스민 우리 형제봉목장을 자랑높이 노래할테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현주가 학교갈 때 제가 손뽕금은 배워주겠어요. 전 현주의 오빠가 되겠어요. 승낙하신다면... 아지미, 편지를 보내주세요.》

나는 갑자기 현훈증을 느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선듯한 환희로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현주 아버지, 보셨지요? 얼마나 대견해요. 글쎄 현주의 오빠가 되고 우리 목장을 노래하겠대요. 전 당신이 우리결을 떠났다고 생각질 않아요. 현주가 자라구, 봉남이랑 그애들이 있구 당신의 뒤를 훌륭하게 이을거예요.》

나는 《공훈사양공수첩》을 펼쳐보며 남편과 속삭이였다.

(걱정말이요. 우리가 약속한대로 일은 다 잘될거예요. 올해 새끼돼지생산도 다섯마리나 초과했어요.)

《어디서 온 편지냐?》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올라오던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시어머

니에게 편지를 읽어드렸다. 왜서인지 자꾸 떠들거리게 되었다.

《원, 애들두... 회답을 보내주렴...》 그리고는 이윽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혼자밀쓰처럼 무겁게 뇌이였다. 《봉남이랑 봐서두 현주 애비 뭉까지 합쳐살며 일해야 하구말구. 그래야 현주 애비 이름두 빛나는거구.》

시어머니는 더 말은 잊지 못하고 눈만 습벅였다.

나는 봉남에게 회답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 달빛밝은 가을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앞산에서 울어에는 소쩍새소리만이 여운을 끌며 소쩍소쩍 나의 펜을 재촉하는듯싶었다. 나는 펜을 고무어잡은채 한줄도 쓰지 못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들었다.

아, 이 가을밤이 지새도록 봉남에게 쓰고싶었다.

그애에게 힘이 되는 글을... 우리 시어머니와 반장아바이에 대해서도, 나의 친우 송순이에 대해서도... 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 너도 꼭 훌륭한 나라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고 쓰고 또 쓰고싶었다.

이 좋은 사람들을 키워낸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쳐야 한다고 절절하게 쓰고싶었다. 그러나 생각만 깊어질뿐 선뜻 펜을 달리지 못하였다.

×

다음날 이른아침 나는 송순에게 봉남이한테서 온 편지이야기를 하였다. 그처럼 다감하고 락천적이고 웃기 질하는 송순이건만 이윽도록 아무 말없이 걸기만 했다. 진중한 낮빛이었다.

형제봉에 새벽노을이 불타고있었다. 눈부신 금빛의 밝고 선명한 색조가 봉우리로부터 산아래로 발뽕발뽕 번져내려온다.

갈린듯한 송순의 음성은 전혀 딴 목소리 같았다.

《그래 분이야, 봉남이랑을 봐서두 우린 저 형제봉처럼 이 땅에 끄떡없이 뿌리박구 우뚝 서야 해. 그러자면 공훈사양공이 돼야 해. 그러구...》

송순은 가슴이 달아오른듯 내손을 꼭 잡았다. 불현듯 현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언제인가 남편도 형제봉의 금빛노을을 마중해 걸으면서 이렇게 내 손을 꼭 잡아주었었지. 형제봉의 새벽노을속에 남편의 얼굴이 우뚝이 떠오르고 언제나 남편 저 새벽길을 걷자던 정겨운 음성이 귀가에 쟁쟁하여 가슴이 뭉클하였다.

《안심하세요 현주 아버지, 꼭 당부대로 살겠어요.》

나는 이렇게 남편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었다.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참신하게 보여준 생동한 형상

명일식

혁명적랑만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확고하며 승리의 신심이 가득차있는 승리자들만이 가지고있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활기있고 명랑하고 락천적인것은 그들이 모두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고 자기가 수행하고있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으며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을 때만이 혁명적랑만을 안고서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는것 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누가 승리자가 되고 누가 패배자가 되는가 하는것은 누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혁명적랑만에 넘쳐 살고있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사람들이 혁명적랑만에 넘쳐 희광차게 생활하는 문제는 시련에 찬 오늘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 올해에 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시대의 절박한 이 요구는 사상전선의, 강위력한 무기인 주체문화앞에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적랑만을 안겨주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형상한 사상에 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놓고볼 때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은 혁명적랑만에 넘쳐있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시대의 높은 요구에 맞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잘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매우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있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주인공들의 성격은 단편소설 《보통날의 하루》(《조선문학》 주체87년 8호 김창수)의 주인공 정우, 단편소설 《5중대 방위목표》(《조선문학》 주체87년 1호 전인광)의 주인공 김윤희,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조선문학》 주체87년 1호 리성식)의 주인공 림성철과 송경심반장, 실화

문학 《푸른 섬광》(단행본 《빛나는 로정》 김광남)의 김금순의 성격형상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혁명적인 랑만을 안고서 활기있고 명랑하고 락천적인 삶을 누리고있는 전형적인 주인공들의 성격을 깊이 음미해보고 분석해놓고보면 우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않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그들의 무한한 헌신적복무정신이 안겨온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고있는 인간들은 다 자기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절망적인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들에게서 혁명적랑만이란 털끝만큼도 있을수 없다.

오직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간들에게서만 혁명적랑만이 있고 신념과 락관이 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간들에게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을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자기 한몸을 스스로 내대며 부닥치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내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해내는것이다.

과연 그 무엇이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래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자기 힘에 대한 드높이는 억척같은 신념인것이다.

래일의 승리에 대한 그 확신과 억척같은 신념의 뿌리는 바로 우리 장군님이신것이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리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이겨내며 승리한다는 이 철리가 심장속깊이 뿌리박혀있는것이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게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성격을 단편소설 《5중대 방위목표》의 주인공 김윤희에게서 찾아볼수 있다.

김윤희는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오늘까지 조국이 가장 어렵고 힘든곳마다에 자기 한몸을 바쳐 삶을 빛내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이다.

김윤희에게 5중대 방위목표라는 말이 붙은것은 그가 남달리 키가 커서 남들의 눈에 잘 보인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보다는 그가 군사복무할 때부

터 군사규정 준수에서나 대렬적면모에서 그리고 무기

기술기재준비상태에서도 중대의 거울이고 모범이었을뿐아니라 어려운 전투임무수행에 언제나 한몫바쳐 중대의 앞장에서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잘 싸운데 대한 상징이라고 볼수 있다.

김운호의 헌신적복무정신은 문산동북쪽에 위치한 백악산을 적들보다 먼저 점령하라는 긴급전투명령을 받고 적들의 반공격을 격퇴하는 전투의 맨 앞장에서 사생결단의 혈투를 벌린데서와 자기 생명을 바쳐 적들의 유일한 퇴로인 쇠바줄다리를 파괴할 때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김운호는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곳에 스스로 한몫을 바쳐 그렇게 살고 있다.

오늘날 김운호의 헌신적복무정신은 북부고원에 자리잡은 《人》 수력발전소에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북부고원지대에 자리잡은 설천령너머에 수억톤의 물이 고여있는 큰 호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호수의 물은 《죽은 물》로 고여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있었다.

이 《죽은 물》을 전력생산에 리용하여 《살아있는 물》로 만들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고난의 행군》을 겪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순간도 미룰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패리해를 내려왔던 수력발전소지도국 김석하부국장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업태도에 의하여 중단되게 된다.

여기에는 또한 일정하게 여러가지 조건과 애로들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큰 규모의 도중취수구를 제작하는데 수백톤의 방대한 설비가 요구되었고 레년에 보기 드물게 눈이 많이 쌓인데다 대소한을 앞둔 강추위때문이었다.

김석하부국장은 심각한 론의끝에 눈이 녹은 봄에 나가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짓고 국으로 올라갔다.

김석하부국장으로 말하면 전쟁시기 화선에서 소환되어 전력설계사업소에 배치되어 지금까지 수십년간 일하면서 수백건의 혁신적발명과 창의 고안을 내놓아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석하는 사업과 생활에서 자기에 대한 요구성이 높으며 기술문제해결에서도 당당히 자기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일군으로서 《해부학적일군》, 《메스》, 《지성의 메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김석하부국장이 실패리해를

하고서 내린 결론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응당한것으로만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김석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신의》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김석하로 하여금 자기의 평생의 자부를 심각히 돌이켜보게 하는 《중대사건》이 바로 김운호에 의하여 벌어지게 된다.

이 《중대사건》은 김석하의 평생자부를 뒤집어 놓은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누가 진실로 우리 당의 의도대로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기지고 사는 참인간이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진짜배기 일군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 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

김운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석하의 본대장으로서 전투임무수행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앞장에 섬으로써 5중대 방위목표로 불리웠을뿐아니라 오늘은 수억톤의 《죽은 물》을 《살아있는 물》로 전변시키는 큰 의의를 가지는 수력발전문제해결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으로 살고 있는 진짜배기 참인간으로서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김운호는 중요한 공사를 봄으로 미루게 한것을 비롯하여 부국장이 내려와서 료해하고 대책한 문제들을 뒤집어놓는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았다.

김석하부국장은 어려운 조건앞에서 무릎을 꿇고 중요한 공사를 봄으로 미루었지만 김운호는 보름안으로 끝낼 대담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 혁신안은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혁신안이 아니라 심장속에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자기를 다 바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한 그의 신념과 의지의 산물이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의 발현이다.

김운호의 이러한 성격적면모는 그가 총국에 보낸 다음의 편지구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겨울조건에 빙자한 그런 결정은 내려와보지 않고도 우에서 얼마든지 내릴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려와 실패를 료해할 때 왜 몇몇 기술일군들의 말만 듣고 너무도 쉽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그 협의회는 응당 무조건 해야 하며 할수 있다는 립장과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심지에 불을 지피면 방도는 반드시 찾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놈들과 싸울 때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를 앞에 놓고 기능성부터 타산하고 나섰습니까? 기어이 침략자를 몰아내고 우리 조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정신으로 나섰기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봉쇄압

살하자고 이발을 갈며 덤벼드는 오늘 그때의 그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다.

심장속깊이에 이런 신념과 의지가 있기에 동해안의 수성강하류에서 작업하는 수백톤이나 되는 준첩선을 해발 1,300이나 되는 산정호수까지 끌어올릴 대담한 착상을 하고 그 공사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이처럼 김윤희는 전화의 그날에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당의 요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무조

건적인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결사의 각오를 가

지고 결린 문제해결에 서슴없이 뛰여드는것이다.

이처럼 김윤희는 신념과 의지의 인간, 량만적인

성격으로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미래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량만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에 자기를 스스로 바치고있는 이런 주인공은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의 림성철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다.

송경심반장이 마음속으로 따르며 열렬하게 사랑 하는 현지체협생 림성철은 쌀 한알한알 생산하는 것을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원썬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으로 겪고있는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내 조국을 지키는 《총포알》이라 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생을 농업전선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하여 어려운 농업전선에 자기를 진심으로 바치고고있는 그의 뜨거운 마음은 다음의 그의 대사들이 잘 말하여준다.

《식량!... 난 이것을 오늘의 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내 조국을 지키는 총포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총포알〉을 마련하는 농업이상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림성철의 이 말에 송경심이라도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는다.

《웁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전쟁때 총을 잡고 전선으로 나갔듯이 오늘날 손에 쟁기를 쥐고 논밭에 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할줄 아는 공민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기슴뜨거운 말들인가!

이 말속에는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한 청춘들의 뜨거운 심장의 피가 높이 고동치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보통날의 하루》에서 주인공 정우의

성격형상도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단편소설은 제목이 말해주고있는것처럼 레사롭게 흘러가는 평범한 보통날의 하루를 놓고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참으로 의의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생활속에 자기를 참되게 바치고있는 주인공 정우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해주고있다.

정우는 벽찬 1만세대 수도건설장의 평범한 운전사이다.

하지만 그는 수도건설장의 거센 숨결을 안고 훌륭하게 변모될 수도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분과초를 쪼개기며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스스로 다 바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전형이다.

단편소설은 그러한 정우의 성격을 독재인수지도원인 석호와와 류다른 인간관계속에서 깊이있게 해명해주고있다.

단편소설의 사건은 정우가 수도건설장으로 가는 통나무목재를 먼저 실고가는가 아니면 그의 애인인 금단반장을 비롯한 이곳 림산마을사람들이 지성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먼저 실고 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다.

림산마을의 금단이네는 하루빨리 염소, 돼지, 감자, 콩, 강냉이와 같은 지원물자를 먼저 실어보내려 하고 운전사인 정우는 그것을 반대하고 수도건설장에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통나무부터 먼저 실고가겠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분류가 생겨 정우의 애인인 금단반장은 안타까와 울기까지 한다.

수도건설장에 통나무를 보장해야 할 임무를 맡은 석호지도원까지도 후방사업은 정치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원물자부터 먼저 실어보내려고 한다. 그는 벌써 전화로 수도건설후방책임일군에게 통나무보다 먼저 지원물자를 보낸다는 승인까지 받고서 정우에게 지령을 떨구려고 한다.

그렇지만 정우의 립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완강해진다.

정우와 석호지도원사이에 생긴 이 견해의 차이는 단순한 립장의 간격이 아니라 누가 진정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미래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기지고서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해 자기를 진심으로 바치는가 하는데서 온 너무도 대조되는 사상정신적인 차이인것이다.

그때문에 정우는 석호지도원에게 지원물자를 먼저 실고가자고 권고하면서 지난날에 것처럼 훌륭하게 살아오던 옛 참모장시절의 그때 그 호랑이로 남아있으라고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말한다.

《...그리구 요즘 불같은 세월에... 요썸이야, 하

루쫘이야 하며 서로 눈감아주는 사이 나라일이 손해볼걸 생각하면... 글썄 저 혼자 증뿔나게 그런다고 웃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참모장동지, 참모장동지가 그렇게 살적에 우리 돌격대일이 얼마나 잘된줄 압니까.

참모장동지는 얼마나 훌륭했구! 정말 인간다워 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이 가슴에 언제나 공지가 차넘쳤습니니다. 저도 참된 삶을 산다는 자량이 파도쳤습니니다. 이제 누가 뭐라든, 이 공진 못차버립니니다. 이 자량은 못버립니니다!》

얼마나 가슴을 크게 울려주는 말인가!

석호는 너무도 확고하고 드림이 없는 정우의 이 신념앞에 머리숙이고 자신을 깊이 뉘우치며 물려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석호는 정우의 요구대로 지원물자대신에 통나무를 한가득 싣고가게 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기 위하여 자기를 깡그리 다 바치고있는 정우의 불같은 마음과 확고한 신념은 큰물에 툽이 터졌을 때와 그의 수첩에 새겨진 글발들에서도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갑자기 쏟아져내린 무더기비에 큰물이 나서 폭을 막았던 흙가마니들이 내려기면서 길밀의 수도관을 막았다. 그때문에 마을과 밭들이 큰물에 잠길 위험성이 생기었다.

그 누구나 그것을 떨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 했지만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석호의 마음도 그러했다. 바로 그때 정우는 수도건설장으로 가는 목재를 가득 실은 차를 세워놓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뛰어들어 막혔던 수도관을 열어놓는 위훈을 세우고 병원으로 실려간다.

그의 몸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에는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처럼 살리!》라는 글발이 적혀있었다. 그것을 본 석호지도원이나 애인인 금단이는 물론 병원의 간호원까지도 깊이 감동되어 이렇게 말한다.

《참 좋은 글이에요. 최후의 날, 허를 끊던 마동희동지의 정신이 비껴있는것 같구, 불뽕는 적의 화구로 달려가던 리수복영웅의 마지막숨결이 살아있는것 같아요. 결국 정우동지도 오늘 그래서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단행...》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 뜨거운 말인가!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적량만을 안고 오늘들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고있는 인간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적인 사실인것이다.

이처럼 주인공들인 김운호분대장, 림성철, 정우는 다 하나와 같이 혁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을 안고서 혁명적량

만에 넘쳐 래일을 위한 오늘에 빛나게 살기 위해 가장 어렵고 힘든곳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빛나게 살고있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주인공들이다.

혁명적량만을 안고서 활기있고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살고있는 주인공들의 성격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음으로 가는 길 험난해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서 살고있는 모습이다.

희망은 승리자들의 얼굴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꿈과 희망이 있다는것은 벌써 그가 승리자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패배자나 절망적인 사람에게서는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찾아볼수 없다.

자기의 힘을 믿고 혁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신념의 인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희망에 넘쳐 가는것이다.

오직 희망이 있는 승리자들에게만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있고 아름다운 꿈도 있는것이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단편소설 《행복의 방아》에서의 송경심반장의 형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송경심반장은 어릴 때부터 하늘에서 햇슴같이 펄펄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이 몽땅 쌓이였으면 하는 아름다운 꿈과 공상을 안고 살아왔다.

그의 꿈과 공상은 얼핏 보면 달나라의 동화세계와 비슷한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허황한것은 아니였다. 그는 큰 다음 하늘의 눈처럼 쏟아져내리는 그 귀한 쌀을 땅에서 얻기 위해서 청춘을 바쳐 지금까지 농촌에 살고있으며 오늘은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다.

송경심은 반장으로 일하면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며 땅과 자기의 생활을 끝없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꿈을 안고 낙천적으로 살고있다.

이런 송경심이기에 현지체험생으로 작업반에 온 림성철을 열렬히 사랑할수 있는것이다. 림성철은 한알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경심의 소원과 꿈을 활짝 꽃피워주도록 힘을 주고 이끌어준 인간이었기때문이다. 하기에 송경심은 아직 그 누구에 게도 말 못했던 처녀의 속마음을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터놓으며 림성철을 가리켜 어린 시절 들려주던 동화세계의 자기 아빠토끼를 찾았다고 자랑높이 말한다.

림성철에 대한 송경심의 사랑은 순수 청춘남녀들의 사랑만이 아닌 땅과 쌀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과 하나로 깊이 련결되어있는 참으로 열렬하고도 뜻깊으며, 깨끗하고도 뜨거운 시

대의 높이에 올라선 승리자들의 참다운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경심은 아직 성철이와 사랑을 약속하는 말 한마디 나눈적 없지만 그는 그 사랑을 곡식포기에 그대로 다 쏟아부으며 풍요한 가을을 향해 희망차게 웃으며 일해나간다.

송경심과 림성철의 아름다운 꿈과 열렬한 사랑은 다음의 대사들이 잘 말하여준다.

《…반장동무가 땅과 곡식을 사랑하듯이 나도 그걸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겁니다.》

림성철의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뜨겁고 많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하기에 송경심도 더 깊이 감동되어 애뜻한 미소를 보내며 그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오리라는것을 굳게 믿는것이다.

림성철은 그 믿음과 사랑을 안고서 마침내 여기 관리위원장으로 다시 내려온다.

보는것처럼 송경심과 림성철은 래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아름다운 꿈을 안고 밝게 웃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함박눈이 다 쌓이 되도록 애쓰며 청춘의 열정을 바쳐 일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희망과 꿈은 실화문학 《푸른 섬광》에서 전차운전공 김금순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다.

김금순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석탄전선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전차운전공처녀이다.

그는 해종일 갱속에서 탄부들이 충성의 열정으로 캐낸 탄을 운반하며 보는것이란 탄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희망이 비껴있고 눈앞에는 아름다운 미래가 꽃처럼 피어있다.

이 처녀의 가슴속에 과연 그 무엇이 깊이 간직되어있기에 그처럼 어려운 생활과 지하막장에서조차 밝은 희망과 아름다운 미래가 꽃피어있는것인가!

금순은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에 비하면 꽃이라고 생각하며 장군님께서 건강하시면 반드시 잘살날이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래일의 승리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안고서 희망차게 살고있는 발랄하며 매력적인 처녀이다.

하기에 금순은 탄광로동계급들이 충성의 열정으로 산더미처럼 캐놓은 석탄을 더빨리, 더 많이 운반하기 위한 기본중심고리인 《철도화》문제를 푸는데서 주인공 현려진지배인을 제때에 도와줄수 있었으며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

이다.

미래에 대한 김금순의 아름다운 꿈과 그의 얼굴에 꽃처럼 핀 희망은 그가 현려진지배인에게 하는 다음의 대사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아바이, 난 말이에요. 저 사진에 있는것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배를 타고서 경치좋은 우리나라 명승지들을 죄다 돌아보고싶어요. 칠보산이랑 구월산이랑 금강산… 전 어버이장군님께서 그 어려운속에서도 칠보산이며 구월산 명승지를 찾으시 여 우리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텔레비죤 화면으로 보면서 얼마나 감동되고 큰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싶었했어요. 아바이, 내 소원이 너무 크지요?》

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들려오는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의 아름다운 꿈인가!

금순이는 자기의 소원을 풀어주겠다고 하며 옆에 허물없이 앉아있는 이 아바이가 자기네 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이라는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속 마음을 터놓고 말한다.

여기에 금순이의 깨끗한 마음속을 더 깊이 들여다볼수 있는 매력이 있고 감흥이 있는것이다.

이 아름다운 금순이의 꿈속에 바로 승리한 래일이 있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끝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긍지높은 **김일성**민족,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 있는것이다.

혁명적랑만을 안고 활기있고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살고있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심장속에 억센 기둥으로 깊이 뿌리박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그렇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이 가장 힘든곳에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것도 이를 악물고 참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웃으며 이겨내는것도 오늘은 어려워도 활기있고 명랑하고 낙천적으로 아름다운 꿈을 안고서 희망에 넘쳐 사는것도 바로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있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안고있는 이 혁명적랑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며 힘있고 아름다운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적랑만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참모습을 더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분노의 땅에서 외 3편

한창우

해방동으로 불리우던
나의 동갑나이 백돌어릴적 동무들아
하늘땅도 몸부림치던 신천의 련꽃봉에
무거운 마음안고 내 오늘 또다시 왔다

아! 올 때마다 다지는 맹세
며
엄마를 찾고 물을 찾던 그들에게
휘발유를 먹이고 불을 달던 미제살인귀들
오직 이 총대로만 복수하리라
다지고다진 복수모임
수십번도 넘는데

내 오늘 그대들앞에서
복수하였다는 그 말대신
복수하리라는 분노의 맹세
또다시 다지누나

허나 믿어다오 알아다오
훈련의 낮과 밤

강물처럼 흘린 땀방울로도
이 몸을 적시고적신 눈비로도 식히지 못한
분노로 끓는 나의 피 방울방울
쇠물처럼 끓여
천백배 복수하고야말
병사의 이 마음을

오! 그날에
내 선참으로 그대들을 찾아오리라
통일의 만세소리 터치는 그날
이 세상 그 어디 물로도
사무친 원한 못다풀 그 가슴에
백두산의 물을 떠다주마
백록담의 물을 떠다주마

안타까이 반세기를 울고우는
나의 동갑세대들
타드는 가슴 시원히 적시게
피맺힌 그 원한 다 가시게

분노의 무게

전조선의 이 병사
여기 신천에 찾아오면
수백만의 총련 병사들과 함께
수천만의 이 나라 인민들과 함께
가슴에 쌓고쌓는 분노

혈육들의 머리를 톱으로 켜고
눈과 귀에 못을 박고
너인의 배를 가르며
너털웃음 짓는 식인종들에 대한
복수로 가득찬 증오

오! 행복이 넘쳐나면날수록
1년열두달 신천을 잊은적 없는 우리

분노를 안고 크며 자랐고
더해지는 증오의 무게와 함께 성장하며
재우고 재운 복수의 화약이
억만톤의 무게가 되기도 남으리

장난감권총을 든 아이로부터
백발의 로인들까지
서로의 나이는 같지 않아도
여기 신천땅에 들어서면
한그람의 차이도 없어라
기슴에 간직하는 분노의 그 무게만은

오! 한계가 없는 그 무게

그 어떤 수자로도 표시할수 없는
이 세상 가장 큰 분노의 그 무게
우리의 총대마다 재워져있나니

그 분노의 무게 터지는 날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자체가
영영 없어지리라

신천의 침묵

신천이여
너의 산과 강 골짜기마다에
피가 스며있지 않은곳 있으랴
원한이 묻혀있지 않은곳 있으랴

딘고선 어 발밑에 도
저 한줌 흙에도
형제들의 땀이 깃들어있어
차마 발걸음 옮길수 없구나

피어난 꽃송이도
푸르려 설레이는 나무잎도
피로움에 몸부림치고
한많은 그네들의 숨결인양

바람조차 이 가슴 허비는 신천이여
참관지라면 기뻐 달려오는곳이련만
내 조국의 한지점 너의 고장에서만
찾아오는이들 끝이 없건만
무거운 침묵만이 있구나

오! 천길 깊은 그 침묵속에
활화산같은 복수의 불을 품은
원한의 땅 신천이여!
천근만근 드리운 이 침묵이
깨여지는 그날은
미제가 살아남는 마지막날로 되리라

미제야 기억하라

티없는 웃음만 알던 소녀들
어질고 순박하기만 하던 녀인들이
피젖은 신천의 박물관 진렬장마다에
총알같은 눈길을 박고있구나

강철의 심장 아니고서는
뉘를 잃을 그 참상앞에
이 나라 녀인들과 어린 소녀들이
어찌하여 눈섭 하나 까딱함이 없이 쳐다보는가
그리도 눈여겨보는가

오! 기장 가깝고 다정하던 혈육이 ,
자기의 부모형제들이
야만들의 터럭손에 란도질당했는데
녀인들의 눈에

어찌 증오의 불이 일지 않으랴
어린이들의 가슴에서
어찌 분노의 웨침이 터지지 않으랴

천추에 용서 못할
미제의 귀족같은 그 만행이
이 나라 녀인들도 아이들도
모두다 복수자로 만들었다

미제야 기억하라
저 녀인들
저 소녀들앞에
영원한 복수의 파격으로
영원히 네놈들이 서있다는것을

삼성사 수난기

리빈

성종실록 제15권 임진(1472년) 2월 계유조.

...

황해도관찰사 리예의 장계.

《신은 그전에 내린 전하의 지시에 따라 문화현의 옛 늙은이들인 전 사직 최지와 전 사직 최득강에게 물어서 삼성당의 사적을 알았으므로 조목별로 적어 보고올립니다.

...삼성당에는 환인천왕이 남쪽을, 환웅천왕이 서쪽을, 단군천왕이 동쪽을 향하게 모두다 신주를 모셨습니니다....옛적에는 다 목상이 있었으나 우리 왕조의 태종때에 하륜의 제의로... 세 성인의 목상들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태종 2년 임진 10월.

어느날 해질무렵이었다.

황해도 문화고를 관아마당으로 동지춘추관사 동포 맹사성과 사헌부 집의 하진이 들어섰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친 조정관리들이어서 그런지 현령 박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일행의 주장은 봉명사자로서 하진이고 동포(맹사성의 호)는 수행중 한사람이었다. 주객의 인사마당에서 동포는 박함과 눈길이 마주치게 되자 《모르는척 하오.》 하는 뜻으로 슬그머니 눈을 금쩍 해보였다.

인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하진은 불안스레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번 하행의 까닭을 밝혔다.

《본헌 소속 구월산 삼성당의 환인, 환웅, 단군 세개의 목상들을 전부 없애버리라는 어지가 내렸소.》

《예?!》

박현령은 어찌나 놀랐던지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하진은 그를 본체도 앓고 쌀쌀히 덧붙였다.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하오.》

이날저녁 하진일행은 객사에 려장을 풀었다.

날이 어두웠다. 일부터 하진과 떨어져 다른 방에 들었던 맹사성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누가 불세라 조심조심 찾아간곳은 내아 현령의 침소였다. 두 친구는 반갑게 맞절을 하고나서 손을 집었다. 이들은 온양고를 동향태생으로 막역지우간이었다. 뜻깊은 상봉이었다. 먼저 맹사성이 랑해를 구하였다.

《이보게, 자순(현령 박함의 자), 내 아까 자네한테 눈짓을 한건 우리 두사람이 친구인줄을 하진이 알아서는 안되겠기에 부득불 그런 실례를 했으니 그리 알구 언짢은 속을 풀게.》

《원, 별소릴 다. 우리사이에야 아무런들 뭐라는가. 그래 까닭이 뭐야. 어처구니 없는 어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테지?》

《뭐 차차 숨을 좀 돌려가며 얘기하세나. 한두마디로는 안되니까. 그래 자네 랑친께선 다 무고하신가? 내 자네와 한 박우물을 먹으면서 자랄때 그분네들의 사랑을 많이도 받았지...》

맹사성은 여유있게 운을 뗐으나 박함은 벌컥성을 냈다.

《남은 속이 타는데 썬평좋다! 그래 삼성당의 성인목상들을 없애치우란다니 이게 웬놈의 도깨비 감투끈인가 응? 룽갑이 곤두서두 분수가 있지... 그러지 않아두 내 속이 하두 달아서 이제 방금 자넬 찾아가려든 참이야.》

눈에 열이 오른 박함은 방바닥을 두들기며 한걸음 나앉았다. 맹사성은 이러는 그앞에서 사실을 숨길수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나직하게 《말도적질 쥐새끼가 없을까?》 하고 먼저 경계의 눈치부터 보였다.

《여기야 뭐 시골이라 서울하구야 다르지. 하진 몰라. 구운 게도 발을 떼고 먹는게 세상사렸다.》

둘은 곧 뒤꼁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난 이 맹랑한 판에 끼여들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여길 찾아왔을걸세...》

맹사성은 장침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운명을 며칠 앞둔 어느날 부친은 아들(맹사성)을 불러앉히고 간곡한 유언을 남겼다.

《이애 성지(맹사성의 자)야, 너 명심해들거라. 이 아버지는 구월산 문화고을의 삼성당을 한번도 참배하지 못한 죄를 졌구나. 나도 조선사람이라 단군성왕님의 후손이 적실한데 시조님을 한번도 찾아뵈지 못했으니 이 어찌 자손된 도리라 하겠느냐. 나는 이제 그 무거운 죄를 안고 황천길을 어렵게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애야, 너는 나처럼 차일피일 미루다가 죄를 짓지 말고 반드시 삼성사를 참배하고 이 불초한 아버지의 평생 한을 단군님존전에 고해다오...》

맹사성은 가슴이 뜨끔했다. 아버지의 죄는 곧 아들의 죄가 아닌가.

그는 남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던 인생의 첫 시기부터 부모와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에게서 겨레의 시조인 단군을 받들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길들여졌다. 철이 들기전에 벌써 그는 온 겨레가 단군을 원시조로 모시고 그의 후손임을 자랑으로 여기는줄 똑똑히 알았으며 그 과정에 저도 모르는사이 자신도 그들과 같은 궁지를 지니게 되었다. 단군이 성업을 이룩하였기에 이 땅에는 나라가 서고 나라가 선 덕으로 겨레는 수수천년 풍파도 많았던 장구한 세월 하나의 혈통을 보존할수 있었으며 시조 단군은 마땅히 민족의 상징으로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맹사성은 굳게 믿었다.

결국 단군은 온 겨레의 마음의 사직이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아득한 태고로부터 그분의 천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구월산에 사당을 짓고 자자손손 정중히 단군의 혼령을 모셔온것이 아닌가.

때문에 부친의 유언은 아들에게 큰 충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부친작고후 거상중에는 움직일 형편이 못되었다. 삼년만에 몽상을 털고 기제사까지 필한 다음에는 삼성사를 찾아갈 준비를 서둘렀다. 했으나 벼슬에 적을 둔 몸이라 임의롭지 못하였고 더구나 《본국도(전국지도)》 편찬성원으로 발탁된후로는 그 일이 어쩌나 긴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도저히 몸을 뻗수가 없었다.

며칠전이었다. 의정부 록사로 있는 처남이 슬그머니 찾아와 귀속말을 하였다.

《하대감(우정승 하륜)이 구월산 삼성당의 세 성인목상들을 모조리 없애자는 건의를 상감께 올려서 윤허를 받았다고요.》

《뭐, 뭐라구?!... 얼빠진 소리!!》

맹사성은 깜짝 놀라 꺾쩍 뛰었다.

얼은 그자신이 빠져버린듯싶었다. 처남이 황급히 그의 입을 막았다.

《아.형님, 고정하우. 함부로 떠들다니. 생벼락이 무섭지 않소? 새나가신 안될 소리데-》

적지 않은 힘을 들여서야 겨우 자신을 억제한 사성은 마치 처남이 망동의 장본인이기라도 한것처럼 《그럴 까닭이 뭐라던가?》 하고 꾸짖듯이 물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단군천왕과 같은 천신을 우리 나라에서 섬기는건 대의명분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대의명분이라니?!》

《명나라와 같은 천자국에서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거지 천자가 없는 우리 나라에선 그럴수 없어나봅니다.》

《원 저런?!》

사태가 이쯤 되해보면 불의지변을 빚어낸 원인이 불보듯 뻔했다.

《생벼락》이 떨어지건 말건 치솟는 분심을 이길수 없는 그는 끝내 울분을 터뜨리고야말았다.

《백주에 도깨비짓을 해? 푸른 하늘이 내려다본다! 저 하늘아래서 밥먹는것들이 뉘 자손들인데 감히 어디다 대구... 단군천왕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 사직이고 얼이란 말이야! 사직을 허물고 얼을 뽑아던지려는...》

《아 형님, 제발, 제발 좀 참소. 벽에도 귀가 있고 허밀에 도끼가 있다지 않소!》

《...》

이 험악한 정황속에서 사성은 마음이 갈광질광하였다. 어쨌으면 좋을지 도저히 종잡을수 없는 가운데 어인 까닭인지 처남의 귀뜸이 어떤 역모의 변종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의 오해일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다. 아무리 대국을 섬기는 버릇에 환장이 되었다 하기로써니 한갓 그네들의 비위나 맞추자고 제 조상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망동이란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승정원에 닿아있는 줄을 당겨은근히 진가를 타진하였다. 삼성사 성인상들의 참혹한 운명,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어느날 누구가 성인상처리의 어지를 받들고 구월산으로 내려간다는 내막까지 알게 되었을 때 맹사성은 그만에 아주 얼흔이 나가버린듯 멍청해지고말았다.

여러날 고민끝에 드디어 다음과 같은 결심을 내렸다.

단군상이 배신자들의 칼을 맞기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조를 찾아뵈옵자, 내 이렇게 못하면 단군후손으로서 명분이 없고 부모의 유지에 랭담한 불효로 저승에 가서 아버님을 만날 면목이 또한 없다, 그런데 최후의 도리를 지키자면 하진을 따라가는수밖에 없을것이다, 《본국도》 편찬에 황해도일경 특히 명산인 구월산답사가 필요하다고 그럴듯이 구실을 하나 만들어내면 아무런 의심없이 수행이 허락될수 있다, 이런 든든수에 불지 않고 그저 그러루한 리유로 그에 앞서 떠난다면 이를 수상히 여겨 뒤를 캐려는자들이 생겨날것이다, 하진에게 물어가면 참변이 일어나기전에 혼자서 찾아뵈기 힘들수 있고 아울러 여차하면 하진의 눈길을 피하지 못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말수도 있다, 아무런든 이 기회는 하늘이 마련한 기회로서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이러나

저러나 본마당에 가놓고보자, 거기에는 자순(현령 박함)이 있으니 도와줄것이다...

《내 이렇게 돼서 이 슬픈 걸음을 하게 되지 않았겠나.》

사성은 서글프게 말끝을 맺으며 생각할수록 끓어오르는 울화를 참을수 없어 한숨을 연송 후후 내쉬었다.

《후손이 된 도리로 조상을 찾아뵙자던 노릇이 그 조상을 해치는 형리의 형색이 되어 떠나지 않을수 없었은즉 자네의 속도 어지간하겠구만. 서대문을 나설 때부터 고개를 들지 못했을걸, 하늘 땅이 무서웠을테니까.》

박함은 사성의 떨리는 무릎우에 손을 얹으며 측은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자순, 자네야말로 내 친굴세. 이 아픈 속을 그리 알아주니...》

동정에 목이 마르던 사성은 친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그다음부터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량자가 다 쓰린 마음을 말로는 달랠 길이 없어 입을 열지 못했던것이다. 가냘픈 초불마져 그들의 심정을 건드릴세라 저어했음인지 고요히 타오르고 뒤뜰의 귀뚜라미들도 조심조심 쓸쓸하게 울어댔다.

어느덧 박함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사성은 그를 보니 참고 참아오던 비분이 건잡을길 없이 솟구쳐올랐다. 가슴이 미여 지는듯 숨이 막히고 친구를 따라 눈물이 앞을 가렸다. 미구에 박함은 아무래도 못견디겠던지 가슴을 두드리며 비통히 부르짖었다.

《이보라구 성지, 난 이 문화현에 삼성사가 있기에 원노릇이 보람이었네. 삼한땅 그 어디에도 없는 세 성인들의 사당을 문화 구월산만이 모시지 않았나말야. 하긴 단군님께서 천신이 되신뒤 구월산에서 승천하시였다고 전해오니까 다른데 모실수가 없긴 하지만... 내 이제야 무슨 정신에서 살겠나 응? 마음속 사직이 허물어졌으니, 아, 단군상을 없애다니? 없애자고 발설한 입이야 입이 아닌 밑구멍이거나 오랑캐일시 적실해...》

어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개천이라 단군성인 계시여 조선이 있고 삼한정기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은 만대를 묻어오면서 단군님의 성지를 겨례의 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 하, 그런데 더 잘 모시지는 못할망정 뭐 무엇이 어찌구 어찌? 민심은 곧 천심이라 단군님을 받드는 만인의 정성 천심이 분명커늘 어디서 감히... 감히...》

박함은 그만 억이 막혔던지 아니면 뒤말을 차마 혀끝에 올리기가 끔찍했던지 입을 다물고 못

다한 말의 대신이런듯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쳤다.

《자순, 진정하라구. 천도가 무심해서 이런 괴변이 생긴걸 어찌겠나.》

《진정이라... 그럴수 없어. 난 하집의가 단군상을 없애는 그 마당에서 칼로 목을 찢러죽고 말겠네. 천심을 짓밟는 죄악을 막지 못하고 서야 살아서 뿔한단 말인가. 하긴 내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용서 안할거네.》

조상에는 생각이 없구 팔죽에만 정신을 판다더니 제 겨례의 얼은 안중에 없구 큰놈의 나라에 비위맞출 생각뿐이니, 제 정신은 정배보내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얼간망둥이같은것들, 허참!》

《...》

친구의 통탄인즉 자신의 원한이라 사성은 할말이 없었다. 위로한답시고 구태여 중언부언해야 실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실수를 피하도록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한마디 비쳤다.

《하정승(하륜)은 이 음모를 꾸며놓기는 하고도 속이 썩기는 모양이야. 그래 사전에 사달이 나지 못하도록 삼성사로 내려보낼 하향봉어사로는 제 심복을 골랐는데 그가 바로 친생질 하진일세. 하진이란 위인인즉 제 아재비와 똑같아 권모술수에 능하고 모략에 귀신이니 그자가 눈에 독이 올라 살피고있는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네.》

이튿날아침이었다.

조화가 끝나기를 기다려 박함을 만난 하진은 오늘 당장 삼성사로 가서 세 성인의 독상들을 불살라버리자고 독촉하였다. 박함은 이런 경우를 예견하여 맹사성과 어제밤 미리 짜놓았던 계략대로 그를 구슬렸다.

《이보우 하집의, 막중국사를 아무 날이나 시행할수야 없지 않소. 내 그레 간밤에 일진을 보았는데 길수는 오늘이 아니라 명일에 들터란 말이요. 한즉 오늘 하루 하공은 모처럼 떠난 길에 구월산 명소를 몇군데 유람하는게 어떻소?》

《...》

하진은 불길한징조를 예감한듯 꺼림직한 눈길로 박함을 쳐다볼뿐 대답이 없었다. 곁에 있던 맹사정은 긴장되었다.

(넘어가지 않는구나. 지독한놈같으니.)

박함이 천연스레 한마디 보냈다.

《하공, 아무래도 오늘은 안되겠는데 온 하루를 적적히 지낼거야 없지 않소.》

하진이 쌀쌀히 잘랐다.

《그만두. 어지를 받들고 미행으로 내려온 봉어지신이 유람이라니. 난 여기서 명일을 기다리겠

소.》

급기야 박함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성은 속이 조였다. 어쩐지 하진이 자기의 본심을 눈치채고 있는듯이 생각되었다. 문득 《벽에도 귀가 있다.》던 처남의 경고가 귀전에 살아왔다.

하진이란 이 악한이 제놈의 어느 수행심복을 시켜 간밤에 내 뒤를 따르도록 꾀하였더라 말인가? 그럴수 있다. 하다면 우리 둘이 한 말중에 한두마디라도 도적했을것이다. 그것이 하진의 귀에 옮겨졌다면 큰일이다. 그때에는 틀림없이 자순과 나는 어지를 희롱한 죄에 걸려 처형될것이다.

상감은 단군상을 없애려 하는데 일부러 그를 찾아가 울리는 인사, 이것은 어지에 대한 반기로 인정되어 탄핵을 면치 못한다. 사태는 위험에 빠졌다. 그러나 맹사성은 자신을 타일렸다.

(그까짓것 무서울게 없다. 뜻을 지킨 죽음은 사나이의 죽음이야!)

죽기를 각오하니 참말 두렵지 않았다.

이 마음속 각오는 마음을 안정시켰고 이는 곧 사색을 정돈시켜 출로를 찾아냈다. 그는 여유작작히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둘러댔다.

《집의 하공, 박공이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말을 오해하는군. 예서 구월산 월정사가 지척인데 하루 기다리는 사이 공이 거기 가서 본조의 창성을 위한 치성을 드리도록 하는게 어떤가고 아까 박공이 내게 의견을 말하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그의 의도를 깨달았던지 박함이 제격 말을 달았다.

《하공, 내가 말을 곧바로 해야 할걸 삼가노라 좀 예들다보니 오해가 생겼소. 고려왕조의 명복은 은를 정곡사가 말아 빌었는데 본조에 이르러서는 흔히 우리 고을 월정사가 새 왕조의 흥왕을 기원하오. 그래 그걸 녀두에 두었었는데, 허! 허!》

하진은 그래도 무엇인가 미타한듯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한참만에야 겨우 《그럼 내 잠간 다녀올테니 그사이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오. 만약...》 하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뒤말을 생략한이 《만약》이 위험경고의 시사인줄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박함은 즉시 하륜앞에 보고를 대령시키고 여려하인들에게 보시를 듬뿍 안겼다. 한편 하진의 왕림을 선통하는척하면서 먼저 심복하인 하나를 월정사로 띄워보냈는데 그 진목적인즉 친한 절주지로 하여금 하진일행을 해기 질 때까지 붙들어서 달라는 당부를 전하는데 있었다. 가마에 오르

면서 하진은 사성에게 《맹성지도 함께 가세그려.》 하고 동행을 요구했다. 사성은 지도편찬에 필요한 현지 확인이 더 중하다는 공무를 구실로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드디어 하진은 떠났다.

아슬아슬 뒤집힐번한 모의가 성공에 이르자 안도의 숨을 시원하게 내어쉬는 두 친구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하였다.

맹사성은 길차비를 서둘렀다. 오늘 해전에 구월산 동쪽의 단군묘(삼성사)를 참배하고 돌아오자면 다그쳐야 했던것이다. 그가 평민들의 수수한 바지저고리를 갈아입고나서 숨쉴 서툰 행전을 치느라 끙끙거리고있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던 박함이 나타났다.

《나도 같이 가려네.》

《아따 이사람, 나 혼자 가기로 어제밤 약조하지 않았나.》

《그야 그렇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고통스러운 길을 자네 혼자 떠나보내선 안되겠더군. 고독하면 슬픔이 더 커진다니까. 그리구 내 마지막으로 단군님을 한번 더 뵈고싶으니. 처자들까지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만 일행이 번다하면 남의 눈에 띄우기 쉬우니 그렇게는 못하겠네.》

박함의 곡진한 대답은 눈물에 젖은듯 목이 멘소리로 울렸다. 그의 지극한 마음에 사성은 가슴이 뜨거웠고 또한 제편에서 몹시 함께 가고싶기도 하였다. 참말 친구가 곁에 있으면 고통이 덜할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화가 미칠 만일의 경우를 우려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하진이 룡조삼사가운데 다른 공관 관헌이라면 혹 모르거니와 남의 숨은 죄 추색을 전업으로 하는 사헌부의 집의이다. 다름아닌 바로 그가 가까이 있는 조건에서 이 밀도는 드러나기 첩경이다. 들장만 나는 날에는 사태는 험악해진다. 하륜이 독을 쓸것은 물론이요 성질이 조폭한 임금이 틀림없이 둘 다 잡아죽이려 들것이다. 궁정안에서 비밀을 루설한 자들까지 모조리 들춰내어 주리를 틀것이라 처남 역시 무사치 못할것이다.

새로 룡상을 차지한 임금(태종 리방원)은 집권 초기부터 본패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도를 넘겨 형장을 들것임에 틀림없다. 포은(정몽주)을 비롯하여 고려유신들을 무자비하게 처죽이는데 앞장섰던 방원, 왕자리를 다투어 형제들끼리 골육상 잔을 서슴지 않아 궁성을 한피줄의 피로 물들인 이른바 《왕자지란》의 주모자 방원... 지금의 왕이 이러한 폭군일진대 오늘 문화현에서 우리 밀모의 탄로는 그 운명이 불보듯 뻔하지 않는가. 으시시 소름이 끼친다. 박함 그자신의 말마따나 《구운 계도 밭을 떼고 먹는게 세상사》렸다.

그래서 《우리 밀행이 들장나는 경우 하진이 각을 뜨려들겠는데 나때문에 공연한 자네까지 횡액을 당하면 어쩔려구.》 하고 박함앞에 손을 내저었다.

《날 생각해줘서 고마우이. 하지만 거례의 시조가 화를 입는 란동판에 나 하나 횡액이 대수겠나. 그건 그렇고. 이런 길은 벗과 함께 다니는것도 하나의 인생멋일세. 단군님을 죽마고우와 함께 되면 좀 좋은가!》

《자네 정말 어진 사람이로구만!》

《거 새삼스럽다!》

박함은 옷갓을 활활 벗어던지고 부득부득 토목 겹바지를 껴입었다. 둘은 누가 곁에서 봐도 잘 모르도록 삿갓을 푹 눌러쓰고나서 말에 올랐다. 물론 건마도 구종도 없는 자전마였다.

문화고을에서 삼성사까지는 30리가 잘된다.

두 선비는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한 절반길을 말없이 갔다. 새파란 하늘에 드문드문 널린 햇숨 구름들은 이제 자기밑에서 벌어질 피변을 두고 못내 슬픔을 금할수 없는듯 장엄한 산기슭에 점점이 그림자를 그늘며 머뭇거릴뿐 멀리로는 떠날 줄 모르고 울창한 숲도 컴컴한 골짜기도 조상의 비운앞에서 억이 막힌마냥 답답한 적막속에 침울하였다. 사위에는 말발굽소리만이 뚜격뚜격 서글프게 울린다.

애써 비애를 녹잡히고있는지 먼 산만 바라보며 잠자코 가고있던 박함이 드디어 울분을 터뜨렸다.

《성지, 내 말 좀 듣게... 난 아무래도 모르겠거든. 남달리 대가 센 상감께서 어찌하여 호정(하륜의 호)의 말이면 사족을 못쓰나 말야. 이번 일도 그렇거니와 허다한 어지가 거반 다 호정의 뜻이 아닌가 말일세. 나라정사는 상감께서 채를 잡았는지 아니면 호정이 채를 잡았는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라니까.》

이 원망은 물론 사성에게서 대답을 받고저 한 물음이 아니였다. 하지만 하륜을 원쑤처럼 여기는 맹사성에게 그 말은 그네들을 규탄하고싶은 욕망을 강렬히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친구가 벼슬살이를 하는만큼 군신관계의 비사들도 알고있을 필요가 없지 않으리라 믿어져 친구를 돕는 뜻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감께서 호정의 말이면 속고의까지 벗기를 마다하지 않는데는 까닭이 있네...》 하륜이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을적에 리방원 (태종)이 작별인사를 하려 그를 찾아갔다. 여러 손님들이 방안에 가득한 가운데서 방원이 앞으로 나아가 주인 하륜에게 술을 권하려 하였다. 그가 잔을 들고 바투 다가섰을 때 하륜이 취한체 자기 앞의

술상을 뒤엎어서 방원의 옷을 흠뻑 버리어놓았다. 방원이 크게 노하여 횡하니 돌아가버렸다. 하륜이 난색을 짓고 여러 손님들에게 《임금의 아드님이 화를 내고 갔으니 내가 몸소 쫓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소.》 하고 랑해를 구하고는 드디어 총총히 뒤따라갔다.

방원의 하인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상전에게 《지금 저기 신임충청감사가 뒤쫓아오나이다.》 하고 여쭙었으나 방원은 들은채 본체도 않고 그냥 내치 자기 집 대문앞에 이르러 말을 내렸다. 하륜도 뒤따라 말을 내렸다. 방원이 안문으로 들어갔다. 하륜도 안문으로 따라들어갔다. 방원이 그제야 의심이 나서 뒤를 돌아보며 《왜 그러시오?》 하고 물었다.

《사제가 급합니다. 아까 제가 술상을 엮은것은 전하가 목전에서 그렇게 전복될 위험이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하고 하륜이 가만가만 여쭙었다. 크게 놀란 방원이 침실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자세한 사연을알아본데 이어 수습방도를 물었다.

《저는 부임령을 받았으므로 여가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산군수 리숙번이 정릉을 옮기는 일로 자기 고을 군정들을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올것입니다. 그가 전하를 돕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임지에 가서 준비를 갖추고 때를 기다리겠으니 일이 벌어지는대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하륜은 떠나갔다. 방원이 안산군수 리숙번을 불러서 자기의 위태로운 처지를 알리고 수습대책을 물으니 그는 《그런것쯤은 손바닥뒤집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드디어 리숙번은 방원을 받들고 그의 하인무리들과 자기의 안산군정들을 시켜 군기시를 빼앗은 다음 전부 무장을 갖추고 경복궁을 포위하였다. 방원이 남문밖에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앉았는데 그아래에 빈 장막을 또 한개 쳐놓았다. 거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빈 장막을 가리키며 누가 앉을 자리인가고 의문을 돌리고있는중에 불안간 나타난 하륜이 그 장막안으로 유유히 들어갔다.

《...상감께서 동생 방번과 광석 그리고 대신들인 정도전, 남은을 처죽이고 형 정종을 몰아낸 다음 등극을 꾀함에 있어서 하륜은 이렇듯 큰 공을 세웠네. 자순, 이만하면 호정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만하지? 삼감님과 호정의 인맥관계는 세상이 알아서는 큰일날 비밀일세. 자네만 알아두고 경계하라구.》

《그렇단 말이지. 한즉 하륜은 삼감님을 떡주무르듯하겠구만. 까닭에 오늘의 삼성사재변은 아직

약과했다?》

《넉넉히 그럴수 있지.》

《변피로다!》

《...》

비사를 돌이켜보느라니 더욱 억이 막혀 말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두 친구는 다시금 제 나름의 속생각에 파묻히며 단군문앞에 이르렀다.

서쪽에 높이 올려다보이는 구월산주봉(사황봉)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두갈래의 산줄기사이에 크지 않은 벌판이 펼쳐졌는데 가장 좁다란 목을 성벽같이 웅장하게 돌담으로 건너막고 벌판 한가운데로 통하는 길에 문정각을 세웠다. 이것이 《단군문》이다. 여기에서 삼성사는 서북쪽으로 사오리가량 상거한 나지막한 산마루에 자리잡았다.

삼성사(세칭 삼성사는 삼성당, 삼성전, 단군묘, 단군사, 천왕당 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바 현재 그 소재지 《전동》은 《삼성전》의 《전》자로부터, 삼성사가 터를 잡은 소증산의 다른 이름 《전산》도 역시 같은 《전》자에서 유래된 지명이다.)뒤쪽으로는 주봉인 사황봉에서 갈라져나와 외봉으로부터 시작된 산줄기가 양악군(안악)까지 이르고 서방은 눈썹리 아득히 쳐다보이는 백악산(사황봉, 대증산)이 솟았으며 서남방은 구월산 남맥으로 막혔다. 때문에 툇 터진 한곳-2리 정도의 평지마저 담장으로 가로지르다보니 삼성사는 험준한 남서북삼면의 산악과 동남면 담장으로 둘러싸였다. 결국 사당은 어마어마한 산세 천연성벽으로 보호된셈이다.

삼성사일경을 단군천왕의 성지로서 누구든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산악삼면으로 보호하는 한편 나머지 평지에는 담장을 성벽처럼 크게 쌓고 문을 세웠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단군성왕님을 얼마나 숭배하여왔는가를 족히 알고도 남음이 있구나.) 하고 맹사성은 가슴뜨거운 경탄을 금치 못했다.

도성의 성문처럼 위풍당당한 《단군문》 오른쪽에는 흰돌로 정교하게 깎아세운 하마비가 근엄하게 서있었다. 맹사성은 공손히 말에서 내리며 우연히 고개를 돌리는데 하마비 맞은편 또 다른 비석이 눈에 띄었다.

《영보사대》

비문을 읽는 그의 생각은 깊었다. 단군이 이 땅에 남긴 자취를 길이길이 잊지 않는다는 민족의지의 글발앞에서 좀처럼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 친구는 건잡을길 없이 숭엄해지는 마음으로 《단군문》안에 첫 걸음을 들여놓았다.

아, 아득한 태고시절로부터 오늘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자손들이 경건하게 삼가 옷깃을 여미며 이 문안으로 들어섰을 것인가. 그 어느 력사시대에 설사 당대의 왕은 모를지언정 단군천왕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던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문안에 들어서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니 맹사성은 뚫어오르는 비분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박함 역시 같은 아픔으로 모대기는마냥 고개를 꼭 떨군채 눈 한번 바로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맹사성은 가슴이 더욱 쓰렸다.

무거운 한결음한결음 삼성사를 가까이 할수록 이 불의지변을 빚어낸 인간아닌 인간들이 저주로와 치가 떨렸다.

(《머리 검은 짐승(사람)》은 은공을 모른다더니, 이 훈계야말로 그네들을 가리킴이 아닌가. 그들 탓에 이 동포 맹사성은 조상림중의 문안객신세가 돼버렸으니, 통분한지고! 통분한지고!)

전산끝머리의 좁은 골안을 따라 한참 오르노라니 소소리높은 세그루의 은행나무밑에 기와집 한채가 나타났다. 박함은 사성에게 저 집은 사당지기 최득순의 집이라는것, 최득순의 조상들은 옛적부터 대를 물리며 단군사당을 성의껏 지켜온 좋은 집안이라고 소개하였다. 그의 말소리를 들었던지 그네들과 동년배쯤 되어보이는 최득순이 울밖으로 나왔다. 그는 샅갓을 쓴 보통형색의 두손님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별안간 사색이 되어 《사또님, 어이 행차하시오니까.》 하고 박함앞에 꺼꾸러지듯 너 똥 엮드렸다.

《이사람 최사직, 우리가 온줄 누구도 알아선 안되겠네. 귀신까지도 말이야, 그럴 까닭이 있어 이렇듯 번복을 했느니.》

최득순은 무슨 까닭인지 부들부들 떨면서 《예》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이사람 오늘 피이하다. 전에없이 입은 붙어가지고 떨기는 왜?... 자넨 걱정할게 없으니 마음을 놓고 우릴 어서 전으로 안내하게.》

박함이 재촉을 해서야 최사직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떠들떠들 외웠다.

《사...사또님, 소인이 죽을 죄를 졌소이다. 아...아뢰옵기 황송무지하온데...저...전중 세... 세 성인들의 목상가운데서 단군천왕님이... 어제 밤사이에... 간곳없이 그만...그만 사라졌소이다...》

《뭐, 뭐라구?!》

두사람의 입에서는 놀란 웨침이 한꺼번에 튀어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가리라 승리자의 신심드높이

석광희

궁지와 자부심에 넘치는
가슴을 헤치고
누리의 한끝까지 환희를 터치며
승리한 언덕에 높이 올라
내 이 노래를 부르노라

돌이켜보면 심장깊이 되새겨지는
강행군의 자욱자욱...
하마 주저앉을번 했던 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심을 먹고
분연히 일떠선적은 얼마였던가

남갈으면 백번도 더 쓰러졌을
전대미문의 그 시련은 엄혹했어도
진두에 서시여 동요없이 이끌어주신
장군님 잡아주신 손 놓지 않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고넘었다

그렇더라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
그이의 사상과 지략
무비의 담력과 의지가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지게 했
나니

얼마나 큰 걸음을 내짚게 되었느냐
얼마나 큰 숨을 내쉬게 되었느냐
신심높이 기세높이
머리를 쳐들고 가슴을 펴고
가리라 강성대국건설의 곧바른 길로

나는 벌써 듣는다
대비약의 나래를 한껏 펴고
땅이 동하며
하늘이 울리게 내달는
천리마의 퇴성같은 말발굽소리
그리고 나는 본다
만리대공을 헤가르는 번개

생각만 해도 가슴터질듯한
흥분이며 격정이며
이 땅에 사는 궁지를 안고
90 년대를 빛내고 21 세기를 맞을
마지막돌격전에 용약 나섰나니

아, 달아오른 가슴 더 끓으며
총진군을 다그치고 다그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루에 거연히 서서
세계를 향하여 환희를 터치리라
영원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독도는 조선의 섬이다

정성철

1

독도의 메부리는
을밀대, 예서는 보이지 않으나
독도의 원한의 파도소리는
을밀대의 이끼푸른 성벽에도 날아와
창창히 부서져내리나니

오호라- 나의 붓은
증오의 검은 날이 서며
매국노의 개같은 심장들을 노리나니
나서라,
역적은 어느놈이나 상판을 보자
네놈들도 분명히
조선사람의 살쪼박이

낮기죽에 붙어있는놈들이나

풀숲에 사는 금수도
제둥지안의 한오리 털에라도 손을 대면
울부짖으며 달려드는데
짐승도 아닌 네놈들은 어찌
조상의 땅을 남에게 판단 말이나

강토의 허리에 감긴
분단의 사슬에 매달려 누리는
일신의 영달과 안일이
아직도 모자라
신성한 조국의 섬에
식민지 《한국》의 상표를 붙여

물건처럼 팔아먹을 때
피피들아 생각해보았느냐

20 세기 민족반역자들이
네놈들이 저지른
만고의 대죄를 두고
우리 마을 백발의 로인도
치를 면다
앞가슴에 붉은 넥타이를 맨
저 어린 아이들도
증오의 주먹을 틀어쥐고 학교길로 간다

오, 백두산의 밀림마저
우-우- 소리를 치며
치를 떠는 분노의 이 시각
조국이여 민족이여 나에게
복수의 서리발이 선 날창을 하나 달라
역적들의 이마우에
《매국노》라는
피서린 세 글자를 력력히 새겨넣게!

2

돈을 주고 샀다고
쪽팔이들아 아닌보살 하지 말라
네놈들은 양키가 갈라놓은 이 땅을
세쪼각으로 또다시 갈라놓은
조선의 철천지원썩이다

긴긴 반세기토록
란도질한 이 땅의 상처엔
아직도 피가 흐르는데
엔으로 위장된 침략의 검은 칼을
이 나라 몸에 또다시 댔으니

아, 나는 무슨 칼을 들어
일본렬도의 허리를 친단 말이나
우리는 무슨 메를 들어
일본렬도의 몸뚱이를
황광 부서버려야 한단 말인가

내 네놈들에게
조선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독도는 일본을 다 쥐도 아니바꿀
우리의 살점, 우리의 촌토
하여 네놈들이 더러운 계다짜를 끌고
독도에 오를 때엔
사랑하는 독도에 걸터앉아
역겨운 일본혈도를 발로 탕 차버려

저 멀리 태평양에 수장해버리리라

결코 샀다고 생각지 말라
산것이 있다면 독도가 아니라
더러운 매국노들뿐이다
준것이 있다면 엔이 아니라
더더욱 격발하는
우리 겨레의 불같은 복수심이다

3

수수만년을 이 나라
동해의 푸른 물에 몸을 적시며
백두대산줄기의 바위섬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섬 독도여
네 지금
얼마나 매국노들을 저주하겠느냐
너의 도래굽이의
크고작은 바위들은 또 얼마나
어머니와 갈라진 자식의 설음을
줄지어 나는 기러기떼에
련련히 실어보내겠느냐

오, 독도여
기나긴 세월
기묘한 네 바위우에 앉아
이 나라 어부들이 쫓기도 낚고
곡주를 따르며 조개구이를 하다가는
떠날 때엔 싯뚝 헤어질수 없어
땃은 몇번이나 울렸다 내렸으며
아득한 수평선에서까지도
얼마나 너를 찾아 소리쳐 불렀더냐

현해탄을 건너갈 때엔
너는 정녕 이 땅의 마지막모습이었고
돌아올 땐 두팔 벌려 맞아준
조국의 첫 모습이었나니

아, 진정 독도는
우리 할아버지들에게도
사랑하는 조국의 섬
우리의 손자들도 꿈에도 가보고싶어하는
내 나라의 섬

그렇다, 독도여 네가 없는 조국을
민족은 생각해본적 없나니
삼천리강토와 더불어
너는 영원히 조선의 령토이다
조선의 섬이다

기어이 복수하리

김윤식

나에게는 한생토록 잊을수 없는 추억이 있다.

10여년전 중학교시절 소년단넥타이를 매고 신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를 찾았던 일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사백 어머니들과 백둘 어린이들의 원한이 서려있는 화약창고-

그들이 흘린 피가 아직도 습배어있고 그들의 원한의 목소리가 미제에 대한 복수를 부르짖는 그곳.

화약창고의 한쪽 벽면에는 미제가 감행한 살륙만행을 형상한 대형그림판이 걸려있었다.

피타게 엄마를 찾으며 창고바닥을 허비는 아이들, 그들의 머리우에 《유. 에스. 에이》글자가 새겨진 휘발유통을 꺼꾸로 들고 쏟아부으며 너털웃음짓는 미제살인귀들.

한쪽에는 한 미군장교놈이 담배를 꼬나물고 이처럼 참한 살륙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그놈을 보는 순간 나의 눈에서는 불꽃이 일었다.

저놈이 해리슨, 바로 그놈이 아니던가.

《나의 명령은 곧 법이다. 이를 위반하는자는 무조건 총살한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로동당원, 국가기관 복무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체포하여 죽여야 한다.》고 떠벌이며 전대미문의 살륙만행을 명령한 해리슨.

그자의 명령에 따라 20세기의 야만 미제야수들은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붙잡아 생매장해 죽이고 우물에 처넣어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작두로 목을 자르고 눈알을 뽑아내고 머리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젖먹이어린이들까지 끌어다 여기 밤나무골 화약창고에 가두어넣고 배가 고파 어머니의 젖을 찾고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물이라고 퍼붓고 수류탄까지 던지는 짐승도 낮을 불힐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어린것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였던가.

아니다. 그 아이들이 로동당원, 열성농민의 아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빨갱이씨종자》를 말려야 한다면 그 몸서리치는 만행을 저지른것이 다.

정녕 미제는 피에 주린 승냥이, 인두검을 쓴 야수이다.

해리슨의 나라-미국.

인디안의 해골이 대지를 이룬 살륙과 야만의 나라 미국.

수억만 사람들의 시체가 더미를 이루에 《마천루》로 솟아있는 교살자의 나라-미국.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차 역겨운 죄많은 땅덩이우에서 해리슨의 망령들이 《5027작전계획》이라는 개꿈을 꾸며 50년대 신천의 참극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허나 그들은 오산하고있다.

그들은 알아야 한다.

어제날 소년단넥타이를 날리며 신천견학을 왔던 한 소년이, 아니,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신천의 원한을 원췌 미제의 머리우에 터칠 복수의 장약으로 다지고 또 다지며 복수자로 자라났거늘.

미국과 반드시 피의 결산을 하고야말겠다는것, 이것이 이 땅의 수천만 복수자들의 굳센 각오이며 우리 조선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에게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우리는 그 판결을 반드시 집행하고야말것이다.